

2025

용인 서리 요장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

2025. 6. 13(금) 13:00~18:00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

주최 | 용인시 · 한국중세고고학회

주관 | (재) 서경문화유산연구원

| 학술대회 일정표 |

1. 일시 : 2025년 6월 13일(금) 13:00~18:00
2. 장소 :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
3. 주제 : 용인 서리 요장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

4. 일정

09:00~12:00	용인 서리 발굴 현장 답사	서경문화유산연구원
13:00~13:25	개회사 축사	정의도(한국중세고고학회장) 이상일(용인특례시장)
13:25~13:30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리	사회: 박정민(명지대학교)

| 주제발표 |

13:30~14:00	제1발표 고려시대 용인 서리의 역사적 위상과 백자 생산 배경	발표: 홍영의(국민대학교) 토론: 문경호(공주대학교)
14:00~14:30	제2발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발표: 장종빈(서경문화유산연구원) 토론: 김경중(경기도자박물관)
14:30~14:40	휴식	
14:40~15:10	제3발표 용인 서리 요장의 유적 구성과 경관 복원에 대한 이해	발표: 이종민(충북대학교) 토론: 장기훈(한국도자재단)
15:10~15:40	제4발표 용인서리요지 출토 유물로 본 도자사의 재검토	발표: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토론: 조은정(고려청자박물관)
15:40~16:10	제5발표 고려시대 용인 서리 요지 출토 길례용 제기의 조형적 특징과 성격	발표: 김효진(국립한글박물관) 토론: 김태은(국가유산청)
16:10~16:30	장내 정리 및 휴식	
16:30~18:00	종합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좌장: 이희관(전 호림박물관)
18:00	폐회	

목 차

- 고려시대 용인 서리의 역사적 위상과 백자 생산 배경 7
발표: **홍영의**(국민대학교)
토론: **문경호**(공주대학교)
-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39
발표: **장종빈**(서경문화유산연구원)
토론: **김경중**(경기도자박물관)
- 용인 서리 요장의 유적 구성과 경관 복원에 대한 이해 63
발표: **이종민**(충북대학교)
토론: **장기훈**(한국도자재단)
- 용인서리요지 출토 유물로 본 도자사의 재검토 89
발표: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토론: **조은정**(고려청자박물관)
- 고려시대 용인 서리 요지 출토 길례용 제기의 조형적 특징과 성격 103
발표: **김효진**(국립한글박물관)
토론: **김태은**(국가유산청)

고려시대 용인 서리의 역사적 위상과 백자 생산 배경

홍영의 | 국민대학교

I 목차

- I. 머리말
- II. 용인의 역사와 고고학적 위상
- III. 용인 서리의 고려 백자 생산 배경
- IV. 맺음말

I. 머리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33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1930년대 일본인 도자연구가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가 발견하였으며,¹⁾ 1960년대 정양모(鄭良謨)가²⁾ 고려시대 초기의 요지(窯址)임을 밝히면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호암미술관이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³⁾ 진행하여 우리나라 자기(磁器)의 발생과 초기의 자기 제작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사실을 밝혔으며, 고고학 및 도자사에 중요성을 인정받아 1989년 1월 사적(329호)으로 지정되었다.

용인 서리 유적은 초기청자를 생산하는 요장으로 시작하여 초기백자를 제작하는 요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물자료를 통하여 초기 백자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용인 서리 유적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벽돌가마

1) 아사카와 노리타카는 일본의 조각가로 동생인 아사카와 다쿠미(1891~1931)와 함께 조선의 도자기를 연구한 사람이었다. 1913년 조선에 들어와 처음에 ‘청자’에 매료되었다가, 야나기 무네키요시를 알게 된 후 본격적으로 조선의 도자기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1924년 야나기 무네키요시와 자신의 동생인 아사카와 다쿠미와 함께 서울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설립하는 등 조선 미술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특히 도자기에 매료된 그는 한반도 700여 곳의 가마터를 조사하는 등 “조선 도자의 신(朝鮮陶磁之神樣)”이라고 불렸다. 아마도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아사카와 노리타카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鄭良謨, 1991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86~187쪽.

3) 호암미술관,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I.

[博築窯]이며 9세기 중반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청자와 백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층위가 명확한 폐기물 퇴적도 조사되었기 때문에 고려자기의 발생 및 발전과정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카미 츠키오[三上次男]가 고려도자의 기원을 검토하면서, 서리요지에서 출토된 기물과 요도구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초기백자가 초기청자와 동일한 시기에 출현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이후,⁴⁾ 그 동안 초기 청자의 발생(출현) 시기 뿐만 아니라, 요지의 운영 주체가 국가나 왕실 또는 소체제(所體制)로 운영되는 관요(官窯)나 지방세력이나 사찰 등 지역의 토착세력이 운영하는 사요(私窯)일 것이라는 점, 또한 청자의 일부를 공납(貢納)의 명목으로 국가에 바치거나[常貢],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요구한 특정한 용도의 청자를 제작하여 납부[別貢]했을 것 등에서 연구자들간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려 초기청자 요지의 운영체계는 가마와 폐기장 평탄부에 조성된 기와건물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요지의 운영을 감조(監造)하는 시설이며, 고려 조정의 결정 사항을 아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었던 위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⁵⁾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용인 서리 백자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행 연구의 검토와 함께 유적이 입지할 수 있었던 배경과 조건을 찾고자 하는 시론적인 목적에 있다. 이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용인의 역사, 고고학적 조건과 함께 고려 백자 요지가 ‘왜 용인 서리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용인 서리의 고려 백자 생산의 배경을 기존의 청자 생산 운영 방식 연구와 함께 비교 검토하면서, 용인의 중앙과의 관계, 소수공업체제와의 유기적 관계, 생산의 입지적 조건 등을 규명하여 용인 서리의 고려 백자 요지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II. 용인의 역사와 고고학적 위상

용인지역은 한강 및 서해안과 접하고 있으며, 소규모 하천들이 발달해 있고, 하천을 따라 층적평야 및 침식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4) 三上次男, 1989 『日本朝鮮陶磁史研究』 三上次男著作集 5, 中央公論美術出版, 268~269쪽.

5) 권혁주, 2023 「고려 초기청자 요지의 운영체계와 성격 -전축요계 청자 요지를 중심으로-」 『북악사론』 17, 36쪽 참조.

갖추고 있다. 또한 육로 및 수상 교통이 발달하여 한반도 중서부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한강에 인접하여,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쟁패지가 되었고, 이후에도 육로가 발달하면서 교통의 요지로써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의 용인시는 조선시대 용인현과 양지현이 포함된 영역이다. 현재 용인시의 중심지는 조선시대 용인과 양지현이 경계 지대에 해당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용인의 중심지는 현재의 구성 일대였다. 최근 구성 일대 개발과정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용인현의 중심지와 관련된 마을(주거지), 고분, 도로 등 다양한 유적이 조사되었다. 또한 할미산성, 석성산성 등 용인 일대의 지배와 방어에 관련된 관방 유적도 있다. 삼국시대부터 구성 일대가 용인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서울에서 하삼도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삼국의 남진과 북진의 통로로서 일개 거점 지역이었음은 물론이고 경기만의 연안해로의 장악과 활용과 관련해서도 전략적인 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고대부터 주요 교통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고려시대는 광주도(廣州道) 소속의 15개 역(驛) 중 하나인 김령역(金領驛)이 존재한다.⁷⁾ 즉, “용구(龍駒) 이북 지역의 여러 역(驛)들은 3도(道)의 요충지”로⁸⁾ 약로망의 중심지였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서북쪽인 금교(金郊, 지금의 金川 지역)에서 동선(洞仙, 지금의 황해도 鳳山 지역)에 이르는 사이와 동남쪽인 청교(靑郊)에서 용구(龍駒)에 이르는 사이는 경읍(京邑)에 매우 가까워 사방의 교통이 폭주하는 까닭에 영송하고 수운하는 노고가 다른 역(驛)보다 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 토지를 더 주게 된 것은 우역(郵驛)의 명령 전달을 중히 여긴 때문이다.”라고⁹⁾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용인간의 역로가 남방으로 향하는 직도로써 중시되었다. 예컨대, “용인은 작은 고을이다. 왕도와 인접한 까닭으로 밤낮으로 모여드는 대소 빈객이 여기를 경유하지 않는 적이 없는 데, 이는 대개 남북으로 통하는 길목인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였다.¹⁰⁾

6) 서영일, 2016 『龍仁의 古·中世 交通路와 駒城 地域』 『문화사학』 46.

7) 『고려사』 권82, 지36 병2 站驛 廣州道掌十五

8)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賑恤 恩免之制 (공민왕) 十二年五月 下教 “一, 自龍駒以北諸驛 三道之衝 供費尤多 其柴炭貢 與免三年”

9) 『三峯集』 권8, 朝鮮經國典 政典 驛傳

1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경기 용인현 樓亭 龍仁新亭記 및 『東文選』 권82 記 龍仁新亭記

때문에 때문에 석성산성·처인성·보개산성 등의 관방유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용인지역의 고고학적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도요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1988년 국립중앙박물관에¹¹⁾ 의한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된 이후, 1996년과 2007년에 서울대학교박물관과 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한 광역 지표조사를¹²⁾ 통해 용인지역에 총 577개의 유적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수지지구·죽전지구·동백지구·구성지구·서천지구 등 활발한 택지지구 조성과 이에 따른 도로정비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많은 발굴조사를 통하여 여러 시대와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용인지역은 대체로 한강과 관련된 문화권으로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에 국가를 건립하기 이전, 이 지역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고고학적 배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용인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강유역의 지배 세력과 함께 해왔다. 백제 건국 이전에 용인은 마한지역에 속하였고,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목지국(目支國)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한 54개국 가운데 백제국(伯濟國)은 광주와 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원 전후에 백제(伯濟)가 중심 세력으로 발전하면서 마한의 국가들을 통합하여 마침내 백제(百濟)를 건국하게 된다. 용인지역은 이러한 백제의 성장 과정과 함께 한강의 지류인 경안천이나 탄천을 이용하여 백제 세력이 유입되어 마한의 세력에서 벗어나 백제의 영역으로 흡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용인의 시대별 영역과 지명 변화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① “거서현(巨黍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구성현(駒城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용구현(龍駒縣)이다.”¹³⁾

② “용구현(龍駒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구성현(駒城縣) 【멸오(滅烏)라고도 한다] 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이름을 거서(巨黍)로 고치고, 한주(漢州)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현종(顯宗) 9년(1018)에 그대로 <광주목에> 소속시켰다. 명종(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뒤에 승격하여 현령관(縣令官)

11) 국립중앙박물관, 1988, 『용인군 지표조사』, 『신암리 I』.

1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문화유적분포지도-용인시』 : 서울대학교박물관, 1996 『용인시의 문화유적』.

13)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新羅 漢州

이 되었다.”¹⁴⁾

③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수주의 속읍인 처인부곡(處仁部曲)의 작은 성에서는 바야흐로 전투를 할 때 괴수 살리타이[敵禮塔]를 활로 쏘아 죽이고, 사로 잡은 것도 또한 많았다. 남은 무리는 궤멸하여 흩어졌다. 이로부터 기세를 상실하여 안정함을 얻지 못하여 이미 군시를 돌이켜 같다.”¹⁵⁾

④ “용구현(龍駒縣)은 …(중략)… 처인현(處仁縣)은 본래 수원(水原)에 소속시켜 부곡(部曲)을 삼았었는데, 현종 무오에 이미 이 이름이 있었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정축(6년)에 비로소 현령을 두었고, 태종(太宗) 계사(13년)에 2현(縣)을 합하여 용인(龍仁)이라 하였다.”¹⁶⁾

⑤ “경기 도관찰사가 도내의 병합(併合)한 현읍(縣邑)의 사의(事宜)를 보고하였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용인현(龍仁縣)은 처인(處仁)의 인리(人吏)와 노비(奴婢)를 용구(龍駒)에 옮겨 붙이고, …(중략)… 위의 조건의 현읍(縣邑)을 옮겨 배속할 곳을 청컨대, 의정(議政)하여 주소서."라고 호조에서 과천을 금천에 옮기고 양천을 김포에 옮기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⁷⁾

⑥ “본래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 부곡(陽良村部曲)인데, 본조(本朝) 공정왕(恭靖王) 원년 기묘에 양지현으로 고쳐서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고,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쳐서, 현치(縣治)를 광주(廣州)의 임내(任內) 추계향(秋溪鄉)으로 옮기었는데, 땅이 좁으므로, 광주의 임내(任內)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의 4부곡(部曲)을 떼어서 이에 붙였다.”¹⁸⁾

위 기록 내용에 따르면, 용인의 영역과 지명 변화는 고구려 때 구성(駒城, 滅烏)으로부터

14)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楊廣道 廣州牧 龍駒縣

15)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9년 12월 答東眞書曰

16)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 도호부 용인현

17)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8일(무인)

18)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 양지현

출발한다. 백제 때의 지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자료의 부족이거나, 멸오(滅烏)가 백제 때 지명일 수 있다.¹⁹⁾ 이후 757년(경덕왕 16) 신라 경덕왕의 한화정책에 따라 거서(巨黍)가 되었고, 고려 초(태조 23년, 940)에 전국의 군·현을 개편하고 주·부·군·현의 명칭을 고칠 때 용구(龍駒)로 바뀌었다.

처인현은 1018년(현종 9)부터 수주(水州) 소속의 처인부곡이었다.²⁰⁾ 1232년(고종 19)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처인성 전투에서 승장 김윤후(金允侯)가 적장 살리타이[撒禮塔]를 사살하여 적 3만 대군을 크게 물리친 공으로 부곡에서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어 처인현(處仁縣)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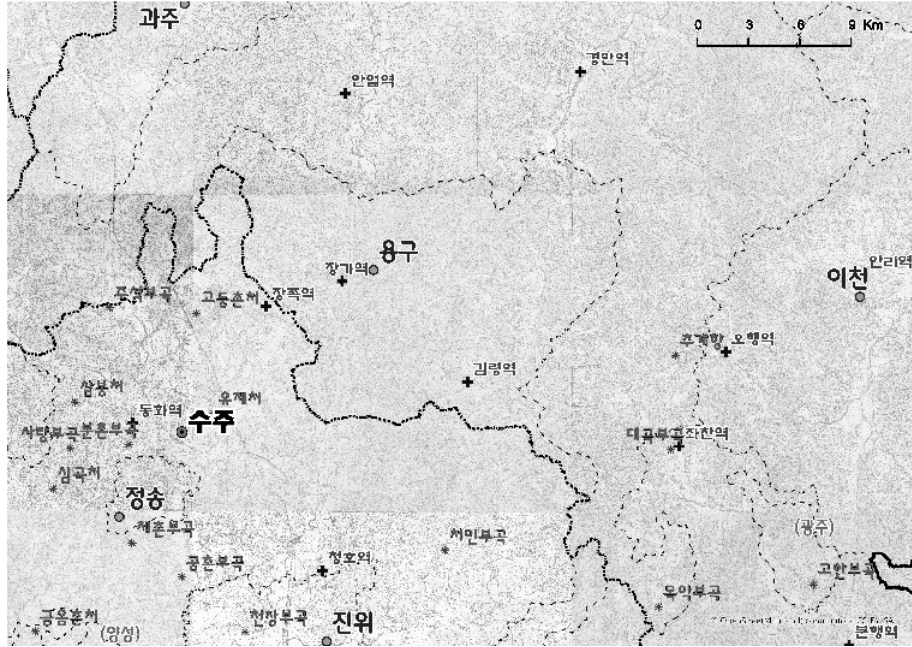
용인이라는 지명은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쳐 1413년(태종 13)에 비로소 등장한다.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하여 ‘용인현’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용인시의 영역이 형성된 것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용인군과 양지군, 죽산군의 일부가 통합됨으로써 그 모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지역 내외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 오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삼국시대 때 용인 지역에 관한 문헌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역사의 실상을 알기에는 매우 어렵다. 다만 용인지역은 마한의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과 모수국(牟水國) 사이로 비정되고 있으며, 온조왕의 위례성(慰禮城) 도읍설에 따라 처음에는 백제국(伯濟國)의 속방(屬坊)으로 있다가 뒤에 백제(百濟)의 영토가 되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용인지역을 점유한 국가는 백제였다. 백제는 3세기부터 일찍이 국가체제가 정비되었으며, 4세기 근초고왕 시기에는 도읍지였던 한성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마한의 대부분을 복속시키고, 북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위협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용인은 백제의 도성이 위치했던 서울 송파 일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점으로 미루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미 백제의 영역 내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 ‘멸오’의 중세 발음은 ‘mjiätuo’로 구(駒)의 훈을 새긴 ‘ㅁ | 야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도수희, 2005, 『백제어 어휘 연구』, 제이앤씨, 502쪽). 또한 우리말의 ‘말아’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며, 고구려가 편입한 새로운 영토를 구성으로 한 것도 ‘말아’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말아’ 또는 ‘말’은 마루와 동의어로서 ‘크다’와 ‘높다’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풀이할 때, 구성(駒城)은 큰[大] 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20)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시대 수주에는 정송현의 전신인 송산(松山)부곡을 비롯하여 20여 향·부곡·장·치가 나타난다. 부곡은 포내미·육내미·쟁홀·제촌·정구·사랑·공촌·양량·감미탄·마잔·신곡·처인 등이다. 향은 주석·분촌·공이 등이 있었고, 장과 치는 오타장·종덕장·송장·사정처·금음촌처·삼봉처·고등촌처·심곡처·유제처 등이 있었다.



〈지도 1〉 1232년 이전의 용구와 처인부곡 영역(정요근 제공)



〈지도 2〉 1413년~1914년 이전의 용인의 영역 범위(정요근 제공)

이처럼 용인지역의 원삼국~삼국시대는 마한의 세력에서 벗어나 백제의 성장과 함께 백제의 영역으로 편제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와 관련한 원삼국시대(마한) 유적과 백제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용인지역이 포함되는 한강유역은 삼국의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 되었으며,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세력 교체 과정과 함께하며 정치적 성격이 변화되었다.

용인 일대는 5세기에 접어들어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면서 고구려에 속하게 된다. 475년 백제의 한성이 함락된 이후 한강 유역은 약 1세기 동안 고구려의 영역이 된다. 용인지역이 기록상에 나타난 것은 장수왕 63년(475)이며, 이 해에 고구려 장수왕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정(南征)하여 백제의 왕도인 한성을 점령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새로운 점령지인 용인지역을 군현제도에 따라 한주(漢州) 소속의²¹⁾ 구성현(駒城縣)으로 이름하고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킴으로 비롯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용인지역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구려에서 설치한 구성현을 일명 '멸오현(滅烏縣)'이라 했던 별칭이 나타난다.

백제는 6세기 성왕 대에 이르러 용인지역을 비롯한 한강 하류 일대를 일시적으로 수복하였으나 신라의 진흥왕이 나제동맹을 파기하고 한강 유역을 공취하게 되자, 용인지역은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 553년(진흥왕 14)부터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신주(新州)에 소속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지금의 경기도 광주를 중심으로 설치된 한산주(漢山州; 뒤에 한주로 개칭)에 포함되었으며, 757년(경덕왕 16) 경덕왕의 한화정책에 따라 거서현(巨黍縣)으로 개칭되었다.

918년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이후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940년(태조 23)에 전국의 주부군현 명칭이 대대적으로 고쳐질 때, 용인지역은 구성이라는 명칭에 '용(龍)'자를 붙여서 용구현(龍駒縣)이 되었다. 용구현은 983년(성종 2) 전국에 12목을 설치하는 행정구역 재편을 통해 광주목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의 군현의 행정제도가 5도 양계로 개편되면서 현재 경기도 남부지역과 충청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던 양광도(陽廣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기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용인지역은 자주 외적의 침입로로 이용되기도 하였

21) 고구려 시기에는 국원성(國原城)의 영현(領縣)으로 나오지만, 『삼국사기』 권35, 잡지4 지리2 한주조에는 한주(漢州) 치소(治所)의 직할현으로 나와 영속 관계에 차이가 있다. 이에 구성이 본래 국원성의 영현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도 한다(김태식, 1997,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의 사료적 검토, 『역사학보』 154)

다. 1232년(고종 19)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처인성(남사면 마곡리)에서 김윤후(金允侯)가 적장 살리타이[撒禮塔]를 사살하여 몽골군을 퇴각시킨 일이나,²²⁾ 1384년(우왕 4) 왜구가 수원과 용인에까지 침입하였으나, 호장(戶長) 이부(李富)가 10여 명을 사로잡은 일은²³⁾ 용인의 군사 교통상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다.

용인지역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경기좌도(京畿左道)에 속하였다가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가 통합되면서 경기도에 편입되었고, 1413년(태종 13)에 용구현과 처인현은 합쳐져 ‘용(龍)’자와 ‘인(仁)’자를 써서 ‘용인현(龍仁縣)’이라 하고 수원도호부에 소속되었다.

한편, 충청도에 속해 있었던 양지현(陽智縣)이 이때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고려 때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부곡(陽良村部曲)을 1400년(정종 2)에 현으로 격상시켜 감무(監務)를 두었고, 1413년 광주 소속의 추계향(秋溪鄉)으로 치소를 옮겨 현감을 두고, 광주 소속의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의 4개의 부곡(部曲)을 떼어 주었다.

이후 용인지역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에 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 1541~1607)과 충청도관찰사 윤선각(尹先覺, 1543~1611), 경상도관찰사 김수(金睟, 1537~1615) 등이 6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상 도중 용인현 남쪽 10리 지점에 당도하여 왜군과 전투를 벌여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기도 하였다.²⁴⁾ 1628년(인조 6)년에 유효립(柳孝立)의 역모에 가담한 조헌립(趙憲立)이 고향이라 폐지하려다 역참이 있는 곳이라 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²⁵⁾

1632년(인조 13) 병자호란 때에는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 1583~1661)가 남한산성에서 농성 중인 인조의 근왕병을 모집하여 북상하다가 용인의 험천(險川)에서 청군과 조우하여 전투를 벌여 분전하였으나 패퇴하였다.²⁶⁾

용인현은 1895년(고종 32) 4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군, 양지군으로 명칭이 바뀌며 전국 23부제의 시행으로 충주부에 소속되었다가 경기도의 사등군(四等郡)으로 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13도제가 시행되었다. 1914년 4월 1일 용인군, 양지군, 죽산군 일부를 통폐합하여 용인군으로 개편되었다. 1996년에는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외사면이 백암면

22)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9년 12월 答東真書曰

23)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4년 5월

24)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28일(병진)

25)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2월 13일(을사)

26) 『인조실록』 권33, 인조 14년 12월 27일(정유) 및 권34, 인조 15년 1월 15일(을묘)

으로,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개칭되었다. 수지면은 읍으로 승격되고, 중앙동·역삼동·유림동·동부동이 신설되었다. 2005년 10월 31일 수지출장소가 수지구, 기흥읍과 구성읍은 기흥구로, 용인시 동부지역은 처인구로 각각 승격되었다. 2022년 1월 용인특례시로 승격되었다.

이처럼, 용인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현재 서울지역에서 남부지방으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특히 구성 일대가 용인지역의 중심지로 교통의 결절지였다. 일제 강점기에 수원에서 이천으로 가는 신작로가 생기고 이것이 구성 지역을 빗겨 가면서 용인의 중심지는 고려와 조선시대 김령역(金領驛)과 김령원(金領院)이 있던 현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하삼도로 내려가는 대로가 구성을 지나갔지만 역시 일제강점기에 서울-목포 사이의 1번 국도가 시흥-수원-오산으로 연결되면서 남북교통로의 요지로서의 입지도 약화되었다. 구성과 그 주변 지역이 다시 교통의 중심지로 등장하였던 것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부터였다.

용인의 지배세력과 유력 가문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토성(土姓)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용구의 토성(土姓)이 5이니, 진(秦)·이(李)·송(宋)·용(龍)·엄(嚴)이요, 처인의 토성이 6이니, 이(李)·서(徐)·지(池)·섭(葉)·김(金)·강(康)이다.”²⁷⁾

라고 하였으나, 고려 중기 이후 대표적인 가문은 용인 이씨와 용인 진씨이다. 나말여초에는 각지에서 지방세력들이 활거하던 시기로 용인지역은 용인 이씨의 시조인 이길권(李吉卷, 904~1008)이 대표적인 세력이었다. 고려왕조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길권은 태조의 여동생을 부인으로 맞았고,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삼중광태사(三重匡太師)에 봉해졌다.²⁸⁾ 이후로 용인 이씨는 용인의 대표적인 성씨가 되었으며, 조선시대까지도 명문 거족으로 명성을 떨쳤다.

최씨정권 하에서 참지정사, 중서평장사, 문하시랑평장사 등을 역임하고, 원종의 묘정에

27)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 도호부 용인현

28) 『龍仁李氏族譜』(1869년, K2-1772, 장서각 소장) 및 『蘇齋集』(盧守愼) 권10, 碑碣 有明朝鮮國通政大夫 守忠淸道觀察使李公墓碣銘 并序 “公姓李 諱湛 字仲久 號靜存齋 又號後峯 龍仁縣人 其上世 有諱吉卷 佐麗祖位太師 策壁上功臣 孫靖曾孫懷 皆爲僕射 簪組不絕 傳九世 日光時 判典儀寺事 忤巨璫流外 歷駒城府院君中仁 本朝留後士涓 都觀察使伯持 至府使諱守綱 葬縣西三峯山” : 『陶谷集』(李宜顯) 권4, 詩 述懷 “龍仁之李派流洪 壁上餘麻啓後蒙 十四承宗連櫛屨 半千綿業訖神崧 熙朝茂族公評在 篤孝真淸慶報豐 看取瑤珉銘德烈 淋漓大筆仰尤翁 我李系出龍仁 始祖 官太師 高麗壁上功臣 訖麗朝五百年 傳世十四 冠冕不絕 神崧指麗所都 入我朝 尤以淸白孝友名 尤翁作三世墓文”

배향된 난 이세재(李世材, 생몰년 미상)와²⁹⁾ 고려말에 출세한 이사위(李士渭, 1342~?)가 대표적이다.

이사위는 1360년(공민 9) 10월 과거에 합격하고, 1390년(공양 2) 정월 공양왕이 처음으로 경연(經筵)을 열었을 때 참찬관(參贊官)이 되었으며, 12월 밀직부사를 거쳐 이듬해 12월 서해도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를 지냈다.³⁰⁾

이사위의 아들인 이백지(李伯持, 1361~1419)은 과거에 합격하고, 강원도와 전라도 관찰사에 이르렀다.³¹⁾ 이백지의 증손인 이길보(李吉甫, ?~1483)는 1457년(세조 3) 별시(別試)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464년(세조 10) 7월 천문·풍수·율려(律呂)·음양·의학·사학·시학 등 7학문을 설치하고 각 문에 나이 어린 문신을 배정하였는데, 이때 의학을 담당한 의관 중의 한 사람이다. 같은 해 8월 양심당(養心堂)에서 왕에게 7학문을 강의할 때, 의학의 담당자로서 『소문(素問)』을 강의한 의관이었다. 1466년(세조 12)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관직은 경기도관찰사에 이르렀다.³²⁾ 그의 아우 이우보(李祐甫)도 또한 과거에 올라 벼슬이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이르렀다.³³⁾ 이외에도 이색(李穡)과 함께 성균관 생도를 지내고,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역임한 이모지(李慕之)가 있다.³⁴⁾

용인 진씨는 『명종실록』을 찬진하고, 평장사를 지낸 최보순(崔甫淳, 1162~1229)의 처부(妻父)로, 함문지후(閤門祗候)를 지낸 진중기(秦仲基)가 대표적이다. 최보순의 처는 용구현부인(龍駒縣夫人)에 봉해졌다.³⁵⁾

또한 지도첨의상의(知都僉議商議)를 거쳐 1354년(공민왕 3) 첨의평리(僉議評理)를 지낸 처인군(處仁君) 이진(李珍, ?~?)³⁶⁾ 역시 처인 이씨이다. 한편, 양성 이씨의 대표적 인물은 이춘부(李春富, ?~1371)이다.³⁷⁾ 그의 세계는 이정(李挺, 陽成君) - 나해(那海, 僉議平理) - 춘부(시중)·원부(元富, 上將軍)·광부(光富, 承宣)으로 이어진다. 이 가문은 원을 배경

29) 『고려사』 권25, 세기25 원종 4년 12월 병인 및 권60 지14 禮2 吉禮大祀 太廟 禘祫功臣配享於庭 元宗室

30) 『고려사』 권45, 세기45 공양왕 2년 1월 병자, 12월 병자, 세기46 공양왕 3년 12월 병자

31)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일(병진),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1월 14일(갑인), 세종 1년 12월 19일(기축) 附記

32)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8월 25일(병오), 『성종실록』 권142, 성종 13년 6월 2일(기해), 권155, 성종 14년 6월 6일(정묘) 附記

33) 『성종실록』 권135, 성종 12년 11월 17일(정해)

34) 『牧隱文集』 권6, 記 淸州牧濟用財記 및 『陶隱集』 권4, 文 送李慕之赴淸州牧詩序

35) 『고려사』 권99, 열전12 諸臣 崔甫淳 및 「崔甫淳墓誌銘」

36) 『고려사』 권38, 세기38 공민왕 3년 2월 기유 및 11월 신유

37) 『고려사』 권125, 열전38 姦臣 李春富 및 권132, 열전45 叛逆 辛晫

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이춘부는 신돈(辛旽)과 함께 권세를 농단하다가 주살되었으나, 다른 일족은 조선시대에도 사환(仕宦)을 계속하였다.³⁸⁾

남곡(南谷, 양지면 남곡리)에는 이곡(李穀)의 문인이며, 이색(李穡)의 벗으로 함께 1241년(충혜왕 후2) 과거에 급제한 지전법사(知典法事)를 지낸 이석지(李釋之, 본관 永川)가³⁹⁾ 별서(別墅)를 두고, 관직을 버리고 용인의 남곡에 은거한 곳이다. 이 때문에 호를 ‘남곡’이라 하였다. 조선초기의 이종겸(李宗儉)·이종겸(李宗謙) 모두 석지의 손자이다. 두 사람이 일찍부터 벼슬에서 물러나, 남곡에 살면서 효우당(孝友堂)을 짓고, 산수 풍경을 즐겼다고 한다.⁴⁰⁾ 용인의 대표적인 묘소는 정몽주(鄭夢周)·남은(南閔)·심온(沈溫, 수원시 이의동에 편입)·이석형(李石亨)의 묘가 있다.⁴¹⁾

고려시대 유적은 생산유적과 생활유적, 관방유적, 분묘유적, 불교유적이 있다. 생산유적으로는 이동면 서리의 고려 백자요지(사적)가⁴²⁾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벽돌가마로 9세기 중반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청자와 백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고려자기의 발생 및 발전과정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⁴³⁾ 역시 초기 백자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유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리 도장골·사기막골 유적과⁴⁴⁾ 죽전동의 청자가마⁴⁵⁾·죽전동 도기요지⁴⁶⁾·중리 도기요지⁴⁷⁾·어비리 유적⁴⁸⁾·고안리 도기가마⁴⁹⁾·대장금파크 도기가마⁵⁰⁾ 등이 있다. 고매동 유적에서는 고려시대 중기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대규모의 요업장이 확인되는 등 많은 생산유적이 조사되어 고려 시대에 다수의 생산 공방이 용인지역 내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⁵¹⁾

38) 이수진, 1984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273~274쪽 참조.

39) 『고려사』 권126, 열전39 姦臣 李仁任 및 『牧隱詩藁』 권30, 詩「同年李判書釋之 將歸龍駒別墅 來告別 且徵贈言 走筆塞責」

4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京畿 용인현 寓居 : 『牧隱文藁』 권1, 記 南谷記 : 『四佳集』 권1, 孝友亭記 및 권6, 序 雙溪李先生居官訓誡序

4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京畿 용인현 塚墓

42) 호암미술관, 2003,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 발굴조사보고서 II』.

4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용인 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 및 경기문화재연구원, 2016, 『龍仁 西里 上盤 高麗白磁窯址 -1~5차 발굴조사 보고-』.

44) 명지대학교박물관, 2014, 『용인 서리 도장골·사기막골 유적』.

4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용인 보정동 청자요지』.

46)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기흥 구갈(3) 택지 개발지구 내 용인 구갈리유적』.

4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용인 동백리·중리 유적』.

48)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13, 『용인 어비리 유적』.

49) 한백문화재연구원, 2019, 『용인 고안리 산8번지 유적』.

50) 한백문화재연구원, 2019, 『용인 용천리 산67-11번지 유적』.

51) 중부고고학연구소, 2018, 『용인 고매동 유적』.

생활유적으로는 마북리 유적⁵²⁾·죽전동 완장이골⁵³⁾·농서동 유적⁵⁴⁾·덕성리 유적⁵⁵⁾·남사(아곡)유적⁵⁶⁾·갈담리 307-13번지 유적⁵⁷⁾ 등에서 건물지와 관련 시설들이 확인되었으며, 마북동 274번지 유적⁵⁸⁾·신원리 유적⁵⁹⁾·맹리 509-1번지 유적⁶⁰⁾ 등과 전대리 445-5번지 유적에서⁶¹⁾ 고려시대 수혈주거지 및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생활유적들은 고려시대 용구현의 읍치가 있었던 현재의 언남동·마북동 등에 유적이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관방유적의 경우, 용인지역이 고려의 22역도 중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끼딴에 교통로를 감시 차원에서 다수의 산성이 중요 역할을 맡았다. 현재 용인지역을 통과한 역도로는 광주도(廣州道)에 소속된 15개 속역 가운데 하나인 하남시의 덕풍역(德豐驛)을 중심으로 한양~광주~이천~음죽~충주로 이어지는 역로와 한양~양재~괴산~연풍 등으로 이어지는 역로가 이에 속하였다. 해당 유적들로는 석성산성·처인성·보개산성 등이 있다.⁶²⁾ 석성산은 봉수터와 관련한 건물지 조사 이후 석성산성 북벽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로 성벽 석렬과 성 내 측 석렬이 확인되었다.⁶³⁾

분묘유적으로는 원삼면 좌향리⁶⁴⁾·단국대 신축부지⁶⁵⁾·구성읍 마북리 정광지구⁶⁶⁾·마성리⁶⁷⁾·기흥구 상갈동⁶⁸⁾·영덕동 유적⁶⁹⁾·공세동⁷⁰⁾·중동⁷¹⁾·양지리 유적⁷²⁾·마북동 산1-30번

52)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용인 마북리』.

5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용인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완장이골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54) 한신대학교박물관, 2013, 『용인 농서동 고려유적』.

5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7,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56)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남사(아곡)유적』.

57)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용인 갈담리 유적』.

58) 한신대학교박물관, 2010, 『용인 마북동 중세취락』.

59)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신원리 유적』.

60)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8, 『용인 맹리 509-1번지 유적』.

61) 한양문화재연구원, 2019, 『용인 전대리 445-5번지 유적』.

6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처인성·노고성·보개산성』;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헤안문화재연구원, 2020, 『용인 처인성Ⅱ』; 한양문화재연구원, 2020, 『龍仁 石城山 烽燧』; 헤안문화재연구원, 2022, 『용인 석성산 봉수터 건물지 유적』.

63) 헤안문화유산연구원, 2025, 『용인 석성산성(북벽)』.

64) 명지대학교박물관, 1994, 『용인 좌향리 고려분묘군 발굴조사보고서』.

65) 단국대학교한국민속학연구소, 1997, 『용인 마북리 유적』.

66) 경기도박물관, 2001, 『용인 마북리 고려고분』.

67) 명지대학교박물관, 2008, 『용인 마성리 마가실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68) 명지대학교박물관, 2008, 『용인 마성리 마가실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69)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용인 영덕동 유적』.

70)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용인 공세동 고려고분』.

71)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1, 『용인 중동(동진원) 산4-3번지 유적』.

지73)·두창리 산150-1번지74)·제일리 유적75)·남사(아곡)유적76)·보정동 1036-2번지77) 등에서 석곽묘 및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고안리78) 산7-1번지유적 2구역에서는 어골문 암키와를 이용해 시상대를 조성한 유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불교유적으로는 서봉사지가 대표적이며,79) 마북리사지80)·문사사지·금수암지·고림동사지 등과 함께 마북동 391번지에서 ‘현화사(玄化寺)’銘의 기와편이 출토된 건물지 등이 있고 관련 유물로는 서봉사 현오국사탑비(보물 제9호)·마북리 석탑 및 마북리 석불입상·미평리 약사여래입상(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4호)·용인 공세리 오층석탑·문수사지 마애불 등이 있다.81)

Ⅲ. 용인 서리의 고려 백자 생산 배경

천인구 이동읍 북쪽에는 기흥구의 법화산과 성산 산계에서 이어진 부아산(404m)을 중심으로 면의 경계에 산지가 발달하여 동쪽으로 함박산(350m)과 무너미고개를 넘어 동부의 산지로 연결되고 있으며, 서북쪽 경계를 따라 함봉산(306m)과 달봉산이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부 경계의 산악지대는 원삼면 문수산에서 이어지는 산계에 접하고 있으며, 중동부 지역에도 산지가 발달하여 시궁산(515m)과 삼봉산(413m)이 솟아 있고, 이는 동남부 경계를 따라 묘봉(228m)으로 이어지고 있다.

72)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1, 『용인 양지리 유적』.

73)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용인 마북동 산1-30번지 유적』.

74) 서경문화재연구원, 2014, 『용인 두창리 산150-1번지 유적 -용인 두창리 산150-1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표본조사』.

7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용인 제일리 고분군』.

76)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남사(아곡) 유적』.

77) 서경문화재연구원, 2019, 『용인 보정동 1036-2번지 유적 -용인 보정동 1036-2번지 일원 단독주택 조성부지 내』.

78) 한백문화재연구원, 2021, 『용인 고안리 8번지 유적 -용인 고안리(산8번지 일원) 물류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2022, 『용인 고안리 산7-1번지 유적 -용인 고안리(산7-1번지 일원) 물류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79)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1999, 『용인의 옛 절터』; 수원대학교박물관, 2009, 『용인 서봉사지 사역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2, 『용인 서봉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용인 서봉사지』;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서봉사지Ⅱ』; 한백문화재연구원, 2019, 『용인 서봉사지Ⅲ』; 한백문화재연구원, 2023, 『용인 서봉사지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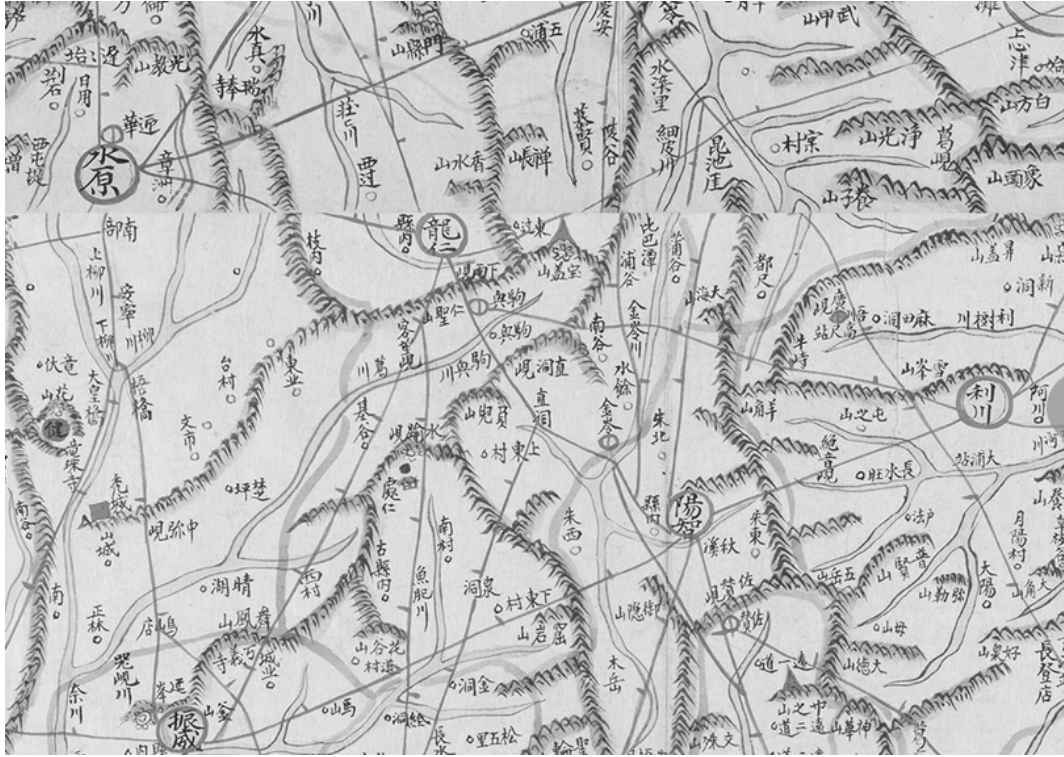
80) 한신대학교박물관, 2003, 『용인 마북리사지』.

8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이동읍은 진위천의 상류인 송전천이 발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악지형이 많은 편이다. 이동읍의 지형분포를 보면 처인구 전체에 비해 산악지가 50%를 차지하며, 농경지를 주로 형성하는 내륙 평탄면과 선상지와 곡간지 및 저구릉지나 구릉지는 처인구 전체에 비해 그 분포가 적다.



〈지도 3〉 1872년 지방지도(용인현, 규장각 소장)



〈지도 4〉 대동여지도(규장각 소장)

용인 서리의 백자요지를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또는 왕실이 운영 통제했다는 설, 관요(官窯, 貢納窯)라는 설, 소체제(所體制)로 운영되었다는 설, 호족 또는 사찰 등 지역의 토착세력이 운영한 사요(私窯, 別納窯)라는 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12세기 이후에는 국가에 공납하는 임무를 짊어지고 있던 특수한 지방 행정단위로 강진 대구소와 칠량소와 같이 소(所)와 같은 새로운 생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요지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⁸²⁾ 이러한 논리의 증거로 아래의 사료를 인용하고 있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 【옛 처인(處仁) 가마산골[窩山洞里]에 있는데, 하품(下品)이다】 , 도기소(陶器所)가 1이다 【옛 처인 달바위[甘岩里]에 있으니, 하품이다】 .”⁸³⁾

82) 이희관, 2005 「고려시대의 자기소와 그 전개」 『사학연구』 77 ; 이정신, 2013 「청자의 변천과정과 자기소」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 해안.

83)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 용인현

위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처인부곡(현)에는 자기소(磁器所)와 도기소(陶器所)가 각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도자기(陶瓷器)라고 하면 자기와 도기를 총칭해서 사용한 말이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 내는 종류로는 토(土)·도(陶)·자(磁, 瓷)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각각 구어내는 방법과 원료인 재료가 다르며, 굽는 방법 역시 각각 그 특성을 달리한다.⁸⁴⁾

도자기가 고려초에 도기에서 백자(청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태토(胎土)가 질 좋은 흙[高嶺土]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도자사적 측면에서 보면, 태토, 유약, 소성방법(燒成方法)에 이르기까지 즉, 소재와 기술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므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고려시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가 존재하였다. 소에서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어떠한 공물을 납부하였는지에 따라 소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다. 그들이 조달하는 물품의 종류나 생산방식에 따라 때로는 전업적이며 기술에 능한 수공업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 살펴보건대 신라가 주군(州郡)을 세울 때 그 전정(田丁)과 호구(戶口)가 현(縣)으로 삼기에 부족한 것은 혹 향을 두고 혹은 부곡을 두어 소재한 읍(邑)에 소속시켰다. 고려 때 또 소(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金所)·은소(銀所)·동소(銅所)·철소(鐵所)·사소(絲所)·주소(紬所)·지소(紙所)·와소(瓦所)·탄소(炭所)·염소(鹽所)·묵소(墨所)·곽소(藿所)·자기소(瓷器所)·어량소(魚梁所)·강소(薑所)의 구별이 있었으며 각각 그 물건을 바쳤다. …(중략)… 위의 여러 소에는 모두 토성이민(土姓吏民)이 있다.”⁸⁵⁾

그러나 소가 언제 발생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고려초부터 성립되었는지는 불분명

84)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전국의 瓷器 제작처는 주로 沙器所로 언급되었지만, 동일한 가마들이 『世宗實錄』 지리지에는 磁器所로 기록되었다. 현재 조선시대 문헌기록들이 등장하는 磁器와 沙器의 명백한 구분기준을 파악할 수는 없다.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承政院日記』 등 왕실의 기본사료에는 司饔院에서 번조하는 모든 도자기를 거의 전부 ‘沙器’라고 하였으며 ‘磁器’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慶尙道地理志』에는 磁器·陶器·沙器를 구분하였으며, 『世宗實錄』 지리지에도 磁器所·陶器所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였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자기·도기·사기를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匠人의 명칭은 『經國大典』 등 법전에는 沙器匠과 甕器匠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러한 사서에는 비교적 전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 현재 우리는 자기·사기·도기·옹기의 네 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는가에 하는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홍영의, 「고려시대 장인(匠人)의 지위와 사기장 심룡(沈龍)」 『중세고고학』 16, 2024, 29쪽 참조).

8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7, 驪州牧 登神莊條, “今按 新羅建置州郡時 其田丁戶口 未堪爲縣者 或置鄉 或置部曲 屬於所在之邑 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 銀所 銅所 鐵所 絲所 紬所 紙所 瓦所 炭所 鹽所 墨所 藿所 器所 魚梁所 薑所之別 而各供其物 …(중략)… 右諸所皆土姓吏民焉”

하지만, 이미 11세기에 각지에 소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高麗式目形止案北界軍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목형지안에는 1,200여명의 소정(所丁)이 서북면 각지의 주진군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⁸⁶⁾ 형지안이 작성된 시기는 대체로 숙종대 이전으로 파악된다.⁸⁷⁾ 그리고 이 시기에 북계(北界)처럼 특수한 지역에 소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당시에 북계를 포함하는 고려의 각지에 소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⁸⁸⁾

소가 군현 내의 촌락인지의 여부는 소의 수취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적어도 12세기 중반까지 소는 군현 내에 두어져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소에서 생산하는 공물액은 특정 물품과 관련된 중앙관청에서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럴 경우 해당 관청은 호부(戶部)와 협의하여 조율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소는 군현과 같은 행정단위 내에 존재한 곳으로, 관할 군현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그들의 관할 행정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수취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때로는 중앙의 해당 관청에 직납하거나 혹은 필요한 지역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을 것이다.⁸⁹⁾

한편, 처인부곡 소속의 자기소인 요산동리(窯山洞里)라는 지명은 말 그대로 산같이 큰 가마가 있는 곳을 뜻한다. 따라서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가마퇴적이 존재하는 서리 일대를 세종 무렵에는 ‘가마산골[窯山洞里]’이라 불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리지」에 나오는 자기소 139개소, 도기소 185개소, 총 324개소의 지명 가운데 가마·요(窯)·자가 들어간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가마산골[窯山洞里]’으로 추정되는 용인시 이동읍 서리는 조선시대 상동촌면(上東村面), 하동촌면(下東村面)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1914년 2개 면을 합쳐서 이동면(二東面)이 되었다. 시의 남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처인구 호동과 원삼면 학일리, 서쪽은 화성시 동탄면 신리와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창리와 접하고 있다. 남쪽은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남사면 방아리와 북쪽은 기흥구 지곡동과 처인구 삼가동과 접한다.

본래 서리는 용인현의 상동촌면의 서동(西洞)과 덕의동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

86)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10일(庚辰) 藝文館提學 李先齊上書.

87) 숙종~예종대에 여진 정벌을 위해 편성했던 神騎·步班이 식목형지안에 없고, 『고려사』 권83, 병3 주현군에는 나오는 것으로 보아, 형지안의 작성 연대는 여진 정벌이 시행된 숙종 9년(1104) 이전으로 추정된다(末松保和, 1962 「高麗式目形止案について」 『朝鮮學報』 25, 13쪽.

88) 北村秀人, 1969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50, 52쪽.

89) 김난옥, 2011 「고려시대 所의 편제방식과 所民의 사회적 지위」 『역사교육』 120, 173~174쪽.

편할 때 상반, 하반, 덕골, 불당골, 지곡(紙谷) 등을 합치고 상동면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리라 하였다. 서리의 경우는 상덕(上德), 중덕(中德), 하덕(下德)으로 나뉘어 커다란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1914년에 간행된 일제초기의 지도에는 상덕곡, 중덕곡, 하덕곡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후에 '곡(谷)' '지를 빼고 마을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상덕과 중덕 그리고 하덕을 모두 합쳐 '덕골(덕)'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덕골은 '큰골'이라는 뜻이다.

상덕(上德)은 서 3리가 된다. 역북동 용인대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 이 고개를 일명 학고개[鶴峴]라고도 한다. 맨 끝은 기흥구 고매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중덕(中德)은 서 1리에 속하며 상덕과 하덕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중덕'이라 하였다. 하덕(下德)은 서 2리에 속하며, 상덕과 중덕 마을의 제일 아래쪽에 이루어진 마을이라 하여 '하덕'이라 하였다.

상반(上盤)은 서리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로 서 4리가 된다. 하반과 함께 석반(石盤)이 있어서 '석바탕'이라고 불렀는데 마을이 위쪽에 있어서 '상반'이라고 하였다. 상반은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 구분한 명칭으로 본래는 '사리치'라고 불렀다. 사리치는 상반 마을에서 서쪽으로 동탄면 신리로 이어지는 고개를 말한다. 마을 동쪽에 '사기둥치'라고 불리우는 고려시대 가마터가 유명하며 용인시 향토유적(45호)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반(下盤)은 불당골과 함께 서 2리가 된다. 마을이 형성될 때 돌밭(石田)이 있어서 '석밭탕'이 또는 '석바탕'이라고 하였다. 마을이 위아래에 있으므로 위쪽 마을을 '상반', 아랫마을을 '하반'이라고 하여 구분지었다. 상반과 하반의 지명에 반이 들어가게 된 것은 석바탕의 '바탕'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⁹⁰⁾

따라서 용인현의 치소인 현 마북동과 언남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東)'자를 넣은 지명을 만들었다. 이는 이동면 지역이 고려시대 처인부곡에 속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용인 지역에서는 늦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 본격적으로는 고려시대부터 요업이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조선 관요(官窯)가 위치했던 광주 다음으로 요지의 분포도가 높은 곳이 용인이다. 생산품도 다양하여 청자·백자·분청·도기·옹기 등을 제작하였다.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요지만 70개소 이상이며, 그중 고려시대 요지는 19개소에 달한다. 현재에도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구제 발

90) 용인문화원, 2007 『이동면지』 149~150쪽 참조.

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시기의 요지가 용인 전역에서 새로이 확인됨에 따라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⁹¹⁾

따라서 처인부곡의 자기소(磁器所, 窯山洞里)와 도기소(陶器所, 甘岩里)가 언제 운영되었는가에 따라서 소 수공업체제에서 요장 운영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소는 일반 군현과 구별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군현 예하의 일반 촌락 가운데 자연적·사회적 입지조건에 따라 특정 물품의 생산에 유리한 촌락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이때 소의 주민은 전문기술자인 장인과 장인의 물품생산을 돕기 위한 각종의 역(役)을 부담하는 금호(金戶)·은호(銀戶)·염호(鹽戶)·묵호(墨戶)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일반 촌락민으로서 신분적으로는 양인(良人)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반역 등의 행위로 촌락 전체가 강등되어 주민들이 특정한 역에 집단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오히려 특별한 경우이고, 군현에 부과된 특정물품의 생산을 위해 일반 촌락민들을 요역의 형태로 동원하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역 자체가 과중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일반 백성들이 이를 꺼리고 천시했으므로 일반 군현과 소의 차별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이 때문에 소민(所民)이 공을 세웠을 때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는 조치가 포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는 소민의 저항이나 입공(立功)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따라서 용인 서리 백자 요장은 소체제하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고려 왕실에서 사용할 제기(祭器)를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제기는 서리 중덕 요지의 경우 전축요 시기에 해당하는 퇴적 II기층에서부터 확인되며, 토축요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III기층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II기층에서는 청자로 제작된 궤 뚜껑만 6점 출토되었으나, III기층에서는 다종의 제기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백자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서리 상반에서도 제기가 다량 확인되었는데 중덕 출토품과 조형적으로 유사하다. 중덕 III기층과 상반 요장의 운영시기는 대체로 11세기 정도로 추정되어, 11세기를 전후로 서리의 요업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거란과의 전쟁이 시작되던 때로, 특히 거란 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었고

91) 김태은, 2023 「고려시대 용인 지역 요업의 특징과 배경」 『한국문화연구』 4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44쪽 참조.

개경 인근의 요장들의 운영도 중단되었다. 때문에, 고려 전기 요업의 중심이 용인 서리 등 경기 남부, 혹은 더 이남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⁹²⁾

그러므로, 서리 백자 가마는 9~11세기 도자기 생산의 실태와 변화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공업자, 소민, 부곡민 계층 및 지방 세력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0세기 전반설을 주장한 미카미 츠키오[三上次男]는 서리 요지와 그 출토품을 분석하면서, 이 요장을 운영한 사람들은 절강지방의 오월국(吳越國)에서 이주한 공인집단(工人集團)이었거나, 혹은 그 도공집단(陶工集團)의 지휘자는 오월국의 도공들이고, 실제 생산에 종사한 사람들은 토착민들이었을 것이며, 자기의 생산을 명령한 것은 왕정(王廷)이나 정부(政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⁹³⁾

이후 1989~1990년에 원산리요지가 발굴되고 아울러 국가의례에 사용된 제기류들이 출토되면서 초기청자 요장의 성격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남수웅(南秀雄)은 원산리요지에서 출토된 제기류와 거기에 새겨진 명문의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원산리 요가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를 공납(貢納)하는 자기소(磁器所)였을 것이라고 하였다.⁹⁴⁾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서 원산리 요가 있던 지역이 자기소였다는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종민은 중서부지방의 초기 청자요의 경우, 고려정부가 주도적으로 중국 청자 장인들을 데려와 수도권 일대에서 양호한 입지를 선택하여 요장을 설립하고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요장들 상호간에 가마의 구조와 규모, 운영시스템, 생산 기종 등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당시 국가적 차원의 일정한 관리체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⁹⁵⁾ 이 요장 설립과 관리의 주체를 국가로 인식한다면, 이 요장들을 기본적으로 관요(官窯)로 파악한 셈이 된다.

장남원 역시 중서부지방의 초기 청자요를 ‘공납요(貢納窯)’로 파악하고, 개경을 중심으로 일제히 나타나는 초기 청자요들이 기술적, 조형적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한 집단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집단의 주체를 국가로 인식하고, 그 요장들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의 직접지배 체제 아래 생산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있

92) 이종민, 2011 「고려초 청자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 58, 호서사학회, 286~293쪽 참조.

93) 三上次男, 1989, 『日本・朝鮮陶磁史研究』 三上次男著作集 5, 中央公論美術出版, 270~271쪽.

94) 南秀雄, 1994, 「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青磁資料」 『東洋陶磁』 22, 東洋陶磁學會, 116~117쪽.

95) 李鍾玟, 2002,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86~187쪽.

다는 것이다.⁹⁶⁾

이들 요장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는 관계없이, 이들 요장의 설립과 운영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중서부지방의 황해도, 경기도, 충청남도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초기청자 요장들이 개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과, 각 요장의 생산 기술과 생산된 기물의 조형이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그 특징들로는 배천 원산리, 시흥 방산동 요지와 공통된 축요 기술과 번조 방식, 생산품의 종류와 형식, 그리고 「三禮圖」 유형의 다양한 제기의 생산, 마지막으로 처인부곡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희관은 이 요장들이 관요이거나 자기소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사유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 요장들을 설립하고 운영한 주체가 당시 지방사회의 유력자였던 호족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⁹⁷⁾ 그리고 이들 요장에서는 생산한 청자의 일부를 공납의 명목으로 국가에 바치거나(常貢),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요구한 특정항용도의 청자를 제작하여 납부하기도 하였는데(別貢), 청자 ‘淳化三年’명 두(豆)와 ‘淳化四年’명 호(壺)는 바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원산리 요에서 별공의 명목으로 제작,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⁹⁸⁾ 아울러 설립 초기의 남서부지방의 초기 청자요들도 중서부지방의 초기 청자요들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⁹⁹⁾

2000년대 이후에는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2호 요지에서 992년과 993년에 제작된 태묘(太廟)에 사용된 청자 두(豆) 등 청자 제기들이 약 11편 출토되었다.¹⁰⁰⁾ 또한 초기 청자 가마터인 용인 서리와¹⁰¹⁾ 시흥 방산동에서도 제기로 추정되는 청자들이 출토되었다.¹⁰²⁾ 서리 중덕에서는 번·두·보·궤·호준·상준·뚜껍 등이 총 103점, 상반에서는 두·보·궤·착준·호준·희준·뚜껍 등이 197점 출토되었다.¹⁰³⁾ 경기지역 가운데 배천 원산리에서 청자 두 25점, 시흥 방산동에서 청자 두·보·궤 등 10점, 여주 중앙리 백자에서 (보)뚜껍 10점, 도장골·사기막골

96) 張南原, 2004,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古文化』 63,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02~103쪽.
97) 李喜寬·崔健, 2001,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40~47쪽.
98) 李喜寬, 2009, 「高麗時代의 靑瓷 生産體制」 『高麗陶瓷新論』 學研文化社, 16~17쪽.
99) 李喜寬, 2002, 「韓國 初期靑磁生産體制의 成立과 展開」 『대의 문물교류 연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50쪽.
100) 南秀雄, 1993 「圓山里 窯跡의 開城周邊의 靑磁資料」 『東洋陶磁』 22.
101) 김효진, 2014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미술사학연구』 282.
102) 이종민, 2001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磚築窯의 運營時期」 『미술사학연구』 228-229; 海剛陶磁美術館, 2004 「始興 芳山洞 陶器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한혜선, 2007 「始興 芳山洞 陶器窯址의 運營時期」 『湖西史學』 48.
103) 김효진, 2010 「龍仁 西里 窯址 出土 高麗白磁 祭器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쪽 참조.

요지에서 보 1점 등 소량 확인된 것과 비교해, 서리 중덕과 상반에서 다양한 제기를 다수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¹⁰⁴⁾ 출토 제기 중 다수는 조형적 특징이 북송(北宋) 섭숭의(聶崇義)가 편찬한 「三禮圖」와 유사하여, 이를 모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요지의 청자들은 고려의 태묘 건설과 관련이 있다. 983년(성종 2) 박사(博士) 임노성(任老成)에 의해 고려에 반입된 송대의 「太廟堂圖」·「社稷堂圖」·「文宣王廟圖」·「祭器圖」와 989년(성종 7) 12월 성종이 고려의 태묘제를 오묘제(五廟制)로 정한 다음, 이듬해 990년(성종 8) 4월, 태묘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3년 뒤인 993년(성종 11) 11월에 이르러 완공을 본 태묘와¹⁰⁵⁾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바로 이때 원산리 2호가마에서 992년부터 993년간에 걸쳐 제작된 것은 태묘의 1~5실에 쓰일 제기를 제작하였다. 이때 제작된 제기에 새겨진 장인의 이름이 왕공탁(王公托)·심방(沈邦)·이미거(李味巨)·최금환(崔金桓)·최(崔)·김만(金曼) 등의 장인명이 기재되어 있다.

순화 3년(992)명은 “壬辰年太廟第四室香器匠王公托造”라고 명기되어 있어 광종을 위한 태묘 제4실의 제향용기로 왕공탁이 제작하였고, 순화3년명 “壬辰年太廟第三室香器匠沈邦”은 정종을 위한 태묘 제3실 제향용기이며 심방이, 순화4년(993)명은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고려 태조를 위한 태묘의 제1실 제향용기이며 최길회가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⁰⁶⁾

따라서 용인 서리 중덕 요지의 경우 전축요 시기에 해당하는 퇴적 II기층과 토축요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III기층에서 제기가 다량 출토되었다는 것은 원산리 요지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리 요지에서 보이는 장인의 명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¹⁰⁷⁾ 이러한 차이는 결국 원산리 단계에서 태묘에 사용할 정도로 초기 청자 제기의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인 서리 요지는 제기의 제작의 시작을 말해주는 시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려 초 왕실에서 필요한 제기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국가가

104) 김효진, 2014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미술사학연구』 282, 한국미술사학회, 5~10쪽; 장남원, 2004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고문화』 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95~100쪽

105) 『고려사』 권61, 지15 예3 성종 7년, 8년, 11년조. 世家에는 11년 12월에 완성된 것으로 나와 있다.

106) 홍영의, 2024 「고려시대 장인(匠人)의 지위와 사기장 심룡(沈龍)」 『중세고고학』 16, 18~20쪽 참조.

107) 특히 고려 청자의 명문은 시기별로 확연한 변화가 보인다. 고려 초기 청자들은 陶工으로(『補閑集』 하권 “尹直講于一日…(중략)…嘗任歸正寺 寺莊有陶工 安戎太守求瓦罇缸 師以詩壽之曰”) 불리우는 器匠(陶匠·窑匠·沙器匠)으로 명시하고 생산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 중기와 후기 이후의 청자 명문은 청자와 명문 내용, 명문을 새기는 방법, 명문의 표기 위치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윤정, 2015 「고려 중기 銘文靑磁의 유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76).

운영하는 대규모 자기 요장을 서리지역에 설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마터(窯址)는 도자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生産, 공방과 가마 폐기장 등)과 주거(住居, 생활), 자원(資源, 원료) 등의 공간이 갖추어진 곳이다. 따라서 가마터에는 기본적으로 원료를 채취하는 ‘채토장(採土場)’과 수비·건조·성형·시문·시유 등을 실시하는 ‘공방(工房)’, 번조를 담당하는 ‘가마(窯)’, 실패한 도자와 가마 찌꺼기 등을 버리는 ‘폐기장(廢棄場)’을 비롯한 여러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⁸⁾

그리고 이러한 가마터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생산에 필요한 물과 태토, 시목 등 연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작업과 생활공간, 소비지, 운송 수단과 관계되는 교통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 용구(龍駒) 이북 지역의 여러 역(驛)들은 3도(道)의 요충지인데, 접대하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 그 땀나무와 숲으로 바치는 공물[柴炭貢]은 3년 동안 면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¹⁰⁹⁾

“이무한일폐감경(吏無閑日弊堪驚)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백성의 생업이 편하지 못하니 삶이 또한 궁핍하고, 아전이 한가한 날 없으니 폐단이 놀랄 만하다.” 하였다. 상마잡야당(桑麻雜野棠) 함부림(咸傅霖)의 시에, “소나무와 참나무는 산성에 잇달았고, 뽕나무와 삼은 야당과 섞였다.” 하였다.”¹¹⁰⁾

위의 사료는 용구현이 땀나무와 숲으로 바치는 공물[柴炭貢]이 정해질 정도로 가마의 소성 연료인 소나무와 참나무가 매우 많았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러한 조건도 자기소가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의 하나이다.

고려 초 국가가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덕과 상반 요지 외에도 서리 지역에서는 다수의 고려시대 요지가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용인에서 확인된 자기 생산 요장은 8곳 정도이며, 그중 보정동과 초부리에 각 1곳, 나머지는 모두 서리 상반·하반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운영된 요장 수가 적은 반면 서리 중덕·상반, 보정동 등 요지에 확인되는 가마의 규모,

108) 장남원, 2004 『朝鮮時代 白瓷 工房의 種類와 性格』 『단호문화연구』 8,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한성욱, 2008 『瓷器 窯場의 發掘調査』 韓國埋藏文化財 조사연구방법론 4, 國立文化財研究所.

109) 『고려사』 권80, 지34 식화 3 賑恤 恩免之制 (공민왕) 十二年五月 下敎 “一, 自龍駒以北諸驛 三道之衝 供費尤多 其柴炭貢 與免三年”

11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경기 용인현 題詠

여러 회에 걸친 수·개축, 거대한 퇴적과 출토품을 통해, 장시간 대규모 요업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¹¹⁾

용구현과 처인부곡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광주목과 수주(水州, 수원) 소속으로 차이가 있다. 두 지역 모두 관할 구역 중심지에서 떨어진 주변부에 해당하지만, 오히려 두 지역은 지리환경과 문화·경제·교통 환경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조선초에 용인으로 합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업적 측면에서는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원료와 연료 수급, 유통, 운송 등 요업의 핵심적 요소들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 전기 서리 요장의 운영 주체는 수주보다 상위의 국가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중기 이후 요업의 생산체제인 소수공업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용구현과 처인부곡 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된다기보다는, 남경(南京)과 충청 이남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교통의 중심지이자 동일한 문화·경제 구역으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¹¹²⁾ 더구나 용인 서리 중덕 요지의 경우, 전축요 시기에 해당하는 퇴적 II기층과 토축요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III기층에서 제기가 다량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시험 가마일 경우, 대량의 제기를 수운과 해로를 통하여 개경으로 운반할 필요가 없이 육로로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³⁾

또한 서리 요지의 운영 주체를 지방세력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¹¹⁴⁾ 서리 가마의 생산의 최고 책임자는 이곳의 지방세력과 연계된 권력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재료 조달과 생산 활동 수송을 위한 분업체계를 갖추고 자기 생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가운데 용인지역 주변의 세력으로는 죽산(竹山)을 근거로 힘을 떨친 기훤(箕萱)과 박적오(朴赤烏)가 있었으며, 용인지역에는 현재 기흥구 지역에서 세력을 떨친 용인 이씨의 시조인 이길권(李吉卷) 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형상 이동면은 남사면 지역과 함께 수주(水

111) 김태은, 2023 「고려시대 용인 지역 요업의 특징과 배경」 『한국문화연구』 4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63쪽 참조.

112) 김태은, 2023 「고려시대 용인 지역 요업의 특징과 배경」 『한국문화연구』 4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43~44쪽 참조.

113) 서리 가마는 나말 여초의 지방세력 즉, 호족이나 용인 지역의 토성 세력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의 자기 수공업은 해상세력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서리를 포함한 이동면 지역은 내륙에 있지만, 진위천을 통해 서해의 남양만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라 말에는 당성진(唐城鎭)의 군진(軍鎭) 세력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보았다(용인문화원, 2007 『이동면지』 98쪽 참조).

114) 김난옥, 2000 「9~11세기 용인 서리 백자요와 지방세력」 『용인 서리 고려 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170~175쪽.

州)에 기반을 둔 토착세력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동면과 남사면은 진위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진위천 역시 수원시를 흐르는 황구지천과 오산지역을 흐르는 오산천과 합류하기 때문에 진위천을 통해 수주의 영향 하에 있었다.

또한 처인부곡은 수주의 관할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동읍 수주의 토착세력인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수주 김씨와 수주 최씨의 대표 인물로 940년(태조 23)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200명과 귀순하여 공을 세운 수주로 승격시킨 인물들이다.¹¹⁵⁾ 또한 인근 용구현은 광주의 속현이었기 때문에 왕규(王規)와 같은 광주의 대호족이나 죽산지역의 기훤이나 박적오 세력 역시 서리 가마에 영향을 주거나 적어도 주된 소비계층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원삼면 좌향리 고려 고분에서 서리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가 출토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리를 중심으로 인근을 지배하는 지방의 토성 세력들도 서리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의 소비층으로 파악하였다.¹¹⁶⁾ 그러나 왕실 등 국가가 직접 요지의 운영에 관여했다면 이들의 개입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IV. 맺음말

115)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楊廣道 水州

116) 용인문화원, 2007 『이동면지』 97~98쪽 참조.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龍仁 西里 上盤 高麗白磁窯址 -1~5차 발굴조사 보고-』 2016
- 기전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2007
- 명지대학교 박물관, 『용인 서리 도장골 사기막골 유적』 2014
- 서경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시굴조사-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종합정비계획-』. 2022
- 서경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시굴조사』 2022
- 서경문화유산연구원, 『서경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 Ⅲ, 2025
- 湖巖美術館,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발굴조사보고서』 I, 1987
- _____,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발굴조사보고서』 II, 2003
- 권혁주, 「고려 초기청자 요지의 운영체제와 성격 -전축요계 청자 요지를 중심으로-」 『북악사론』 17, 2023
- 김태은, 「고려시대 용인 지역 요업의 특징과 배경」 『한국문화연구』 4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3
- 김효진,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美術史學研究』 282, 韓國美術史學會, 2014
- 李喜寬·崔健,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 오영인, 「고려 초 순화(淳化)명 청자에 대한 재조명—제작과 전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3, 2021
- 이영은·고경산·김규호, 「한국 자기 발생기의 청자와 백자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요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7-1, 2005
- 이유진·노수민,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 -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학술발굴조사 -」 『2020년 중부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발표회 자료집, 2020
- 이종민, 「고려초 청자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 56, 2011
- _____, 「나말여초 청자요업의 개시 여건과 고고학적 산물의 검토 : 塼築窯와 出土品을 중심으로」 『중세 고고학』 창간호, 2017
- _____, 「韓國 初期靑磁의 形成과 傳播 : 塼築窯와 土築窯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40, 2003
- 이희관, 「고려시대의 자기소와 그 전개」 『사학연구』 77, 2005
- _____, 「高麗時代의 靑瓷 生産體制」 『高麗陶瓷新論』 學研文化社, 2009
- _____, 「韓國 初期靑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4권 제2호, 2011
- 張南原,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古文化』 63, 韓國大學博物館協會, 2004
- _____, 「고려 전기 ‘순화(淳化)’명 청자 제기류의 현황과 의의」 『美術史論壇』 53, 2021
- _____, 「朝鮮時代 白瓷 工房의 種類와 性格」 『단호문화연구』 8, 2004

용인 서리 요장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

최건, 「初期靑磁 編年問題 再論」 『미술사학연구』, 250·251, 2006

김난옥, 「9~11세기 용인 서리 백자요와 지방세력」 『용인 서리 고려 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2000

서영일, 「龍仁의 古·中世 交通路와 駒城 地域」 『문화사학』 46, 2016

이정신, 2013 「청자의 변천과정과 자기소」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 혜안, 2013

토론

「고려시대 용인 서리의 역사적 위상과 백자 생산 배경」에 대한 토론

문경호 | 공주대학교

홍영의 교수님의 글은 용인 서리 백자 가마 관련 논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왜 용인 서리에 고려 전기의 백자(청자)가마가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용인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인 특징에서 살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자를 생산한 주체가 고려 정부인가 아니면 용인 일대의 토착세력인가’를 문헌에 근거하여 세밀히 분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교수님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은 문헌과 고고학을 고루 포섭하시면서, 광범위한 선행연구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글 또한 그런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 세밀히 파고들어 토론할 만한 부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글의 중간에 추론 정도로 마무리한 구절이 여럿 있는 것은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처럼 서리 백자 가마가 축조된 시기와 폐지된 시기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고려시대의 육로나 해로 운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므로 청자가마의 운영 시기나 운영 주체, 발굴결과를 깊이 있게 논할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의문과 향후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서리 요지는 고려시대의 소였는가?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용인의 처인 가마골에 자기소가 1개소, 처인의 달바위에 도기소가 1개소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는 용인과 양지 등에서는 별도의 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자기소는 고려시대의 자기소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발굴 결과 서리 일대에서의 청자 생산이 11세기 경에 중단되었다가 훗날(아마도 고려 후기) 다시 시작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마터 근처에 특수행정구역인 처인부곡이 있지만, 처인부곡의 주민들이 도자기 생산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서리 일대가 오랜 기간 동안 도자기를 생산한 소였다면, 그리고 그곳이 관리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의 요지였다면 어떻게든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자기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고에서 선생님께서는 서리 일대에 자기소가 설치되었다고 추정하셨는데, 대략 어느 시기 즈음에 자기소가 생겼다가 어느 시기 즈음에 사라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고려시대 내내 소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2. 고려 정부가 용인의 도자기 가마 운영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용인에서 청자 생산이 중단된 시기는 강진에서 고급 청자가 생산된 시기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사실이 학계에서도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서리 도자기 가마를 운영한 주체가 지방의 토착세력보다는 큰 힘을 가진 국가라고 보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려정부가 개경에서 가까운 서리 일대의 도자기 가마를 포기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수많은 자기편이 출토된 것을 보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백자와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11세기에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무엇 일까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는 용인의 자기가마가 강진의 청자가마보다는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3. 서리 백자는 월주요의 영향을 받았는가?

발굴보고서와 선행 연구에서 여러차례 거론된 것처럼 서리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편은 청자도 있지만 백자편이나 흑자편이 많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갑발과 흙을 이용하여 가마를 축조한 것이나 백자를 생산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서리의 도공들은 월주요 청자보다는 정요나 형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용인 서리에 유입된 자기 기술은 월주요의 청자기술과 정요와 형요의 백자 기술이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백자 생산보다는 청자 생산이 더 경제성(?) 있다고 판단되어 백자 대신 청자 생산으로 전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가설이 가능하다면 백자보다 청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용인 서리 가마는 제기를 시험생산하던 곳이었는가?

선생님 논지의 중요한 줄기 중 하나는 고려의 제기 생산은 태묘에 바칠 수준에 이르는 원산 배천 가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원산리 단계에서 태묘에 사용할 정도로 초기 청자 제기의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용인 서리 요지는 제기의 제작의 시작을 말해주는 시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려 초 왕실에서 필요한 제기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규모 자기 요장을 서리지역에 설치한 것이다.”(본문 17쪽)

제가 잘못 읽지 않았다면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원산리보다 용인 서리의 백자가 먼저 생산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리의 청자를 수로가 아니라 육로로 옮긴 것도 시험가마일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18쪽). 선후 흐름을 통해 볼 때 용인 서리 단계에서의 시험이 끝나고 원산리 단계에서 태묘에 사용할 만큼의 초기 청자 제기를 만들게 되면서 제기 제작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행연구 중에는 거란 침입 이전에 배천의 원산리 가마가 문을 닫고, 이후 토축요인 용인 서리 등지에서 제기를 생산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 글도 있습니다.¹¹⁷⁾

5. 서리 백자 생산을 주도한 세력은 고려 정부인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선행 연구에서 도자기 생산의 주체로 추정된 용인, 죽산, 수주 등의 호족들이 실상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만약 왕실이나 국가가 도자기 생산에 직접 개입했다면 비록 토착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용인 일대에서 도자기를 처음 생산한 시기가 10세기 후반보다 더 소급된다면, 토착 세력들이 운영했던 가마를 국가에서 인수해서 더 크게 확장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17) 오영인, 「고려 초 순화(淳化)명 청자에 대한 재조명—제작과 전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9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 30~32쪽.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장종빈 | 서경문화유산연구원

I 목차

- I. 머리말
- II. 유적의 위치 및 환경
- III. 유적의 조사경과
- IV. 유적 조사내용 및 성과
- V. 맺음말

I. 머리말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고려 초기 자기(磁器)의 발생과 변천과정 이해에 핵심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1930년에 일본인 도자사학자 아사카와 노리타가(淺川伯教)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1960년대에 정양모(鄭良謨)가 고려시대 초기 요지임을 확인하면서, 그 중요성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자연과 사람에 의해 훼손되고 있던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호암미술관(現 삼성박물관 리움)의 1983년과 1984년에 수행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상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유적의 보호와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호암미술관은 연차적인 학술 발굴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발굴조사는 호암미술관에 의해 1984년, 1987년, 1988년 모두 3차에 걸쳐 조사되었다.¹⁾

이 조사들을 통해 국내 최초의 벽돌가마(塼築窯)와 그 위에 축조된 진흙가마(土築窯)의 존재가 드러났으며, 특히 가마 좌우에 존재하는 퇴적층에서 4개의 문화층이 확인되면서 해무리급 계열의 백자 편년 기준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고려시대 백자생산의 중요한 양상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이라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1989년 1월 14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29호로 지정되었다.

1) 호암미술관, 1987,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호암미술관, 2003,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報告書 II』.

용인 서리 요장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

하지만, 사적 지정 이후 설정된 가마터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경작과 개간 행위로 유적은 훼손되고 있었다.

이에 용인시는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2020년부터 (재)서경문화유산연구원을 통해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 전역에 대한 조사가 2024년까지 실시되어 가마 운용과 관련한 시설, 즉 제품의 제작, 생산품의 보관, 관리를 위한 다수의 건물터와 보·궤(簾·簋) 집 증출토지가 발굴되었다. 특히, 가마 남쪽 건물터 주변에서 발견된 보·궤 32점은 그 양과 보존상태, 특정된 기종이라는 점에서 희귀하고 중요한 자료이다. 2025년 현재는 가마터의 재발굴과 좌우 퇴적층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본 글에서는 호암미술관에서 1983~1988년에 조사한 1~3차 발굴조사부터 서경문화유산연구원이 2020~2024년까지 수행한 4·5차 발굴조사, 그리고 2025년 조사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 성과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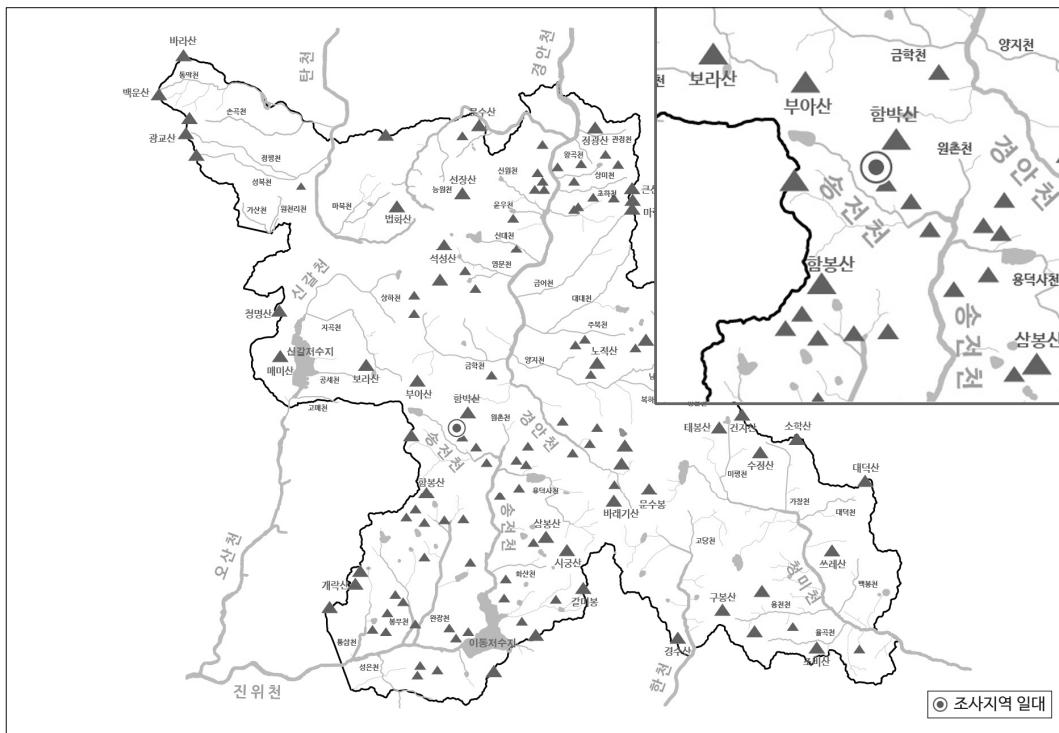
〈그림 1〉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원경

II. 유적의 위치 및 환경

1. 유적의 위치²⁾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산 23-1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7°12' 00" 동경 127°10' 39" 에 해당한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가 위치한 이 지역은 주변에 험준한 산세가 있는 산악지대로써 동쪽에 해발 349m의 함박산, 북쪽의 해발 407m의 부아산, 서쪽의 해발 360m의 무봉산, 남서쪽에 해발 306m의 함봉산, 남쪽에 해발 206m의 달봉산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산세로 인해 여러 하천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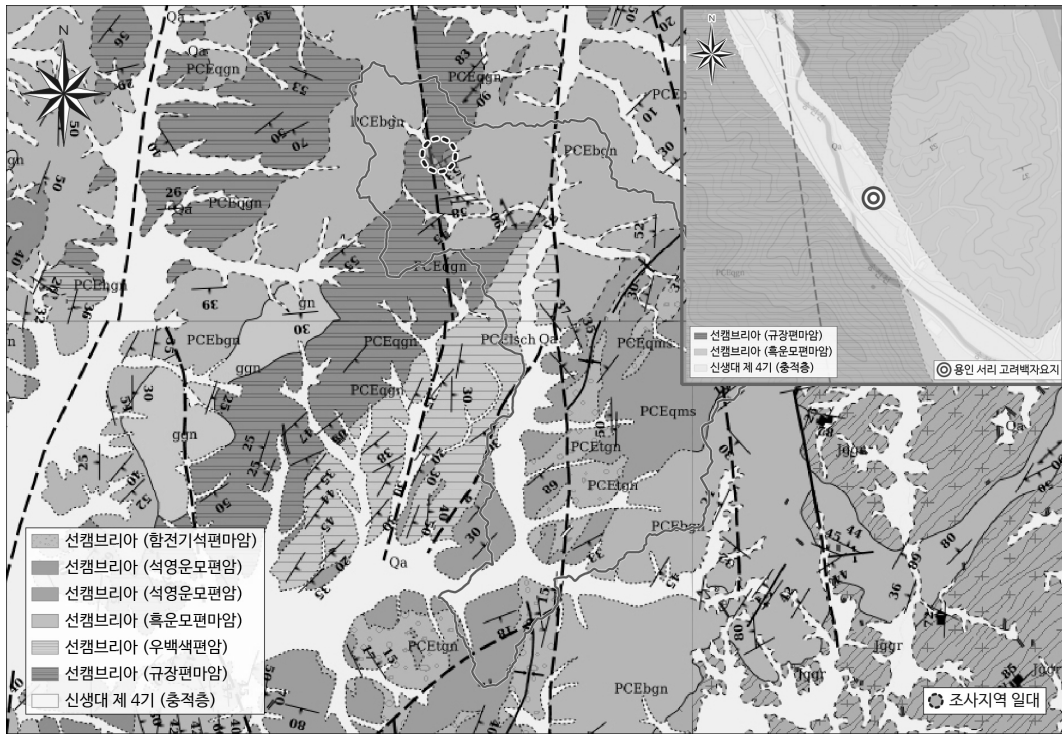


〈도면 1〉 용인시의 산지 및 하천 수계도(하천관리지리정보웹시스템)

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용인시사』.

부아산과 함박산 남쪽에서 발원한 송전천은 동쪽과 남쪽으로 크게 회류하는데, 함박산 아래에 위치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남쪽에서 동류한다. 이후 무너미고개를 분수령으로 송전천은 남류하여 진위천과 합류한다. 진위천은 다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과 합쳐져 아산만으로 흘러간다. 반면 경안천은 북류하여 한강으로 이어진다. 무너미고개는 분수령으로 유적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이 일대의 지형적 특징을 말해준다.

본 유적은 앞서 말했듯이 진위천과 경안천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천과의 접근성이 좋고, 고운 백토가 분포하는 점토대가 인접해 있어³⁾ 자기 생산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유적은 산록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조성되어있어, 가마 설치 및 번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면 2〉 용인시 이동면의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국토지질정보(https://data.kigam.re.kr/mgeo/map/main.do?process=geology_50k)

유적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규장편마암, 흑운모 편마암에 포함된 장석의 경우 고령토화 되어 백색의 점토가 발달됨. 또한, 남쪽의 유백색 편암도 고령토화가 진행되어 백색의 점토를 얻기에 용이.

2. 도자사적 환경⁴⁾

유적이 위치한 용인시 이동읍 서리 일대는 가마가 운영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통일신라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요업이 이루어져 왔다. 본 유적의 동쪽 산 능선을 넘어가면 사기막골이 있는데, 이 골짜기 안에 고려토기 산포지 1개소, 인화분청사기요지 1개소, 조선중기 철화백자요지 1개소 및 조선 말기 백자요지 1개소를 확인한 바 있다. 또 서쪽 산줄기를 직선으로 넘어가면 상반곡이란 마을이 있으며, 이 마을의 북쪽 산기슭에 본 유적과 성격이 비슷한 소규모의 고려백자요지가 있어 이곳 서리 골짜기 일대가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요업이 상당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읍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가마유구는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를 비롯하여,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서리요지1·2, 서리 도장골 사기막골 요지 등이 있다.

이동읍 외에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확인된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발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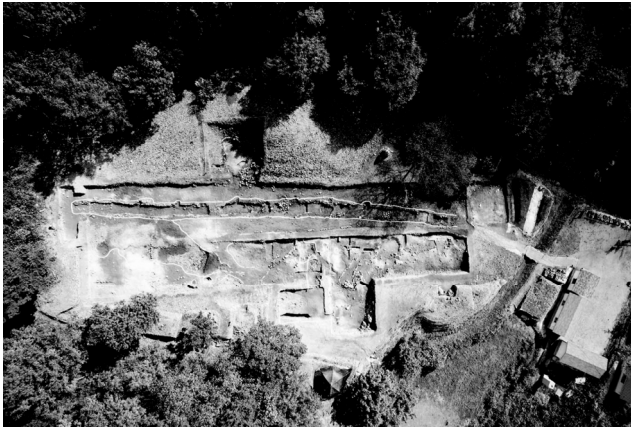


〈도면 3〉 유적 주변 고려시대 가마와 건물지 유적 분포현황

4) 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25,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Ⅲ』.

1)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⁵⁾

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서 가마터 1기, 구들유구 1기, 수혈유구 1기, 갑발유구 4기, 성격미상유구 2기, 폐기 구덩이 3기, 폐기장 2기 등 총 1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그림 2〉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전경(경기, 2016)

가마의 축조에 갑발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이행하는 진흙가마 초기의 특징으로, 주로 고려시대 전기에 조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서리 상반 가마터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의 전환 과정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출토유물은 반상기인 접시, 완, 대접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

궤·호준·두·뚜껑 등의 제기도 다량 출토되었다.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서리고려백자요지에서 확인된 Ⅲ~Ⅳ기층에 해당하는 유물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 10세기 후반에서~11세기경 운영되었던 백자 가마로 판단된다.

2) 용인 서리요지^{1·26)}

서리 부터골 구릉 남동사면 일대에 해당하며, ‘하반 부터골2 요지’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유적 하단은 계단을 이루며 논과 연결되고 상단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소로가 개설되면서 많은 유물들이 노출되었다. 대규모의 가마 폐기물 퇴적은 보이지 않으나,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은 10세기대 선해무리굽 백자와 완과 접시·도기편·갑발편·소토 등으로 다량 확인되었다.

3) 용인 서리 도장골·사기막골 요지⁷⁾

용인 엔젤대중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발굴조사 된 유적으로, 7개 지점에서 고려시대 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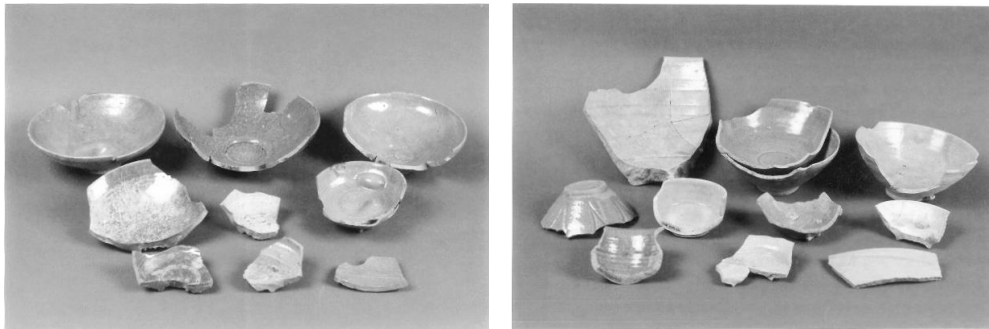
5)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6, 『龍仁西里上盤高麗白磁窯址 -1~5차 발굴조사 보고서-』.

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용인시,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충북대중원문화연구소, 2002,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보고서』.

7) 명지대학교 박물관, 2014, 『용인 서리 도장골·사기막골 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가마와 백자가마, 조선시대 도기가마 및 숯가마, 작업장 및 수혈을 비롯하여, 석곽묘와 토광묘, 주거지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6지점에서는 청자가마가, 9·10지점에서는 백자가마가 확인되었으며, 풍화암반층을 굴토하여 조성한 토축요로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자기가마의 형태를 띤다.



〈그림 3〉 서리 도장골·사기막골 유적 6지점 청자가마(左) 및 9지점 백자가마(右) 출토유물(명지대, 2014)

9·10지점에서 조사된 백자가마에서는 백자를 주로 생산하는 가운데 청자를 일부 병행 생산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기관에서는 12~13세기경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Ⅲ. 유적의 조사경과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1980년대 호암미술관에 의한 세 차례 발굴조사와 서경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각각 두 차례씩 실시되었고, 현재 가마 재발굴과 퇴적구릉의 단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각 조사는 시기와 목적, 조사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성과를 보였다. 이 장에서는 각 조사별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차 조사⁸⁾는 1984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2일간 진행되었다. 호암미술관 주관으로 유적의 범위 확인과 대체적인 성격 파악 등에 주안점을 둔 시굴조사의 성격이 강했으며, 그 결과, 벽돌가마 노출 및 가마의 남쪽 일대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8) 호암미술관, 1987,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2차 조사⁹⁾는 1987년 10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56일간 진행되었다. 길이 83m에 달하는 진흙가마 발굴과 함께 그 아래에서 약 40m 길이 벽돌가마의 존재를 재확인하였다. 가마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화되는 가마 축조 기술의 이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퇴적구릉의 연속 층위 조사와 1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를 확대 조사하였다.

3차 조사¹⁰⁾는 1988년 5월 6일부터 6월 21일까지 48일간 진행되었다. 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흙가마 요상(窯床) 상부 조사와 2차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벽돌가마 외벽을 연장 조사하였다. 그리고 퇴적구릉의 연속 층위 조사도 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벽돌가마와 진흙가마의 병존 구조가 구체화 되었다.

이후, 용인시의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를 비롯한 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4차 조사¹¹⁾(3,366㎡)는 2021년 6월 10일부터 44일의 일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기 조사된 건물지를 포함한 고려시대 건물지 8기를 비롯, 담장지 3기, 석축시설 1기, 보·궤 집중노출지, 석렬유구 등 22기의 유구가 발굴되었다.

5차 조사(5,663㎡)는 가마 전면의 대지와 서쪽 퇴적구릉 주변부, 남동쪽 일대에 대해서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실시되었다. 가마 및 퇴적구릉 전면부에서는 공방시설로 추정되는 유구와 부뚜막 시설로 보이는 소성유구, 시기미상의 가마와 배수로 등이 발굴되었고, 남동쪽 일대에서는 진흙가마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5기가 3시기에 걸쳐 중복되어 나타나며, 담장지 추정 석축유구, 보도시설, 조선시대 기와가마 및 배수로 등이 조사되었다.

2025년 3월 말부터 가마의 재발굴 및 퇴적구릉에 대한 토층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가마의 상면 노출과 가마 우측의 퇴적구의 단면의 토층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현황 및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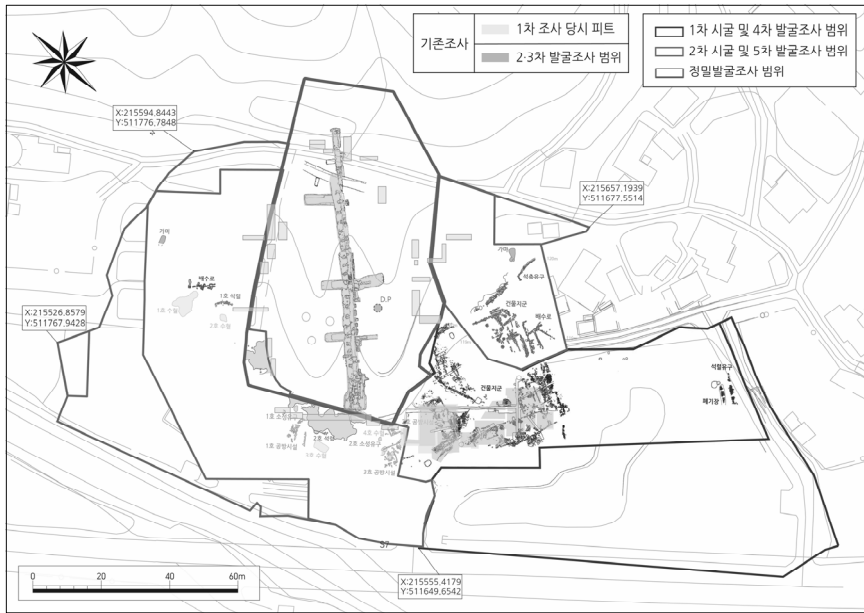
9) 호암미술관, 2003,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報告書Ⅱ』.

10) 호암미술관, 2003, 앞의 책.

11) 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25,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Ⅲ』.

〈표 1〉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조사경과

구분	기간	조사내용	조사기관
1차 발굴조사	1984. 11. 29. ~ 12. 20.	·유적 범위 확인 및 성격 파악 ·토축요 노출 및 건물지 확인	호암 미술관
2차 발굴조사	1987. 10. 15. ~ 11. 30.	·최대 규모의 진흙가마 확인(83m) ·진흙가마 아래 벽돌가마 확인 ·퇴적구의 연속 층위조사 ·1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 연장 조사	
3차 발굴조사	1988. 05. 06. ~ 06. 25.	·요상(窯床) 상부 조사 ·벽돌가마 외벽 연장조사 ·퇴적구릉의 연속 층위조사	
사적 지정	1989. 01. 10.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사적 지정(제329호)	서경 문화유산 연구원
1차 시굴조사	2020. 06. 09. ~ 06. 30.	·사적지 정비사업구역 내 신규 및 기존 조사 석렬 확인	
4차 발굴조사	2021. 06. 10. ~ 2022. 04. 12.	·건물지 8기, 담장지, 석축시설, 보·궤 집중노출지, 소성유구 등 22기의 유구 발굴	
2차 시굴조사	2023. 07. 06. ~ 08. 03.	·사적지 정비사업구역 내 가마 주변 건물지 확인 ·가마 폐기물 퇴적범위 확인	
5차 발굴조사	2023. 10. 18 ~ 2024. 07. 03.	·가마 전면부에서 추정 공방시설 건물지, 소성유구 등 발굴 ·남동쪽 일대에서 진흙가마 시기의 건물지 5기, 담장지 및 보 도, 조선시대 기와가마, 배수로 등 발굴	
2차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	2025. 03. 31 ~ 현재	·가마 재발굴 및 퇴적구릉 토층 조사 ·가마 상면 노출, 남측 퇴적구릉 토층 조사	



〈도면 4〉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현황도

IV. 유적 조사내용 및 성과

이 장에서는 그간 서리 고려백자요지에 대해 이루어진 5차례의 발굴조사 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와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1~3차 조사(호암미술관)



〈그림 4〉 벽돌가마 세부(호암미술관, 2003)

1~3차에 이루어진 조사는 가마의 발굴과 퇴적구릉의 층위 조사로 대표된다. 1차 및 2차 조사는 진흙가마와 벽돌가마의 중복관계를 파악하고, 가마와 관련한 부속시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면, 3차 조사는 진흙가마의 세부 구조 및 규모 등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가마



〈그림 5〉 진흙가마 전경(호암미술관, 1987)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도자기 및 요도구편이 다량 포함된 퇴적구릉에 대한 층위 분석을 통해 가마와 퇴적층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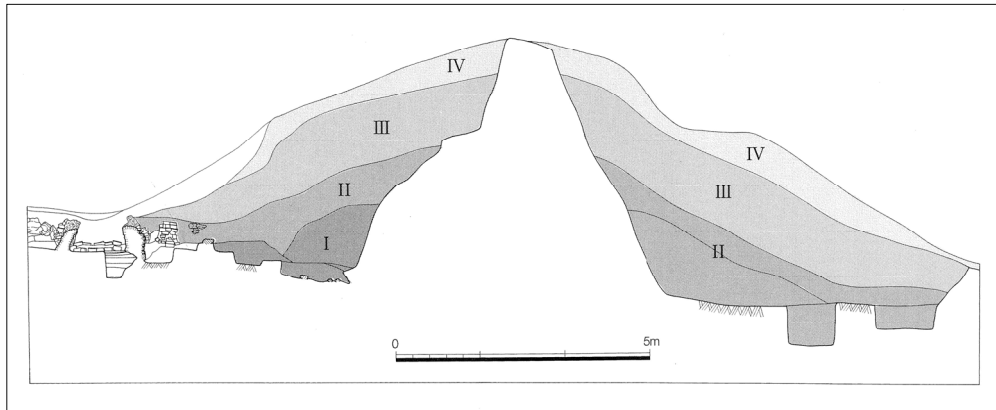
벽돌가마는 길이 40m에 폭 1.8m, 잔존높이 1.4m가량이며, 장방형의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되었다. 경사면을 이용하여 만든 오름가마[登窯]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과정에서 상층부에 있는 진흙가마를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일부에 탐색구를 설치하여 조사한 까닭에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는다.¹²⁾ 벽돌가마는 시기적으로 퇴적구릉의 Ⅱ·Ⅲ층과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소량의 백자해무리굽완 편이 벽돌가마 요상(窯

12) 이종민, 2010, 「용인서리 고려요지 출토품의 도자사적 의미」 『용인문화 Vol.12-용인 고려백자의 재발견』, 용인문화원, p.19.

上)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긴 어렵고, 시흥·여주 등 주변 경기지역의 유적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볼 때도 퇴적구릉의 I·II 층과의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흙가마는 벽돌가마 폐기 후, 벽돌가마에 잇대어 축조되었다. 길이가 약 83m에 달하며, 가마의 폭은 1.2~1.5m 정도이다. 가마 벽체는 점토와 활석을 혼용하거나 폐기된 갑발(匣鉢)을 함께 활용하여 쌓아 올렸으며, 내부 천장은 아치형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당시 요벽의 높이는 1m 내외이다. 가마 바닥 역시 점토를 다져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가마 좌측면에는 연료를 투입하고 소성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구가 2.5~3m 간격을 두고 23 개소가 확인되었다. 구조적으로 가마 벽을 축조할 때 일부 빈 갑발을 대량 사용한 점이 눈에 띄는데, 원통형의 빈 갑발을 포개 쌓고 진흙을 발라 반듯하게 벽을 조성하였다. 소성부 중 주목할만한 곳은 가마의 상단 끝 11m 정도 구간으로 갑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피열의 정도가 약해 초벌칸으로 추정하고 있다.

벽돌가마와 진흙가마의 병존과 함께 또 다른 획기적인 조사성과는 가마 좌우측(남북)에 형성된 폐기층에서 시기별 층위 관계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 폐기층의 단면조사를 통해 총 4 개의 층으로 구분되었다. 각 층은 큰 교란없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퇴적층의 규모가 6m 이상으로 이는 서리 가마의 생산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도면 5〉 퇴적층위 단면도(호암미술관, 2003)

퇴적구릉의 층위별 유물 변화 양상은 진흙가마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다.

최하층(I층)은 청자 중심의 전축요 시기로 완과 접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II층에서는 해무리굽(선해무리굽) 완과 접시류가 주종을 이루고 양질의 백자 생산이 급증한다. 또한 화형접시류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III층은 내저원각 한국식 해무리굽 완으로 굽의 변형 및 간략화로 특징되며, 청자 생산이 거의 사라지고 백자 일변도로 변화한다. IV층에서는 백자만이 출토된다. 일상생활용 기 제작이 주를 이루고, 품질은 조악해졌다. 이는 운영 집단의 변화와 가마의 위상 저하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철화백자(鐵畫白磁) 편도 발견되었다.

퇴적구릉의 층위 조사를 통해 정립된 유물의 변화상은 고고학적으로 용인 서리 가마의 운영 기간과 궤를 함께 함이 입증되었다. 즉, 선해무리굽에서 해무리굽, 후기 해무리굽으로 이어지는 기형의 변화와 철화백자와 같은 새로운 장식 기법의 등장은 이 특정 가마의 생산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양식적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년 체계는 용인 서리 요지뿐만 아니라 동 시기 다른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편년 설정에도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다음의 표는 퇴적구릉의 단면조사에서 나타난 층위별 퇴적층의 주요 특징과 대표적인 출토유물을 요약하여 구성한 것이다.

〈표 2〉 층위별 유물 속성 구분

층위	굽 형태	특징	관련 가마유형
I 층 (최하층)	선해무리굽	-굽의 초기형태, 굽이 낮고 테가 넓음 -초기 청자 비율 높음 -완, 접시	벽돌가마
II 층	중국식 해무리굽 (옥벽저(玉璧底))	-고품질, 백자 비율 높음 -지밀한 갑발사용 추정 -굽 접지면이 뚜렷한 등근 테, 안쪽이 오목하게 파임	벽돌가마 /진흙가마
III 층	한국식 해무리굽 (변형 해무리굽)	-내저원각, 백자 중심 -해무리굽 형태가 변형 또는 간략화	진흙가마
IV 층 (최상층)	윤형굽	-저품질 -대중화, 다양화	진흙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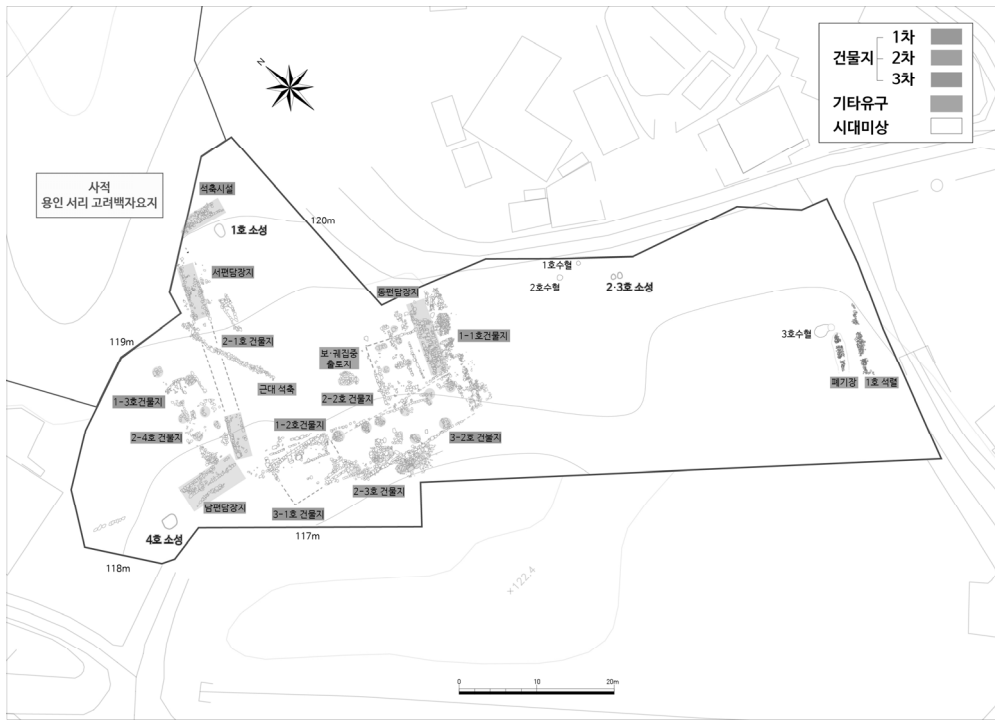
이곳 가마의 주된 생산품이 백자가 해당하지만, 다른 종류의 도자기도 함께 출토되어 당시 생산활동의 다양성을 짐작하게 한다. 백자 표면에 철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철화백자도 소

량 확인되며, 일상 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회청색 경질도기나 질그릇 항아리 파편 등도 출토되었다.

가마 주변의 퇴적구릉에서 유물과 함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요도구이다. 그 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갑발이다. 갑발은 도자기를 가마 안에서 구울 때 재나 불꽃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 깨끗하고 균일한 표면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원통형 또는 접시형의 내화 점토 용기이다. 용인 서리 요지에서 다량의 갑발이 존재하는 것은 이곳이 최상품의 도자기를 생산지였음을 방증한다. 갑발 외에 갑발 받침과 도지미 등도 출토되었다.

2. 4·5차 조사

4차 조사지역은 가마 퇴적구릉의 남동쪽 대지에 해당한다. 과거 호암미술관에서 조사되었던 건물지의 재발굴조사로 주변의 확장조사를 통해 건물지 전체적인 규모와 추가적인 유구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면 6〉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 현황도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건물지 8기를 비롯, 담장지 3기, 석축시설 1기, 보·궤 집중노출지, 석렬유구, 폐기장 등 20기 이상의 유구가 발굴되었다. 건물지들은 애당초 과거 조사 당시 잔존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후대 훼손 등으로 보존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 건물지들은 대부분 중복된 관계로 파악되나, 전반적인 층위 조사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에 건물지 단열의 진행방향과 위치, 적심간 배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6〉 4차 발굴조사 - 건물지군 전경

건물지군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1차 건물지는 2동, 제2차 건물지는 4동, 제3차 건물지 2동이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2차 건물지 단계에 접어들어 요업이 활발하게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5차 발굴조사까지 진행된 양상으로 보아 유적 내 건물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며, 초축 당시에는 넓은 범위에 건물지를 조성한 후 2차 때 범위 및 규모가 성행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규모를 줄여나간 것으로 보인다.¹³⁾ 유적 내에서 백자제기 보·궤·황이, 백자 완·발·화형접시·잔·뚜껑·잔탁·퇴수기·주자·동이·병·다연·약봉·촛대, 청자 완·발·접시 등의 자기류와 갓모 등의 물레부속구, 고리형받침(점권), 도지미, 갑발받침, 갑발 등의 요도구, 암키와수키와 등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가마 퇴적구의 Ⅲ기층에 해당하는 백자(한국식해무리굽 또는 퇴화해무리굽)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10~11세기 전반 고려 초 벽돌가마에서만 출토되는 고리형받침 1점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그림 7〉 보·궤 집중노출지 전경

건물지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주변으로 가마 및 폐기물 폐기층이 폭넓게 산재하고 있는 점과 건물지 사이에 보(簋)·궤(簋) 집중노출지가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이곳의 건물지들은 가마 생산품을 제작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관리동이나 창고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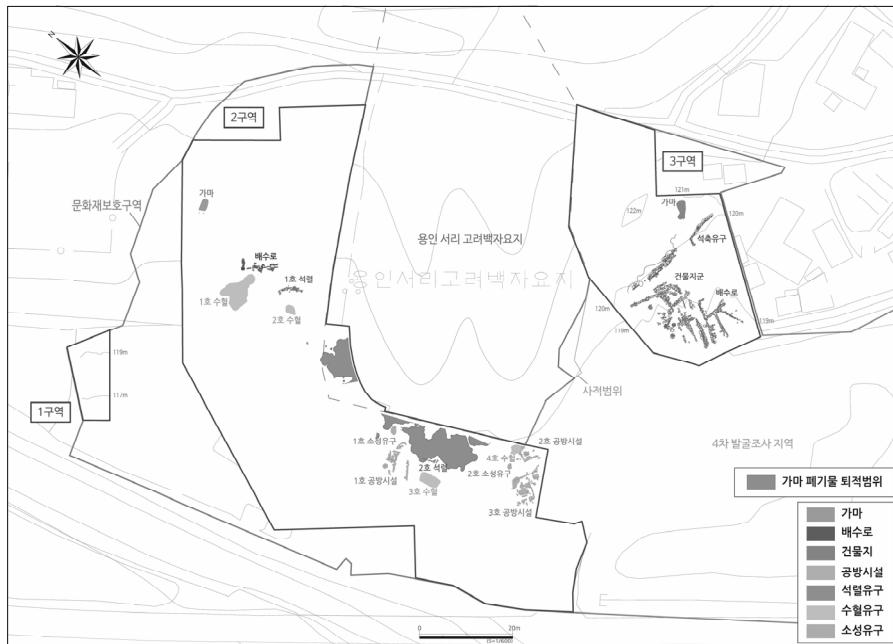
13) 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25, 「Ⅴ. 고찰」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Ⅲ』, p. 304

시설일 것으로 추정된다.

4차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굴성과는 건물지 외곽에서 확인된 보·궤 발견으로 다량의 갑발 및 할석과 함께 총 32점이 출토되었다. 별도의 시설, 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아닌 한곳에 집중되어 폐기된 양상이다. 보(簋)는 외방내원(外方內圓) 형태로 주로 벼(稻)나 조(粱)와 같은 곡식을 담는 데 사용된 제기이며, 궤(簋)는 내방외원(內方外圓) 형태로, 주로 기장[黍]이나 피(稷)를 담는 데 사용하였다. 조성상태와 제품의 질이 비교적 양호한 완형으로, 구경이 18~23cm, 높이가 28~36cm 정도이고, 무게는 6~12kg에 달한다.



〈그림 8〉 4차 발굴조사지역 출토 보(左)·궤(右)



〈도면 7〉 5차 발굴조사지역 유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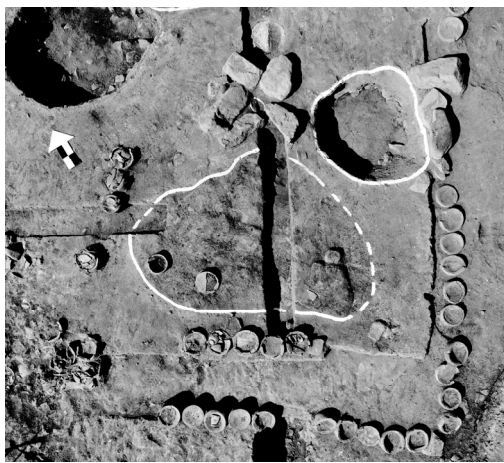
5차 조사는 가마 전면부(남서쪽)과 북측 구릉의 북서쪽 일대, 남측 퇴적구릉의 남동쪽 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유구 대부분은 가마 전면부와 남동쪽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가마 전면부에는 가마 운영과 관련한 공방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지 3기와 토취장 및 연토장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4기, 부뚜막 추정 소성유구 2기, 성격미상의 석렬유구 3기, 도기 가마(추정), 그리고 가마 폐기물로 성토한 퇴적구 등이 발굴되었다.



〈그림 9〉 2구역 추정 1호 공방시설

가마 전면부 건물지의 경우 모두 기초부 일부만 파악되고 있어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측 퇴적구릉의 전면부에 위치한 건물지는 중앙의 방향으로 구획된 판석시설이 존재하고, 동편 2열의 갑발열은 비슷한 높이로 형성되어 있어 생산품의 선별이나 적치와 관련한 시설로 추정된다. 남측 퇴적구 전면의 3호 공방시설 건물지는 내부에 공간구획 목적의 격벽 기초부로 예상되는 ‘ㄱ’형 갑발열과 중앙의 추정 수비공, 목기 또는 초본류 용기에 백토 찌꺼기가 채워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들 건물지의 입지 기반층은 벽돌가마



〈그림 10〉 2구역 추정 3호 공방시설

단계의 폐기물을 활용하여 성토된 대지층인 점에서 건물지들은 진흙가마 운영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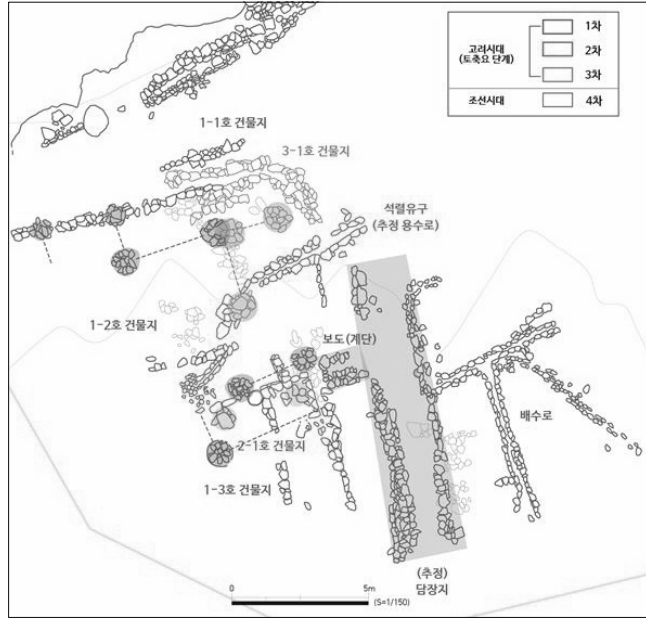
남동쪽 일대는 가마와 관련된 건물지군과 태토의 수비와 관련 시설로 보이는 석렬유구, 담장지로 추정되는 석축유구, 보도시설 등과 조선시대의 기와가마, 석축유구, 배수로 유구가 조사되었다. 고려시대 건물지군은 건물지 간의 중복양상 및 상호 건물지의 높이 등을 고려하면 최소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조성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물지의 기단석축을 재사용하고 내부를 증·개축하여 가마의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형의 특성상 물에 의한 지반의 침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배수로의 형태와 구조가 확인되었다. 특

히 2차 건물지와 연접한 석렬유구의 경우, 모아진 용수(用水)로 점토를 수비하는 등 자기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곳의 북동-남서 중앙을 가로지르는 담장시설은 건물지의 담장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마를 둘러싼 공간을 경계, 즉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기능도 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3월 말부터는 가마와 퇴적구릉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가마의 우측(남측) 퇴적구릉에 대해 단면조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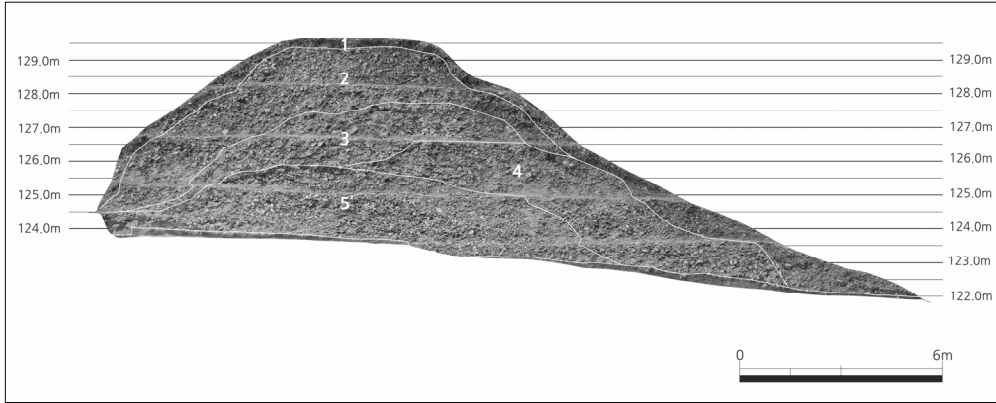
퇴적구릉의 중앙을 기준으로 자연 기반층에서 5.6m가량 높이로 퇴적층이 형성되었고, 남-북 방향의 단폭은 23m가량의 규모를 갖는다. 단면상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이다. 폐기 퇴적층의 기반이 되는 하부는 황갈색 점토성 토양과 그 아래 고토양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마 및 퇴적구릉 전반에 걸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갈색 점토층 상면은 대체로 반듯하게 정돈된 듯한 흐름을 보이며, 그 위 암갈색, 흑갈색의 점토는 5~10cm 내의 일정한 두께를 형성하고 있어 토양 채취 등 인위적 행위에 따른 원지형의 변화를 짐작케 한다.



〈도면 8〉 5차 발굴조사 3구역 유구 현황



〈그림 11〉 남측 퇴적구릉 단면 절개 전경



〈도면 9〉 남측 퇴적구릉 단면 퇴적층위

퇴적 층위의 구분은 다량의 갑발과 유물이 폐기된 이후 그 위로 적갈색을 띠는 소토나 벽체 덩어리 등 가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쌓인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어 다수의 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퇴적 흐름에 따라 크게 5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5번 층은 최하층으로 양질의 청자와 백자가 출현하는 층으로 청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3·4번 층은 양질의 청자와 백자, 그리고 치밀하고 기벽이 얇은 갑발이 나타난다. 1·2번 층은 상위층으로 대부분 백자류가 출토되며, 전 시기의 백자에 비해 확연한 품질의 차가 나타난다. 갑발 역시 두껍고 규석의 함량이 높은 조질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과거의 조사에서의 4시기 구분법과는 차이가 있는데, 최상층과 최하층의 성격은 이견이 없을 듯 하나 중위층에서의 관계는 유물의 출토 위치, 분류를 통한 분층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절개지 바닥면에서 토취구덩이 확인되었으며, 내부는 다량의 유물·갑발 등 폐기물로 채워졌다. 접시, 완의 청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중국식 청자 상당량이 출토되는 현상은 초기 가마의 운영에 외부 선진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시사하고, 이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변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성과와 과제

이상 1983부터 시작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발굴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의 핵심적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벽돌가마와 그 위에 축조된 대형의 진흙가마, 그리고 가마 좌우에 형성된 거대한 퇴

적층의 존재이다. 벽돌가마 → 대형 진흙가마로의 전환은 당시의 실정에 맞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 갔음을 의미하고, 외부의 선진 기술이 유입되어 한국적으로 변용, 발전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퇴적층의 유물을 통해서도 기술의 도입과 현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퇴적층의 최하층과 토취구덩이 내 중국식 청자 접시와 완은 생산 기술이 외부로부터 전수되었음을 의미하며, 층위 상승에 따라 형성된 유물의 양상이 청자에서 백자로 전환되고 다양화된다.

둘째, 5.6~7.8m에 이르는 가마 주변 퇴적층의 분석을 통해 고려 초기 도자기 편년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층위별 유물 양상의 변화, 특히 선해무리굽 → 중국식 해무리굽 → 한국식(변형) 해무리굽/내저원각 → 윤형굽이라는 백자 굽 형태의 단계적인 변천을 제시하여 고려 초기 도자기의 상대 편년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셋째, 고려 왕실 제례에 사용된 보·궤와 같은 백자 제기가 다량 출토됨으로서 서리 요지가 국가적 중요 생산기지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 발견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고려시대 도자사 연구에서 그동안 실물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왕실 제기의 구체적인 형태와 제작 양상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이고, 문헌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고려시대 국가 제례의 물질적 측면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 용인 서리 요지가 단순한 도자기 생산지를 넘어 고려 왕실의 제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음을 입증하였다.

넷째, 가마 운영과 관련한 공방 및 관리시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후대 교란으로 인해 보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토취(土取)·수비(水飛)·연토(鍊土)·성형(成形)·건조·보관을 위한 장소나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시기와 관련한 다수의 건물지는 가마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국가적으로 중점 운영된 방대한 규모의 생산기지임은 자명하다.

이처럼 이 유적은 발굴을 통해 고려 초기 백자의 기원과 발달, 생산 기술, 사회적 의미 등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운영의 시작과 끝의 정확한 편년의 확보이다. 이 유적의 층위가 상대적인 순서를 명확히 보여주지만, 각 층위의 절대 연대 부여나 특정 유물의 정확한 편년 위치 설정은 여전히 복잡한 과제이다. 객관적 편년 설정을 위해서는 가마와 유물에 대한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벽돌가마 및 진흙가마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모의 파악이다. 벽돌가마에 대한 과거의 조사된 자료는 매우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다. 진흙가마는 과거 조사에서 하나로 연결된 가마임을 규정하였지만,¹⁴⁾ 과연 단일 가마로서 운영이 실현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진행예정인 가마 재조사와 퇴적구릉의 단면조사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V. 맺음말

합박산 서쪽에서 뺀어 내린 산줄기의 끝자락 경사면에 자리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 도자사와 고려사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중요한 유적이다. 수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다양한 사실들은 유적의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입증한다. 경기도 일대 고려 초기 도자사의 중요 유적으로는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용인 서리 상반도 있었으나, 압도적인 생산 규모와 지속성, 구체적인 편년 정보, 국가적 연관성 등에서 그 위상은 독보적이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벽돌가마와 진흙가마의 병존은 초기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과 당시의 환경에 맞게 기술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퇴적층에서 출토된 백자는 초기 백자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특히 해무리굽의 단계적 변화를 통해 고려 초기 백자 편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기여는 매우 크다. 이는 후대 백자 연구뿐만 아니라, 동시기 청자 및 기타 도자기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마 주변에서 공방 및 관리시설로 추정되는 다수의 건물지와 부속 담장지, 배수시설 등의 발굴은 이곳이 가마와 함께 대규모의 시설을 갖춘 국가 중요 생산지임을 방증한다.

이러한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고려 도자기기술의 발전, 특히 백자의 기원과 초기 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나아가 출

14) 진흙가마는 처음에는 봉통부를 여러 곳으로 옮겨가며 30~40m 길이의 가마를 사용했던 것 같으나, 최종에는 이들을 모두 연결시켜 83m에 달하는 초대형가마를 운용한 것으로 보았다.

호암미술관, 1987,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p.184.

토된 제기를 통해 국가적 제례 문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단순한 도자기 생산 유적을 넘어 고려 초기 사회, 문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중요 유적으로서 고고학, 도자사, 미술사 연구의 단초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에 대한 토론

김경중 | 경기도자박물관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이하 용인 서리 요지)는 고려 초기 자기의 발생과 변천 과정 이해에 핵심적인 위상을 보여 주는 유적입니다. 1930년에 일본인 도자사학자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1960년대에 정양모가 고려시대 초기 요지임을 확인하면서, 그 중요성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용인 서리 요지는 고려시대 백자 생산의 중요한 양상을 보여 주는 핵심 유적이라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1989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용인 서리 요지는 호암미술관(현 리움미술관)이 1984·1987·1988년에 발굴조사를, 서경문화유산연구원이 2020~24년까지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인 서리 요지의 조사 성과를 발표자는 첫째, 벽돌가마와 그 위에 축조된 진흙가마, 그리고 가마 좌·우에 형성된 거대한 퇴적층의 존재 확인, 둘째, 5.6~7.8m에 이르는 가마 주변 퇴적층의 분석을 통해 고려 초기 도자의 편년 체계 확립, 셋째, 고려 왕실 제례에 사용된 보·귀와 같은 백자 제기가 다량 출토됨으로써 서리 요지가 국가적 중요 생산기지였다는 점, 넷째, 가마 운영과 관련한 공방 및 관리시설의 존재가 확인된 점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절대 연대 부여나 특정 유물의 정확한 편년 위치 설정은 여전히 복잡한 과제이고, 단일 가마로서 운영이 실현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다고 하시면서, 가마 재조사와 퇴적구릉의 단면 조사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자가 발표문을 받은 시점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그 실마리를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가마의 좌·우측 폐기장 위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폐기장은 가마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용인 서리 요지는 폐기장의 높이는 5.6~7.8m, 남북방향의 단폭은 23m가량의 규모로, 폐기장이 가마와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마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그릇을 번조한 후 발생하는 갑발과 가마 벽체편을 버리기 위해서 높이 5.6m의 구릉을 올라가야 하고, 또한 1~2층에 있는 폐기물이 가마쪽으로 흘러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1~2층의 일부는 가마가 폐요된 후 후대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측 퇴적구릉의 갑발의 퇴적 양상입니다. 갑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갑발을 던져서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폐기된 갑발은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갑발도 다수 발견됩니다. 토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퇴적구릉을 실견하였을 때 2층에서는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갑발이 발견되는 반면, 5층에서 이러한 갑발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특히, 5층의 제일 밑에 있는 갑발은 대부분 아주 작은 편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작게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인 서리 요장의 유적 구성과 경관 복원에 대한 이해

이종민 | 충북대학교

I 목차

- I. 머리말
- II. 용인 서리 요장의 유적 구성과 분석
- III. 요장 운영 당시의 경관과 운영에 대한 복원
- IV. 맺음말

I. 머리말

용인에는 고려시대에 운용되었던 자기 가마터가 몇 곳이 알려져 있다. 그중 학계에 소개된 예로는 서리 중덕마을에서 고려 초기에 청자와 백자를 생산했던 가마터가 있고, 상반마을에도 성격이 유사한 가마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서리 도장골과 사기막골, 보정동에서는 고려 중기의 청자가마터와 백자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보정동과 동백동, 영덕동 일대에는 도기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가마터는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 23-1번지 등(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7)에 위치한 ‘용인 서리 중덕 백자요지’이다. 이 요장은 호암미술관에서 1984년, 1987년, 1988년의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전모가 확인되었고, 학술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1989년 1월 14일 국가사적 제329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용인시에서는 이 사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재)서경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하여 가마 및 퇴적,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사발굴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6월에 1차 시굴조사,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차 발굴조사, 2023년 10월부터 24년 5월까지 5차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2025년 3월 말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마 퇴적구릉에 대한 시굴과 가마유구 재노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표 1).

〈표 1〉 용인 서리 중덕 요장 발굴조사 일정 개요

구분	일시	주요 조사내용
1차조사	1984.11.19.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범위 확인 • 토축요 노출, 건물지 발견 • 전체적인 가마위치 추정
2차조사	1987.10.15.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토축요 노출 83m • 전축요 존재 확인 • 퇴적구 연속 층위 조사
3차조사	1988.05.06. -0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내부 하부조사 • 전축요 외벽 연장조사 • 퇴적구 층위조사
4차조사	2021.06.10. -2022.0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건물지에서 건물 2동 확인 • 2차 건물지 동서에서 담도시설, 출입시설, 건물지 2동 확인 • 3차 건물지의 석축, 담도시설, 건물지 4동 확인 • 보개 매장지 및 석렬유구, 수혈유구 확인
5차조사	2023.10.18.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지와 하천에 연결한 1, 2구역 조사 • 석렬유구 5기, 추정 건물지 2기, 폐기장 5기,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2기, 갑발유구 1기 등 16기 확인
	2025.03.28.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유구 재노출 • 남쪽 퇴적구릉 단면 시굴 • 남쪽 퇴적구릉은 너비 23m, 높이 5.6m, 5기층 확인

이처럼 용인 서리 중덕 요장에 대한 고고학조사와 관심이 지속되는 것은 국내에 존재하는 각종 생산 유적 중에서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학술적인 중요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마관련 유구의 필수요소인 가마, 퇴적구는 물론 고려의 생산 유적에서 보기 쉽지 않은 건물지 등의 유구들이 양호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 요장의 조사결과는 많은 고려시대 가마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이후 최근까지의 사·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다양한 유구에 대해 양상을 파악하고, 운영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어떻게 가마를 운영했는지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재 가마유구는 아직 조사중이기에 가마의 축조방식과 과정, 가마와 층위별 퇴적구와의 관계, 노출된 각종 유구의 성격과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유구간의 불분명한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Ⅱ. 용인 서리 요장의 유적 구성과 분석

용인 서리 중덕 요지 조사에서 확인된 각종 유구들은 1980년대에 발굴조사로 보고된 유구에 비해 2020년 이후 최근까지의 조사된 유구의 사례가 훨씬 많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조사의 경우 가마와 폐기물 퇴적 유구가 조사의 중심이 되었던 반면, 2020년대 이후의 조사는 인근에 분포하던 민가를 구입해 폐기시키고 주변지역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조사 직후 현장보존을 했던 가마와 폐기물퇴적은 그대로 있었지만, 2020년 이후 발굴에서는 그동안 민가의 기단층 밑에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건물지 등의 유적이 추가로 발굴되면서 서리 중덕 요장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성격에 따른 각 유구의 내용을 서술, 분석하되 조사가 덜 이루어진 가마유구와 퇴적층은 1980년대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건물지 등 기타유구는 최근에 확인된 사례를 활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마 유구

용인 서리 중덕마을의 가마 유구는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방향은 1980년대에 3차에 걸쳐 호암미술관의 조사에서 확인했던 토축요의 전체적 윤곽을 그대로 노출시키는데 있다. 이밖에 하부에 존재하는 전축요의 위치파악과 상태까지 확인하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1980년대에 조사됐던 가마유구에 대한 정보는 1987년 8월에 발간된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과 2003년 9월에 발간된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I』, 그리고 1990년 12월에 개최된 제1회 동원기념학술대회의 대주제인 <한국 청자 발생에 대한 제문제>에서 당시 호암미술관 부관장이었던 김재열이 보고한 「龍仁 初期 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에 실린 내용이 전부이다. 가마유구에 대하여 1987년의 보고서에는 1차 발굴조사에 대한 부분적 정보만이 게재되어 있어 전체 규모에 대한 서술이 없는 상황이고, 2차 보고서에서는 2차, 3차 조사에서 드러난 가마유구의 설명이 소략되어 있다. 따라서 그나마 1~3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1990년 학술대회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2차 보고서의 고찰편에 실려 있는 유적개황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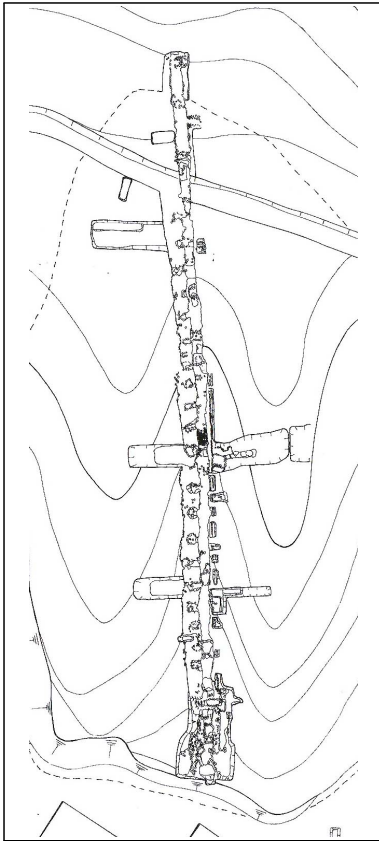
용인 서리 요장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자 연구사의 쟁점

기왕에 보고서와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통해 가마의 전체적인 현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표 2> 1~3차 발굴조사로 확인된 용인 서리 가마의 제원표 (단위 m)

구분	(잔존) 길이	(잔존) 너비	(잔존) 요벽높이	요상 경사	봉통 길이	변조실 길이	측면 출입구數	출입구 간격
토축요	83.26	1.2~1.5	1m 내외	약 11°	5.7	66.5	23개	2.5~3.0
전축요	40	1.8	1.4	/	/	/	/	/

* 2차 보고서(2003), p. 185의 <표>를 참고하여 재 작성함



<도면 1> 1980년대 호암미술관의 용인 서리 중덕요지 1~3차 발굴조사 평면도



<그림 1> 용인 서리 중덕요지 토축요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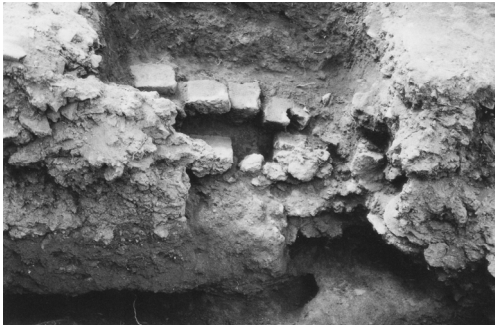
상기의 <표 2>는 용인 서리 중턱의 가마의 축요재별 가마의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가마 조사에서는 토축요가 먼저 확인되었다. 토축요는 최종단계에 진흙과 갑발을 사용해 축조했으며, 구조는 봉통부, 번조실, 초벌실의 구분이 가능할만큼 잘 남아 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각 부위별 제원을 보면 상부에 노출됐던 토축요의 전체 길이는 83.26m로 국내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가마유구까지 포함하여 가장 긴 길이를 갖고 있다(도면 1, 그림 1). 조사 당시 가마의 장축방향은 남북자오선에서 N58°E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후술하겠지만 토축요는 전축요를 폐요하고 축조하였으며, 처음에는 30~40m의 가마를 (위 아래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다, 마지막에는 이를 모두 연결시켜 초대형 가마를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湖巖美術館 2003: 24).

발견된 봉통부는 모두 8개로 그 길이는 1.8~5.7m에 이르는데 이는 수 차례의 개축을 거치면서 가마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번조실은 바닥기울기 11°에 길이는 66.5m에 이르며, 가마 내벽은 원통형갑발을 쌓고 진흙을 사이에 채우는 방식으로 축조하고 있어 유리질화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가마 상부의 요벽 끝 약 11m 구간은 갑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온도가 낮아 초벌실로 추정할 바 있다. 그리고 가마내벽의 너비는 초벌칸이 다소 넓어 1.2~1.5m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 11m의 구간에 대해 피열 상태를 기준으로 초벌실이라 추측한 것은 당시 가마발굴조사의 경험축적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일리있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2025년의 조사에서 보다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와 함께 토축요는 가마의 좌측(북편)에 23개의 측면출입구를 갖고 있었으며 요상의 최상층부터 약 30cm 가량의 모래바닥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가마바닥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퇴적의 최상층부 유물과 일치하고 있어 마지막 폐기층이 주로 좌측퇴적의 상부를 이루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전축요는 2차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3차조사 과정에서 대략의 위치 추정이 가능했다(그림 2, 3). 1980년대의 발굴조사는 전축요의 전부를 발굴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전축요의 처음과 끝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전축요는 1번 출입구와 16번 출입구의 하부에서 발견된 것을 근거로 길이는 약 40m에 이르며, 내벽너비는 1.2~1.8m에 이르는 규모를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21번에서 23번 출입구 사이 하부에서는 전축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전축요의 규모추정에 도움을 주었다. 이를

보면 전축요는 최종노출된 토축요의 봉통부와 번조실 하단부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토축요 하부의 전축요



〈그림 3〉 토축요 하부의 벽돌축조 상태

2차 보고서에서는 전축요의 내벽 너비가 1.2~1.8m라고 보고하였는데 이 정도의 운영과정에서 토축요로 전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전축요의 폐요소점을 보면 최종 가마내벽은 약 90cm까지 줄어든 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토축요보다 전축요의 내벽 너비가 넓다고 되어 있어 상당부분 전축요의 상부구조를 해체, 정비하고 평탄화시켜 토축요로 개축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축요에 대한 조사는 토축요를 파손시킬 수 없어 하부구조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이 조사결과는 국내에 전축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알려줌으로서 초기청자의 연구에 결정적인 물고를 든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2. 폐기물 퇴적 유구

용인 서리 중덕 요장에서 폐기물 주퇴적이 쌓인 곳은 가마유구를 중심으로 좌우변, 즉 남쪽과 북쪽에 가마의 장축방향을 따라 길게 위치해 있다. 가마 측면의 폐기물 퇴적 유구는 그 높이만도 5~6m에 달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요장에서의 폐기물 퇴적량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곳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이 가마의 운영기간과 양식변화, 가마구조의 변화와 폐기물층 형성과정의 관계 등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마 정면에서 바라본 폐기물층은 가마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분포하고 있어 마치 M자형을 이루는 듯하며, 특정한 시기에 좌, 혹은 우측면에 폐기물을 순차로 버리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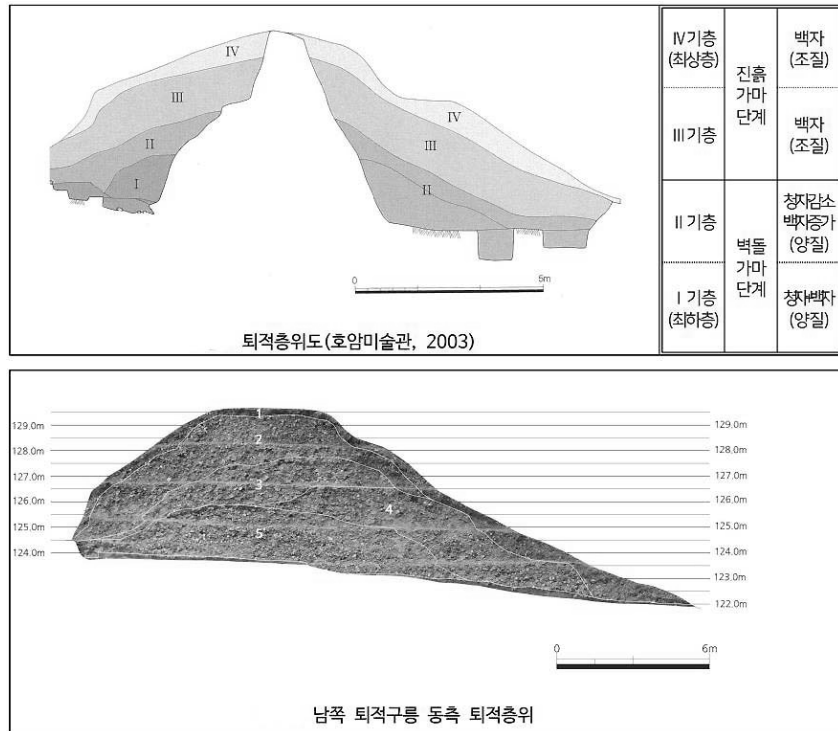
퇴적구 조사는 모두 여섯 곳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2차 조사에서 W1S1, W1S2, W2S3 그리드에 pit 조사를 실시했고, W1N1, W2N1에서는 절개조사를 진행했으며, 3차조사에서는 E1N1 지역에서 자연층위를 확인하였다. 이들 중 퇴적두께가 두껍고 안정층에 해당하는 곳은 W1N1, W2N1, E1N1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팀은 크게 4개의 층위를 확인했으며, 최초의 퇴적층은 2개로 세분하여 모두 5개의 층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표 3> 퇴적 층위별 현황과 핵심적인 출토 유물(2003 보고서 pp. 185-189. 인용)

구분	내용	자기유물 양상	요도구
I기-a층	가장 이른 층. 가마 우측(남편) 중심. 두께 2m. 소수 벽돌편 발견.	청자중심. 백자없음. 완, 발 중심 올리브그린 얇은 시유. 선해무리굽(내저곡면+옥환저). 백색내화토 4~7개. 발은 철소, 완은 단소	정선된 태토로 만든 얇은 갑발. 원통형 갑발, 갑발받침
I기-b층	전축요 단계	청자+백자 발견. 기종다양. a층과 유사. 선해무리굽(내저곡면+옥환저). 백자기형 및 상태 청자와 동일. 잔과 접시 소량 백자제작. 화형접시 보임.	위와 동일. 원통형 갑발, 갑발받침
II기층	가마 좌우측(남북편)에 분포. 백자중심가마로 전환한 단계.	청자 소량. 백자 완, 발, 화형접시, 잔 및 크기를 달리하는 각종 각종 생산. 경질백자 보임. 접시수량 증가. 화형접시 증가. 과도기형 완 제작(내저곡면+옥벽저). 백자는 미색, 담록, 담청색	갑발 얇고 크기 작음. 원통형 갑발, 갑발받침
III기층	가마 중앙 좌우측에 분포. 갑발편+다량 백자편 수집.	청자 극소량. 백자 기종 다양. 기종은 발, 완, 대접, 접시, 병, 잔, 잔탁, 합. 단일기종으로 해무리굽완(내저원각+옥환저) 가장 많음. 기벽 두꺼워짐. 일부 선해무리굽 잔존. 백자는 유색 다양. 청유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경질백자에 선상감, 면상감의 흑상감 확인. III기층 상단부에서 퇴화해무리굽완 다량 출토. 완의 지름과 접지면 폭 작아짐.	갑발 두껍고 표면 거침. 원통형, 심발형 갑발, 갑발받침, 고리받침?
IV기층	가장 늦은 층. 요장 전면에 분포. 퇴적량 가장 많음	백자중심 생산. 기종은 발, 대접, 완, 접시, 종지, 합, 병, 타구, 잔, 잔탁, 항아리, 제기 등. 완, 대접, 접시, 종지 수량 많음. 대형그릇, 제기류 확인. 태토 거칠고 잡물섞임. 부분시유와 포개구이 다수. 지지분한 백색내화토 받침. 퇴화해무리굽완 중심. 대접과 완의 구연 내면 상단에는 음각형선대. 장고 등에 철화 등장. 가마내부 요상에서는 IV기층과 동일한 유물 발견.	두껍고 거친 갑발. 원통형, 심발형 갑발, 갑발받침, 원반형도침, 원통형 도침, 고리받침?

2003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 서리 중덕 가마의 폐기물은 1단계 : I기-a층(좌측) → 2단계 : I기-b층(양측) → 3단계 : II기층(양측) → 4단계 : III기층(양측) → 5단계 : IV기층(가

마유적 전체) 순으로 퇴적된 것으로 서술하였다(湖巖美術館 2003: 185-189)(도면 2의 상). 이를 보고서대로 해석한다면 가장 먼저 가마 좌측(북편)에 측면출입구를 내고 좌측에 퇴적이 쌓였으며, 이후에는 가마의 좌우측에 골고루 퇴적이 쌓인 것처럼 이해된다.



<도면 2> 호암미술관 발굴 퇴적층위도(상)와 2025년 남쪽 퇴적구릉 동측 퇴적층위(하).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정밀발굴조사 및 2차 시굴조사 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p.13. 인용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오류가 있다. 보고서의 언급처럼 우선 초축단계의 폐기물은 분명히 가마의 좌측(북편)에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서는 I기-a층이 가장 이른 폐기물 유적이며, 가마의 좌측에서 주로 발견되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랜기간 한쪽에만 측면출입구를 두고 요업을 지속하면 폐기물의 높이는 상당량에 이르고, 폐기물들은 측면출입구의 활동 공간쪽으로 밀리면서 이동과 운영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로 일정한 시간이 흘러 가마의 보수여건이 발생하면 개축과정에서 측면 출입구를 막고 반대 방향으로 신설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유사한 요업방식을 갖고 있는 시흥 방산동 요지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海剛陶磁美術館 2001: 159-163).

결과적으로 용인 서리 가마의 측면 출입구는 최소 한 번 이상 우측(남측)으로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마의 우측(남측)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폐기물층은 바로 측면출입구가 반대쪽에도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토축요의 마지막 요업단계에는 가마의 좌측에 측면 출입구를 만들어 사용하다 폐요되어 이것이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도면 1). 따라서 보고서에 불분명하게 수록된 폐기물층의 형성과정은 가마의 추가조사에서 밝혀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폐기물 퇴적유구 조사와 관련하여 2025년의 조사는 가마의 우측(남측) 하단부 1/3지점에 대형 트렌치를 넣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원래는 우측 상단부 1/3지점에도 트렌치를 넣고 자 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우측 퇴적구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는 퇴적물의 상부를 장축방향으로 크게 절개하여 하강하되, 붕괴의 위험을 막기 위해 표고가 높은 쪽 방향(동편)은 계단형으로, 낮은 쪽 방향(남편)은 사면으로 절개했고, 최종 구지표면은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퇴적구 조사는 지난 예전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을 제거했으며, 조사결과 폐기물의 퇴적층위와 유물양상은 1980년대의 조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도면 2의 하).

3. 건물지 등 기타 유구

생산유적 주변에는 가마, 퇴적구 외에 건물지나 각종 수혈 등 성격을 달리하는 유구들이 공존한다. 이는 요업이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다양한 공정에 따라 지속되므로 연동되는 관련 시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요장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가마의 아래쪽(서편) 평지에 해당하는 E2S4, E3S4 E4S4, E4S4, E2S5, E3S5 등 다섯 개의 그리드에서 세 개의 건물지가 확인된 바 있다. 조사결과 교란되거나 뜬 돌을 제외한 세 개의 건물지는 선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湖巖美術館, 1987: 32-38).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도면에서 파란 색으로 칠해진 1차 건물지는 얇은 갑발편을 섞어 다진 토층을 파고 적심을 묻은 가장 이른 건물지이다(도면 3). 이 유구는 층위파악에서 가마 초축당시와 관련 있는 건물지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잔존상태와 연장지점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모는 확인이 불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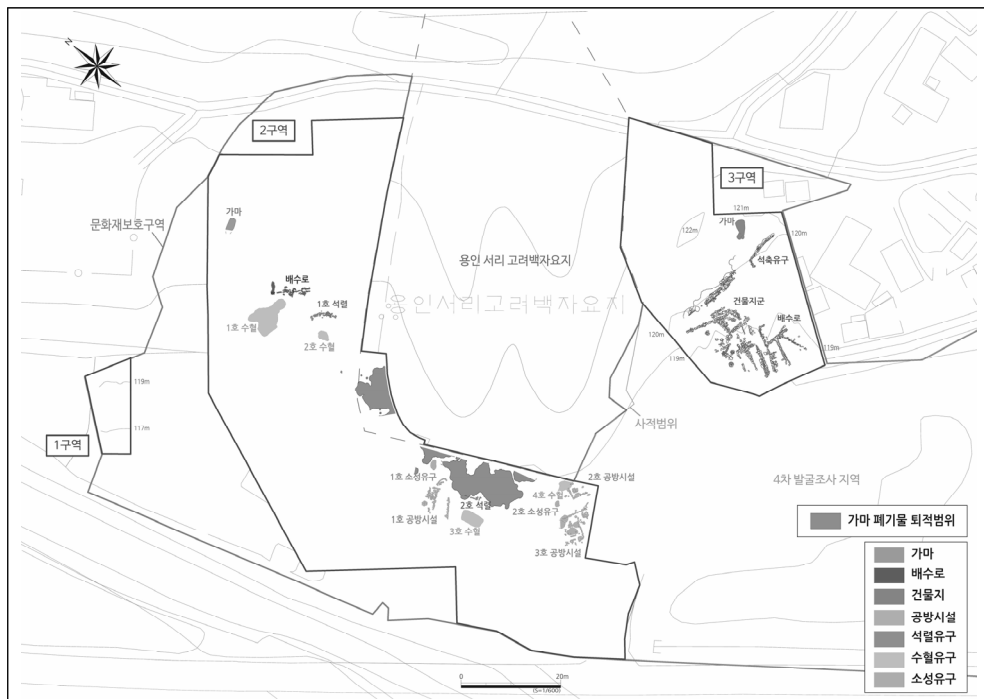
노란색을 띠는 2차 건물지는 1차 건물지 폐기 후 형성된 것이며 모두 다섯 개의 적심이 확인되었다(도면 3). 이 역시 상당부분 결실되어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나 장축은 정남북을 향해 있고 측면 2칸에 정면은 최소 3칸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각 칸은 동서 2.8m×남북 3.0m로 칸당 면적은 8.4m² 가량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지의 운영시기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토층과 출토유물로 추정할 때 과도기형 해무리급완(Ⅱ가유형 C식급형완)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湖巖美術館, 1987: 34-35). 구체적 조성시기는 과도기형해무리급완보다 빠르고(선해무리급완 시기), 폐기는 과도기형해무리급완의 늦은 시점이거나 Ⅱ나유형 초(한국식해무리급완) 단계로 보았다.

2차 건물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백색점질토 저장유구’이다. 이 유구는 토층상 2차 건물지 폐기 이후 3차 건물지가 들어서기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백토저장유구는 건물지의 동남부 방향에 석축열을 2~3단 쌓은 구조물 속에서 너비 0.8~1.1m, 두께 10~15cm의 백색점질토 덩어리 형태로 노출되었다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 구조물은 유약이나 태토 저장시설로 보고 있다.



〈도면 3〉 건물지 유구 평면도

분홍색으로 구분된 3차 건물지는 이 구역에서 확인된 최후의 시설물이다(도면 3). 3차 건물지는 다수의 적심이 2차 건물지와 유사한 방향을 갖고 있으나 장축이 북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 양상으로 구분이 되며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 柱間거리는 남북 3.5m×동서 3.0m 가량되는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지는 3차 건물지의 조성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Ⅱ나 유형완(한국식해무리급완)의 제작시기 이후이며, 이곳에서는 조선 후기 백자편들이 발견되 기도 하여 가마유구와 관련이 없는 후대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도면 4〉 건물지 등 기타 유구 계획 및 평면도

이제 2020년대에 4, 5차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건물지 등 기타 유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마와 퇴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조사는 4차조사에서 가마의 우측 하단(남쪽)을, 5차 조사에서 가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중 2, 3 구역을 노출시켰다(도면 4).

발굴 결과 4차조사에서는 8동의 건물지와 각 건물지 사이의 이동로, 출입시설, 석렬유구, 수혈유구, 簾·簾 집중 노출지역,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그림 4). 특히 건물지는 3차의 중복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전체적으로는 Ⅲ기층 출토 백자(한국식해무리급완, 퇴화해무리

급완)들이 동반되어 연대 비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건물지에서는 기와류, 도기류 등도 함께 수습되어 이곳이 생산의 관리와 생활을 함께 했던 공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건물지의 잔흔은 장축이 길쭉한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어 공간이 여러 칸으로 구획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이밖에 E11S3 그리드에서 노출된 폐기장 내부에서는 양질의 선해무리급완과 전축요 단계의 갑발들이 발견되어 4차조사 범위에서는 가장 이른 유구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E4S3 그리드의 건물지 외곽 밖에 존재하는 구덩이로 이곳에서는 簠와 簋 20점 가량이 확인되면서 눈길을 끌었다(그림 5). 제기들은 갑발, 할석 등과 함께 넓지 않은 원형구덩이에서 밀도있게 발견되어 이 장소가 제기를 선별하고 폐기했던 공간이 아닌가 추측된다. 특히 이 제기들은 30~34cm의 높이를 가진 큰 기물들로 퇴적구 Ⅲ기층 출토의 제기와 유사하여 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22.04: 45-46).

5차 조사가 이루어진 2구역은 가마의 좌측과 봉통부 쪽에 ‘L’자처럼 휘어진 공간에 해당한다(도면 4의 왼쪽과 중앙 하단부). 이곳에서는 공방시설 관련 건물지, 토취장(또는 연토장) 추정 수혈유구 4기, 부뚜막 등 소성유구 2기, 성격 미상의 석렬유구 3기, 추정 도기가마 1기, 폐기물로 대지를 성토한 퇴적구 등이 확인되었다. 중요한 것은 석재를 활용한 물레공, 갑발열과 판석을 활용한 건조시설, 부뚜막 시설 등 공방시설과 작업공정 관련 부속 시설로 판단되는 사례들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그림 6, 7). 여기에서 공방시설과 석렬유구들은 가마의 폐기물층을 정리하고 그 위에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습유물의 비교에서 이들 공방유구들은 대부분 전축요 단계 직후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3구역은 가마의 우측, 동남부쪽에 있는 지역이다. 3구역에서는 가마 관련 건물지 5동, 태토 수비와 관련된 석렬유구 1기, 담장지 추정 석축유구, 보도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기와가마 1기, 석축유구, 배수로 등도 노출되었다(그림 8). 이곳은 훼손이 심해 명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중복양상을 볼 때 건물은 최소 3차 이상 반복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북동-남서 중앙을 가로지르는 담장시설은 건물지의 담장 역할 뿐 아니라 가마를 둘러싼 공간을 경계짓고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시설로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24.07: 46).

이상의 내용을 통해 가마와 퇴적구 주변에서 조사된 각종 유구들의 성격을 보면 가마의 서쪽에 해당하는 2구역과 남쪽의 3구역에서 공방시설과 관리동 등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이

해된다. 다만, 시기적으로 전축요 운영시기에 해당하는 건물지나 공방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 조사된 지역에 대한 면밀한 해석이 동반되어야 더 정확한 용도와 운영시기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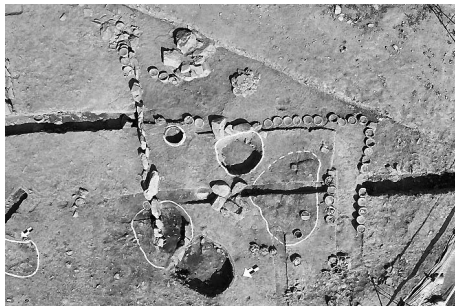
〈그림 4〉 4차 발굴조사지역 평면 사진



〈그림 5〉 4차 발굴조사지역 보·괘 출토지



〈그림 6〉 5차조사 2구역 2호 공방시설 건물지



〈그림 7〉 5차조사 2구역 3호 공방시설 전경



〈그림 8〉 5차조사 3구역 담장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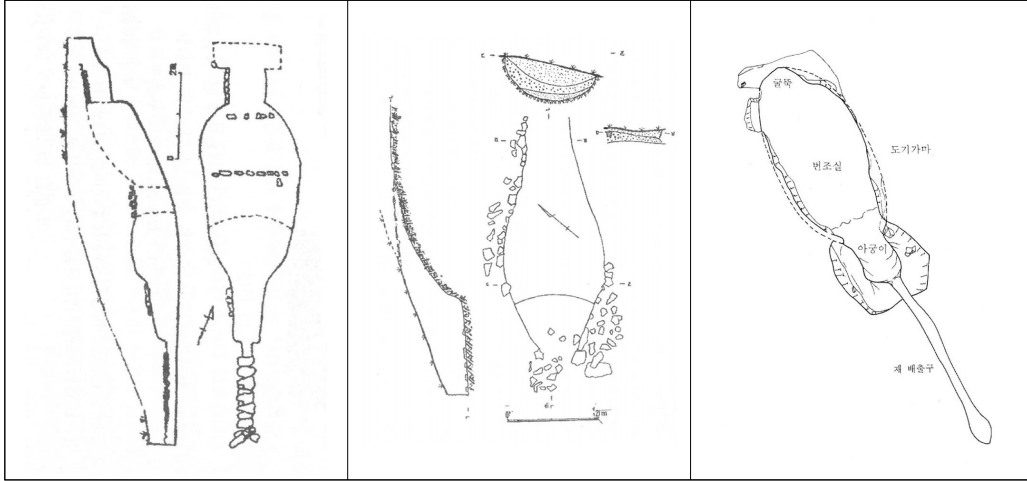
Ⅲ. 요장 운영 당시의 경관과 운영에 대한 복원

지금까지 1980년대와 2020년대에 발굴조사가 진행된 용인 서리 요장의 여러 유구들을 살펴보았다. 가마터는 천정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퇴적층이나 건물지 등도 교란되었거나 사라진 경우가 많다. 서리 요장은 다행히도 중복관계가 복잡할 뿐 가마, 퇴적구, 건물지 등의 다양한 유구들이 잘 남아 있어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해석에 있어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마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추정하여 복원해보려 한다.

1. 요업환경

그러면 서리 중덕마을의 요장은 어떤 입지를 갖고 있으며 왜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요업을 했을까? 이는 자연조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리 가마가 위치한 곳은 중덕마을에서 40m 이상의 가마를 일정한 각도로 안착시키기에 비교적 안정되고 긴 사면을 가진 지형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마가 위치한 지형은 좌우 퇴적이 쌓인 곳보다 살짝 높에 솟아 가마를 올리기에 매우 적합하며 폐기물이 다량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변의 산림은 울창하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꽤 깊은 산중에 속해 번목의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마의 아랫방향(서편)에는 공방이 위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탄면을 갖추고, 인근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요장의 운영에는 최적의 조건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이 가마를 이곳 저곳으로 옮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생산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자기가마의 운영 이전에 이곳에 이미 도기가마가 먼저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에서 알려진 것처럼 서리 가마는 전축요에서 출발하여 토축요로 축요방식을 바꾸어가면서 장기간 운영된 요장이다. 그런데 중국계 가마인 전축요가 입지하기까지 이 곳에서는 먼저 도기가마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요업환경을 갖는 예로는 배천 원산리 요지, 봉천군 봉암리 요지, 시흥 방산동 요지를 참고할 수 있다.



〈도면 5〉 좌 : 배천 원산리 1호 도기요지 중: 봉천 봉암리 2호 도기요지 우 :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

배천 원산리에서는 4기의 요지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2, 3, 4호는 청자가마였으며 1호가 도기가마였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306-321)(도면 5의 좌). 발굴자는 1호 도기가마에서 출토된 도기양식을 고구려 도기와 비교하면서 자기의 기원을 고구려로 해석했으나(김영진 1991: 18-28) 이는 단선적 판단에 의한 오류였다. 봉천 봉암리 요지의 경우는 모두 5기의 가마가 조사되었는데 1호만이 청자가마였으며, 2~5호까지는 도기가마였다(김영진 2002: 33-78)(도면 5의 중). 주목되는 것은 시흥 방산동 요지인데 청자와 백자를 생산했던 가마 바로 옆에 도기가마가 발견되었으며(도면 5의 우) 두 가마 사이의 퇴적층 조사에서 도기가마가 전축요에 선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해강도자미술관 2004).

이상의 사례를 보면 국내의 전축요는 도기가마가 운영되던 곳들을 선택하여 인적 자원을 흡수하면서 자리잡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용인 서리 요장은 아무 연고없이 이 장소에서 요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기요업이 진행되던 곳을 선택하여 가마를 운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서리가마터 주변에서는 선행하여 도기요업을 진행했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는 서리 요지 외곽지역에서 도기가마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노출된 바 있으므로 향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실제 가마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마의 축조방식

이제 용인 서리 가마의 축조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전축요의 경우는 자료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1, 2차 보고서에서 그 단서가 확인된다. 이 가마는 7×15×32cm의 장방형 벽돌, 혹은 이보다 작은 벽돌을 혼용하여 생토층을 50cm 깊이로 파고 벽돌을 쌓아 구축했으며, 외부는 진흙을 발라 마감했다. 또한 가마벽은 2열로 되어 있어 최소 한차례 이상 대대적인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전축요 세부



〈그림 10〉 토축요 세부



〈그림 11〉 갑발을 활용한 측면출입구



〈그림 12〉 강진 용운리 10-4호 요지.
고려청자박물관. 강진

보고서에 의하면 전축요의 바닥은 진흙가마가 위치한 구지표의 약 1.4m 아래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湖巖美術館 2003: p.25).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축요의 바닥은 초축의 바닥면인지, 최후의 바닥면인지 서술이 불분명하다. 다만 <표 2>와 마찬가지로 보고서에서는 전축요의 높이를 1.4m로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축요의 외벽 높이를 확인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의 추가조사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토축요는 전축요를 폐기시키고 최종 단계까지 운영한 가마이다. 가마는 수차에 걸쳐 흙을 안으로 덧대는 방식으로 가마를 보수해 사용했으며, 최종 단계에는 빈 원통형 갑발들과 진흙을 이용해 내벽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10). 현재 가마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깊이가 약 1m에 이른다. 특히 가마의 상부, 즉 초벌공간 쪽에 가까운 부분은 진흙의 자화도도 떨어지고 갑발이 그대로 노출된 부분이 많아 온도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전축요의 천정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토축요는 가마 내부의 폐기물에서 진흙을 발라 공룡형 아치를 돌린 것으로 판단할만한 흔적들이 발견되어 가마의 축조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토축요의 길이가 83m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한 내용은 다른 전축요계 토축요의 길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역시 추가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과제이다.

가마의 좌측(북편)에서 노출된 측면출입구는 평균 2.5~3m의 간격으로 모두 23개가 확인되었다. 출입구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진흙으로 마감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갑발을 쌓아 활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1).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리에서 가마를 축조하는 과정을 유추해보자. 가마는 조성 이전에 가장 먼저 긴 경사면의 바닥을 일정한 각도로 다지고 지표면을 파내려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축요재는 장방형의 진흙 생벽돌을 짚어 가마 방향으로 가로쌓기를 한 다음 외면과 구지표 절개면 사이는 진흙을 채워 다졌을 것이다. 지상으로 노출된 천정은 가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벽돌을 모쌓기 하여 공룡형으로 정비한 다음 가마내부에 불을 세계 올려 가마를 고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전축요는 개수과정에서 내벽면의 경우 깨진 벽돌을 재활용한 경우가 많으나, 천정부에는 부스러진 벽돌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싸리를 덧댄 진흙을 발라 공룡형으로 마감하고 가마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배천 원산리 2호에서는 천정을 마감한 싸리흔적의 진흙 소토더미가 가마내부에서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게 해준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311).

토축요의 조성은 전축요의 상부를 뜯어내고 전축요의 최종바닥을 정지한 다음 갑발과 진흙으로 축조했을 것이다. 그런데 토축요의 축조과정에서 처음부터 원통형갑발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서리 가마의 최종 보수단계에서 갑발을 활용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갑발을 활용한 축조방식은 비록 봉통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강진 용운리 10-1호(국립광

주박물관 내)와, 10-4호(강진 고려청자박물관 내)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양자간의 축조방식에 상관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그림 12).

3. 생산량 감소와 축요방식과의 관계

서리 가마는 한 위치에서 축요재를 바꾸어가면서 상당한 시간동안 요업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최대 높이가 6m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퇴적구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갑발의 적재와 전축에서 토축으로의 축요재 변화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여기에서 시흥 방산동 가마의 초기 요업단계와 최후 단계의 산술적인 생산 추정 값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흥 방산동 가마는 전축요를 개설한 초기에 번조공간이 길이 25.5m×너비 2.2m의 규모를 갖고 있었으며, 약 30cm의 갑발지름을 고려했을 때 가로 7열×세로 95열을 배열할 수 있었다. 또한 갑발은 각 열마다 5단쌓기가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를 곱해보면 한번에 적재 가능한 갑발은 3,325개였다. 그러나 보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마가 길이가 줄고 좁아지면서 전축요 최후 단계에는 번조공간이 길이 25.3m×너비 0.9m로 줄어들었다. 이 상황에서 적재할 수 있는 갑발의 수량은 가로 3열×세로 84열에 5단쌓기를 지속했다는 가정하에 1,260개로 현저히 줄어든다(海剛陶磁美術館 2001: 168의 표 77).

이러한 적재방식은 서리 요장의 전축요 단계도 거의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마는 운영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산량이 줄고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서리 가마도 같은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전축요를 폐기하고 토축요로 변화된 중요한 이유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축요재도 문제가 있다. 전축요는 내구성이 강한 가마임에도 마지막 단계에는 부스러기 벽돌과 진흙으로 가마를 보수·유지해야 하므로 새로운 곳에 전축요를 개설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운영은 불가하다. 따라서 재활용 벽돌을 활용한 가마의 보수 보다는 벽돌을 뜯어내고 평탄화시킨 후 가마바닥을 넓힌 새로운 토축요를 신축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유리한 판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토축요는 요장주변에서 진흙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어 가마보수가 편리하고, 자기를 굽는 과정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방법이 선호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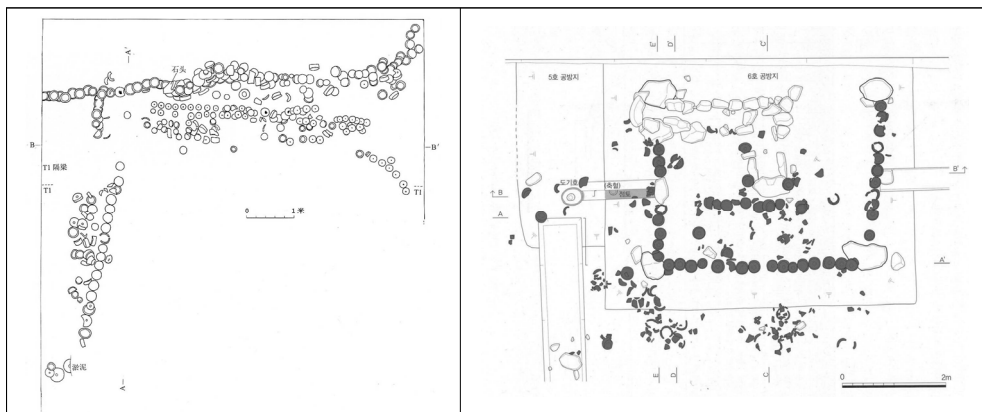
4. 공방의 운영과 관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리 중덕 요장의 가마 주변에는 다양한 성격의 유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유구로는 공방시설과 건물지이다. 먼저 공방시설의 경우는 5차 조사가 이루어진 2구역에서 3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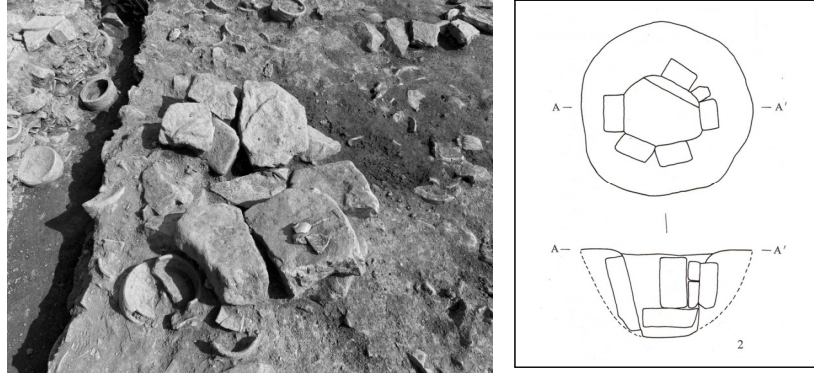
이중 1호 공방시설의 경우는 기단석축과 ㄱ자로 꺾인 2열의 갑발유구, 판석시설, 물레공 추정유구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13). 특히 중앙부의 직사각형 판석시설은 ‘ㄱ’자로 꺾인 2열의 갑발유구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갑발유구를 활용한 공방 운영 후 성토하고 판석시설과 물레공 등을 설치하여 공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갑발유구는 중국 절강성 사룽



〈그림 13〉 5차 발굴조사 2구역 1호 공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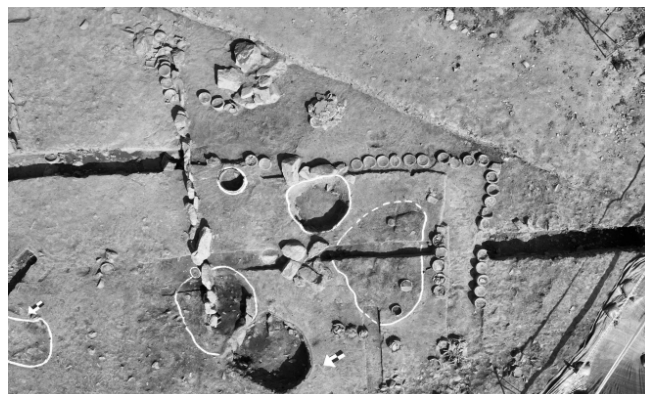
〈도면 6〉 좌 : 사룽구 월요 직방 갑발열, 우 : 고창 용계리 요지 6호 공방지 갑발열



〈그림 14〉 2구역 1호 공방유구 추정 물레공 〈도면 7〉 사롱구 월요 물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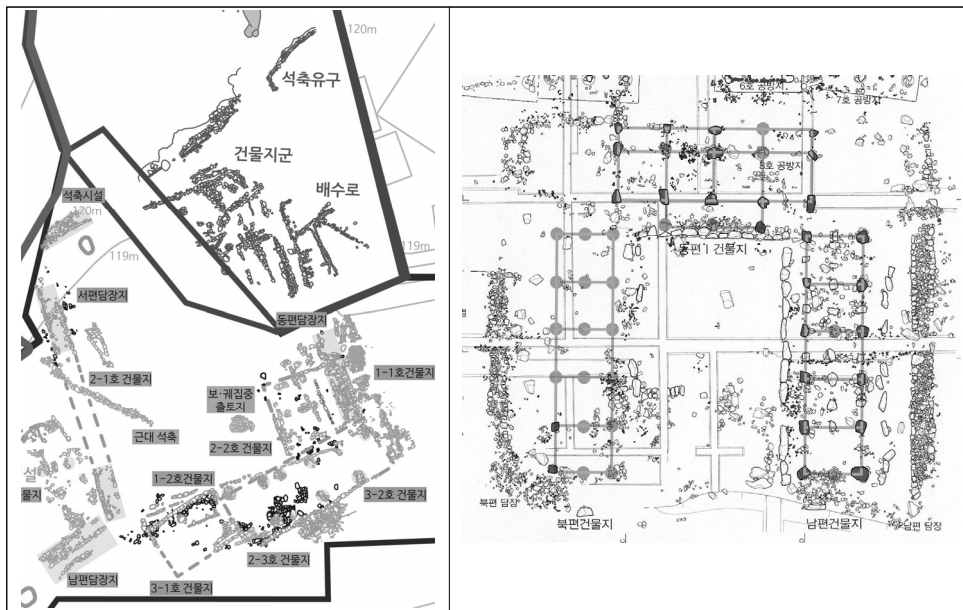
구(寺龍口) 월요(越窯)의 작방(作坊)(도면 6의 좌), 그리고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공방시설 중 6호 공방지(도면 6의 우)가 갑발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공방의 담장 역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호 공방시설의 물레공 추정유구는 절강성 사롱구 월요의 작방에서 발견된 물레공[柱洞]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같은 성격의 유구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도면 7).

상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2구역 3호 공방지의 경우는 1호 공방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더 구체적인 시설들이 남아 있다(그림 15). 이 유구에서 확인되는 ‘ㄱ’자로 꺾인 갑발열은 공방지 담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서로 놓인 석열과 연접한 곳에는 피열흔이 있어 봉뢰[강제로 그릇을 말리는 시설]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또한 서너 개의 수혈은 수비공으로, 공방유구 내부에서 발견된 도기호는 유약통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5〉 5차 발굴조사 2구역 3호 공방시설

이러한 공방시설들의 구조물들을 정리해 본다면 공방은 먼저 갑발열을 활용하여 사각형에 가까운 공간을 구획하고 그 내부에 수비, 물레를 활용한 성형, 정형한 기물을 강제로 말리는 봉로시설이 모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층위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석렬이 갑발열 위에 올라있는 경우로 볼 때 후차에 돌을 활용해 건물의 외곽을 조성하여 공방을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도면 8〉 좌 : 용인 서리 요장 건물지, 우 : 고창 용계리 요장 건물지

이제 요장의 관리문제를 간략히 언급해 보겠다. 요장의 관리는 가마·공방·건물축조나 보수 같은 유형적 업무 외에도 입지선정, 도공의 확보와 관리, 번목조달, 원토와 유약재료 확보, 생산품의 선별과 포장 등 모든 무형의 공정이 포함된다. 서리 중턱 요장은 가마의 규모 뿐 아니라 생산량이 많았던 가마로 적지않은 인력이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인원이 활동하는 대형 요장은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원활하게 돌아가고, 크기는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세부적으로는 공정에 따라 업무를 분업화하여 관련 직무에 종사했을 것이다.

이러한 각종 관리업무를 관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4, 5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건물지이다. 조사에서는 4차 발굴에서 8동의 건물지가, 5차 발굴의 3구역에서 5동의 건물지가 노출되었다(도면 8의 좌). 이들은 중복관계가 복잡하여 동일시기에 몇 동이 함께 운영되었

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나 요장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동을 추정해 본다면 책임자와 행정업무 공간, 정형기물 건조공간, 완성기물 적재공간, 또 숙식공간 등이 필요하다.

조사에서 노출된 각종 건물지의 활용양상을 큰 틀에서 해석해보면 4차 발굴에서 확인된 서편 담장지(이동로?)를 중심으로 건물지들은 주로 남쪽에 몰려 있다. 그중 1, 2, 3호 건물지는 각각 ‘ㄱ’형의 건물구조를 보이면서도 일부 중첩과 서로간 방향축이 맞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선별작업 등을 포함한 분류와 포장, 상품보관 등의 관리행위와 관련있는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바로 인근에서 보·궤를 선별하여 땅속에 폐기했던 집중 출토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건물지들은 적심간의 간격이 일정하고 여러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평면구조를 가졌지만 정연한 배열을 보이는 고창 용계리 요지의 건물지와 유사점이 관찰된다(대한문화재연구원 2018)(도면 8의 우).

또한 5차 발굴조사의 3구역에서 확인된 건물지군에서는 3차에 걸친 조성과정이 관찰되었는데 5기의 건물지, 용수로, 배수로, 태토수비 관련 석렬유구 뿐 아니라 갓모와 같은 도구가 확인되어 일부 공방시설을 겸했던 공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몇몇 단서를 활용하여 운영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한 해석은 다소 섣부른 감이 있으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겠다.

첫째, 가마조사는 전축요의 초축과 중축상태, 토축요의 초축과 중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국계 요업에서 새로운 형태로 요업구조가 바뀌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되므로 중요한 고고학적 단서를 제공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가마의 측면 출입구 위치변화와 퇴적층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서리 가마는 마지막 단계의 측면출입구만 확인된 상태이며, 퇴적층의 형성과정과 연관

되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세밀한 요벽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적지 주변에 있는 도기가마의 존재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확인된 다수의 초기청자 가마들은 대부분 자기가마 이전에 도기가마가 선행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자기라는 요업기술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흙과 재료, 도공 문제 등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 서리 중덕 요장은 고려의 초기청자[백자]는 물론 중기로 이행하는 과정까지 잘 보여주는 장기간 운영된 생산단지이다. 이 유적의 정보는 같은 시기를 공존했던 타 지역의 여러 가마를 이해하는데 시금석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가마유구까지 발굴조사가 마무리된다면 그동안 해석이 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창균·(재)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高敞 龍溪里 靑瓷窯址 IV』.
- 김영진, 1991, 「우리나라 자기생산의 시원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91년 4호,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영진, 2002, 『도기가마터 발굴보고』, 백산자료원(영인본).
- 三星美術文化財團·湖巖美術館,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 (재)서경문화재연구원·용인시, 2020.06,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재)서경문화재연구원·용인시, 2021.08,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 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재)서경문화재연구원·용인시, 2022.04,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재)서경문화재연구원·용인시, 2022.04,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재)서경문화재연구원·용인특례시, 2023.06,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정밀발굴조사 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재)서경문화재연구원·용인특례시, 2023.08,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정밀발굴조사 및 2차 시굴조사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재)서경문화재연구원·용인특례시, 2023.12,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5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1차)」.
- (재)서경문화재연구원·용인특례시, 2024.05,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5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2차)」.
- (재)서경문화유산연구원·용인특례시, 2024.07,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5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3차)」.
- (재)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25.03,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가마 및 퇴적구릉 정밀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2차)」.
- (재)서경문화유산연구원·용인특례시, 2025.05,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정밀발굴조사 및 2차 시굴조사 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2,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조선유적유물도감』12, 평양.
-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始興市, 2001, 『芳山大窯』.
-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始興市, 2004, 『始興 芳山洞 陶器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 湖巖美術館, 2003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I』.

토론

「용인 서리 요장의 유적 구성과 경관 복원에 대한 이해」에 대한 토론

장기훈 | (재)한국도자재단

이종민 선생님께서는 용인 서리 유적의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유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초기청자백자 가마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요업당시의 경관과 운영상황을 추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자기 발생기 연구자료가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 발표는 고려초기부터 중기 청자로 이행하는 시기 용인 서리의 요업실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자는 발표자의 관점과 논지, 대강의 발표 내용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요업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발표자께서는 긴 구릉사면과 말단부 평지, 하천을 갖춘 환경적 입지로 인해 가마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필자도 이러한 환경이 요업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은 원료와 번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선 관요의 예를 보아도 번목을 조달하기 위해 수목이 무성한 곳으로 가마를 이설하는 일이 수 세기 동안 반복되다가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번목을 구입하거나 수 세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간 번조 회수, 생산량 등이 명확치 않아 조선 관요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마의 규모로 보아 한 번 번조할 때 필요한 번목의 양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소 막연한 의문이긴 하지만 원료의 공급, 생산, 유통의 배경을 온전히 살피는 것이 요업환경을 복원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리 가마의 규모에 관한 것으로 87년 2차 조사에서 토축요는 83m의 길이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전축요를 폐요하고 축조된 토축요가 처음에는 30~40m의 가마를 위 아래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이를 모두 연결시켜 초대형 가마를 운영하였다”는 발굴자의 보고를 인용하면서도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18~19세기 큐슈 하사미 지역에서 100m가 넘는 계단식 연실 등요가 운영되기도 하였지만 이 가마는 필요한 칸만 사용하고 개보수 한 칸가마로서 용인 서리의 단실 등요와는 운영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자 역시 현재 국내 최장의 가마로 알려진 83m의 단실 등요를 한 번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좀 더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서리의 토축요와 한반도 남서부 지방의 토축요의 관계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용인 서리 토축요 출입구에 갑발을 쌓은 것과 강진 용운리 토축요 아궁이 부분에 갑발을 쌓은 것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상관관계의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였습니다. 필자 역시 두 지역간의 토축요가 일정부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서리를 비롯한 전축요계의 토축요는 전축요를 수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규모나 평면구조가 전축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축요계 토축요와 남서부 지방의 토축요가 상관관계가 있다면 남서부 지방의 토축요가 전축요계 토축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느 한쪽이 영향을 준 선후관계로 보시는지 혹은 동시기 독자적인 발전형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필자의 견해와 질의가 매우 단편적이고, 일부는 논제를 벗어난 것도 있지만 이상 세 가지 「용인 서리 요장의 유적 구성과 경관 복원에 대한 이해」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인서리요지 출토 유물로 본 도자사의 재검토

장남원 | 이화여자대학교

I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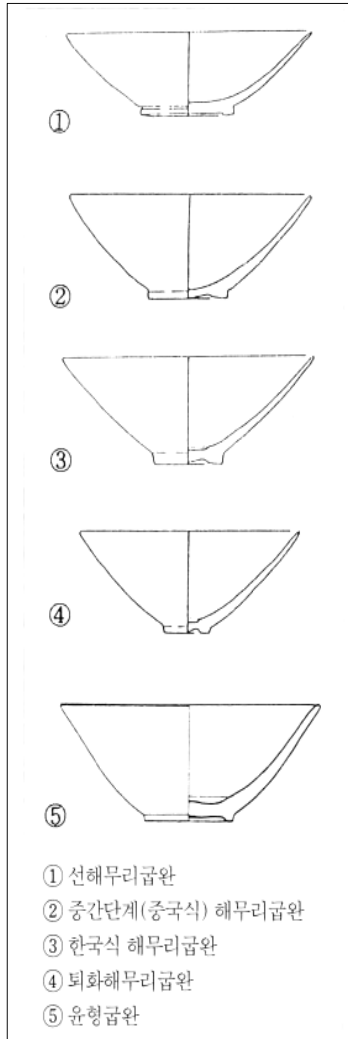
- I. 머리말
- II. 요업생산품과 제작계통
- III. 강진요업과의 관계
-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도자사에서 자기의 개시문제는 오랫동안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자 테마였다. 그 중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요지의 발굴은 논쟁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이 되어 왔다. 특히 용인서리에 대한 1984년(1차), 1987년(2차), 1988년(3차) 등 80년대의 발굴과정에서 확인되었던 토축요와 그 저부에서 확인된 전축요의 존재로 폐기물 퇴적 출토 자기류의 선후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면서 고려자기 편년사의 근거가 되어 왔다.¹⁾ 특히 가장 유사한 조업 경향을 보였던 시흥 방산동 요지와 교차 비교로 요장의 설비와 구성, 생산품 종류, 번조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시기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초 자기업의 계보와 연관성,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역 요업과의 연관성 등을 추론할 수 있었다.

1) 김재열, 「용인 초기 백자요지발굴조사보고」, 『韓國 靑磁 發生에 關한 諸問題』, 한국고미술연구소, (1990); 李鍾玟, 「시흥 방산동 초기청자 요지 출토품을 통해 본 중부지역 전축요의 운영시기」, 『미술사학연구』 228:229(2001), pp.65-97; 전승창, 용인 서리요지 출토유물 검토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2001), pp.15-32.; 이희관, 「한국 초기청자에 있어서 해무리굽완 문제의 재검토-한국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술사학연구』237(2003), pp.5-48.

II. 요업생산물과 제작계통



〈그림 1〉 초기청자 완 (이종민)

2025년 현재 (재)서경문화재연구원은 용인 서리 중덕요지에 대한 재발굴을 진행중이며, 가마퇴적 외곽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바 각 지점에서 추가로 유물이 수거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가마 유구 퇴적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²⁾ 전반적인 층위별 출토품의 양상은 3차까지 진행되었던 호암미술관 발굴성과와 흐름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³⁾ 다만 재발굴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물자료들을 통해 연구사적 관점의 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본 발표에서는 玉璧底系(해무리굽) 완류의 제작과 백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⁴⁾

자기의 국내 제작에서 중국과의 기술 및 조형적 연관성은 알려진 바이다. 요업의 연원과 계통을 추론하면서 고려의 수용과정을 살펴 온 주요 주제 가운데 10세기 중국 남방의 최대 청자요장 越州窯의 제작기술 및 조형관계는 그 관계의 긴밀함이 여러방면에서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초기청자 생산품 가운데 옥환저 완과 玉璧底系 碗[해무리굽 완]의 변화과정은 하나의 시간적 표식이 되어왔다.⁵⁾ 국내 요장에서 옥벽저계 완의 생산은 대체로 옥환저 완의 제작 다음 단계부터로 시흥 방산동의 2기층, 용인 서리 2기층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당대 이래 완의 굽값음 형식이 옥벽저→옥환저로 변화했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그릇 내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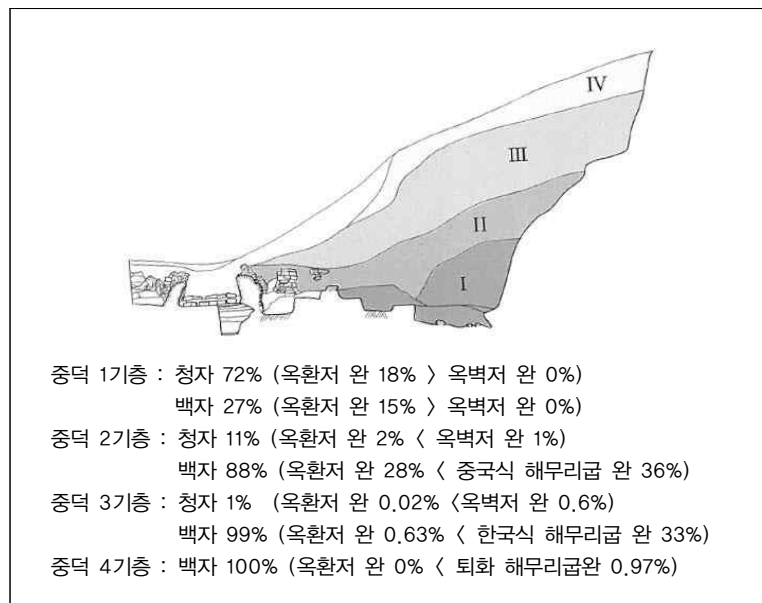
2) 서경문화재연구원,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5차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24.5.

3) 퇴적 남측의 건물지에서 다량의 제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나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지므로 본 발표에서는 제외한다.

4) 장남원, 「고려전기 해무리굽[옥벽저계] 碗의 지속현상에 대한 추론」, 『역사와 담론』 50, 호서사학회(2008), pp. 321-354.

5) 앞 주1): 최 건, 「라말려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2001).

완만하고 굽 접지면이 좁은 A형식(옥환저 완, 일명 선해무리굽 완)에서 굽 접지면이 넓고 내면이 완만한 B형식(옥벽저 완, 중국식 해무리굽 완)으로, 그 후 굽접지면이 넓고 내저에 원각이 있는 C형식(한국식 해무리굽 완)으로, 다시 내저에 원각이 있으나 굽직경이 좁고 접지면도 좁아든 D형식(한국식 퇴화 해무리굽 완)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⁶⁾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용인서리이다. <그림 1>, <그림 2>



<그림 2> 용인서리 중덕요지 퇴적 층위

용인 서리요장의 시작 단계에는 청자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내 백자 위주의 생산으로 전환된다. 출토품을 백자와 청자, 형식별로 수량을 제시했던 발굴보고서를 기준으로 층위별 생산품 비중과 특히 옥벽저계 완의 점유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았다.⁷⁾ 청자→백자로 중심이 옮겨졌으며 그 가운데 기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옥벽저계 완의 생산 흐름은 II기층에서 옥환저완을 넘어섰고 III기층에서는 중심이 되었다. 이같은 양상은 시흥 방산동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시흥방산동의 경우는 전체 생산비율에서 95:5로 청자가 제작 중심을 이루며, 완의 경우도 한국식 해무리굽 완 까지 모두 발견되지만 옥환저 완과 중국

6) 이종민, 본고, 각주1).

7) 湖巖美術館, 『龍仁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Ⅱ』(2003). 용인서리 2차보고서의 출토유물 수량과 점유율은 청자, 백자를 별항으로 산출하고 있기에 발표자가 종류별로 합산후 새로 산출한 것임.

식 옥벽저완의 제작시기가 중심이었다.

시흥 방산동에서는 최하층에서 극소량의 백자와 갈녹색의 청자가 주를 이루는데 옥환저완이 많은 비율로 생산되었고 중간층에서는 청자외에 질이 좋은 옥벽저계 백자완 등이 생산되고 있었다.⁸⁾ 옥환저 완을 비롯한 양질의 중국식 청자들과 유사한 I 유형 청자들이 발견되는 점은 용인 서리와 겹치지만 용인서리에 비해 조업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백자도 함께 제작했으나 용인 서리처럼 백자가마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내저 곡면식 옥벽저계 완의 비중도 적었다. 한편, 여주 중암리의 경우도 그 흐름은 비슷했다. 5개 층위가 확인되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옥환저계 완에서 옥벽저계 완으로 이행하며 최하층을 제외하면 내저 원각이 있는 한국식 해무리굽완이 소량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내저 곡면식과 원각식 완의 비율이 반반을 접하게 되었다.⁹⁾

이처럼 기존의 연구가 굽 형식과 내저면 속성에 따른 양식 변화에 집중해 왔다면, 왜 중국과 큰 시차를 두고 양식이 역주행 하면서 내재화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된 바 없다. 관련하여 발표자는 옥환저완이 중심을 이루다가 옥벽저 완이 중심기종으로 제작되는 현상에 대해 고려 및 중국 북방지역과의 정치, 문화적 관계에서 시론한 바 있다.¹⁰⁾

이 과정에서는 중서부 지방 가마들에서 제작된 굽 접지면이 넓고 굽직경이 큰 이른바 중국식 해무리굽 완들이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여주 중암리에서 보았듯 청자와 백자를 並産했거나 이른시기부터 백자를 주로 생산했던 요장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어 주목된다.¹¹⁾ 이에 비해, 배천 원산리, 양주 부곡리, 원당 원흥동 요지처럼 아직까지 백자의 생산 예가 확인되지 않은 요장들에서는 옥환저계 청자완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즉 개성에서 멀지않은 중서부지역 요장들 가운데 백자 중심의 요업이 이루어진 가마와 청자 전용 요장간에 운영기간은 중복되지만 청자전용 가마들의 요업이 상대적으로 일찍 끝났거나 또는 요업의 계통이나 기술 등에서 약간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따라서 용인 서리 중턱요지 재발굴을 계기로 기중간의 양식변화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백자 기술의 수용과 지속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서리 백자요지 출토 도편 분석을 통해 추출한 결과도 유의미한 단서가

8) 海剛陶磁美術館, 『芳山大窯: 始興市 芳山洞 初期青磁·白磁 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1)

9) 京機道博物館,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地』(2001).

10) 장남원,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미술사학』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2009).

11) 장남원, 본고 주4).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I, II기층의 백자와 III, IV기층의 백자가 서로 다른 요업환경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I, II기층 백자의 경우 고령토 같은 1차 점토 내지 陶石이 주원료로 사용되었다면, III, IV기층의 백자는 퇴적 점토나 2차 점토 등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육안으로 보기에 I, II기층의 백자들은 입자가 곱고 순도가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¹²⁾ 실제로 III, IV기층의 백자들은 앞 시기에 비해 수비가 안된 상태의 점토들을 사용한 예가 많았고 釉色도 스펙이 넓어서 색조가 일정치 않은 경향을 띤다. 용인 서리 요장이 백자 생산을 위주로 전환하게 되는 때는 한국식 해무리굽 완이 중심 되는 때이다. 발표자는 이를 직접적인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내재화하던 기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본다.

III. 강진 요업과의 관계

1. 강진유형 자기의 제작

퇴적 층위를 기준으로 용인 서리 생산품의 양상으로 보면 시흥 방산동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으나 그 조업기간은 길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호암미술관 보고서에서는 한국식 퇴화해무리굽 완이 쇠퇴하고 운형굽으로 진행하며 철화백자들이 동반되는 11세기 중엽경을 용인 서리 요장의 하한으로 보았다.¹³⁾

한편, 전축요를 운영했던 배천 원산리에서는 순화명 청자편들과 가마유구 및 제작품 비교 등을 통해 중서부지역 초기청자, 특히 전축요의 운영시기와 가마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순화명 청자들은 배천 원산리 가마 운영의 하한과 더불어 전축요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던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요지 I, II기 층의 운영시기를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 경으로 추정하는 기준이 되었다.¹⁴⁾ 배천 원산리 요지의 제기들이 10세기 말 전축요 단계의 조업시기에 제작된 것이었다면 용인 서리는 모두 전축요 단계부터 토축요 단계까지 요업이 지속되었고 제기류들은 한국식 퇴화해무리굽이 제작되는 토축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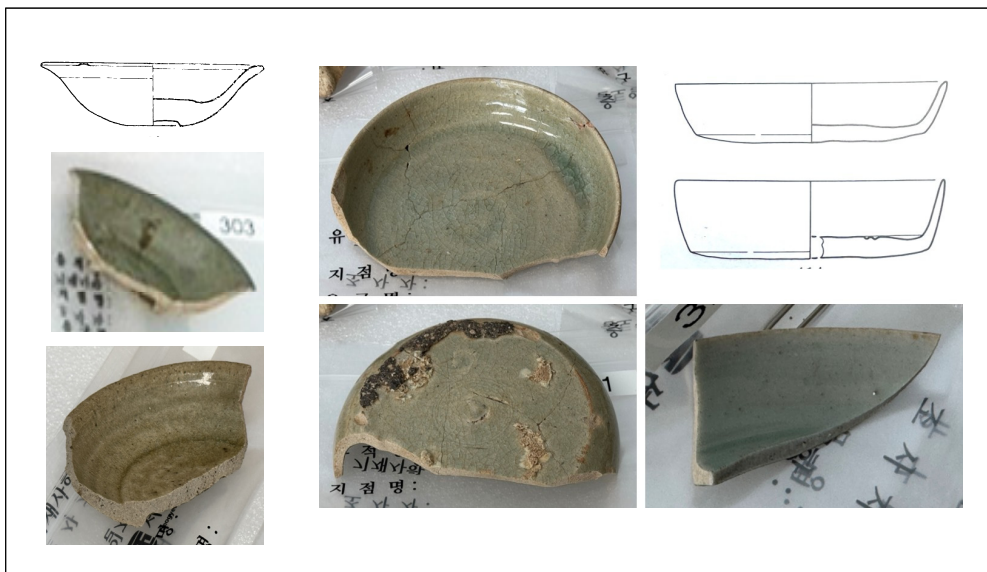
12) 용인시, 용인문화원, 여주대학.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도편분석보고서』(2004).

13) 湖巖美術館, 『龍仁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Ⅱ』(2003).

14) 李喜寬, 『韓國 初期青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방문화』14 (2011), pp.7-51 ;李鍾玟, 본고 주1).

마지막 층위와 연관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각각의 제기들은 사용 주체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⁵⁾

한편, 금번 재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들 가운데는 시흥 방산동이나 원산리, 용인서리 I, II기 층에서 제작되는 기물들의 연장선 보다는 이른시기 강진 청자들에서 보이는 완류, 평저접시, 소형접시, 병, 잔탁, 항 등이 새삼 주목된다.<그림 3>, <그림 4> 이같은 기물들의 조합은 대체로 용인서리 III기층 이후에서 시작되는 변화로 보이며, 이 때부터 철화 장식이 나타나고 반구형 매병도 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5> 80년대 발굴에서도 이같은 자료들이 소개되기는 했으나 금번 재발굴에서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중서부지역 요업의 추이와 강진요업 발달과정과의 선후관계 또는 공존 시기 고려요업 구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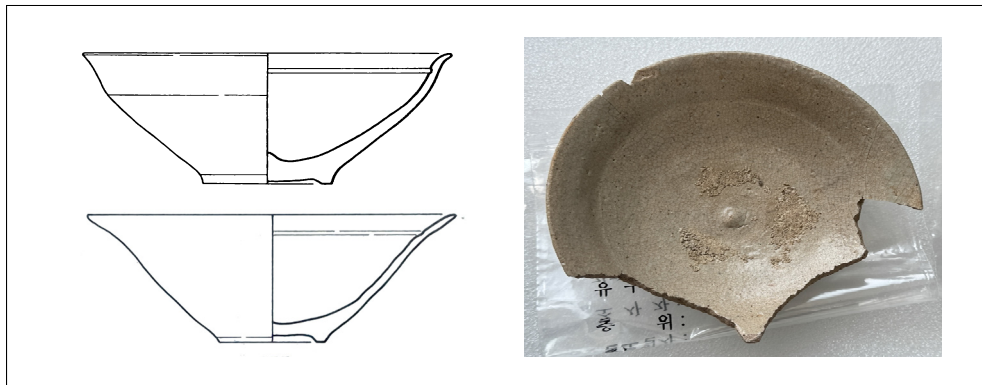


〈그림 3〉 강진용운리 접시(도면)와 용인서리요지 수습 접시(사진)

용인서리 III기층은 한국식 해무리굽 완으로 대표되는 층위이며 강진과 비교하자면 용운리 9호, 용운리 10호- I 유형 10- II-가 유형, 삼흥리 D, E지구 가마 등에 해당한다. 이 과도기에 생산유형이 겹치는 그밖의 요장으로는 여주 중암리, 고창 용계리, 진안 도통리 등이 있으

15) 김효진,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美術史學研究』282(2014), pp.5-33 ; 장남원, 「고려 전기 '순화(淳化)'명 청자 제기류의 현황과 의의」, 『美術史論壇』(2021), pp.7-33.

나 생산품의 품종과 수량으로 보면 강진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중서부지역에서는 용인서리가 다양하다. 그러나 용인서리 제작품은 제기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진유형 기종 구성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이 시기 용인서리 및 여주일대는 토축요를 활용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요업현황이 남부지방과 유사한 현황에 놓였던 것이라 본다. 강진이 비교적 능숙한 환원번조로 정제된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완을 필두로 양질의 비색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용인서리 일대에서 제작되는 자기들은 청자와 백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수비하지 않은 태토를 사용한 제품이 많아지고 있어 질적으로 하락중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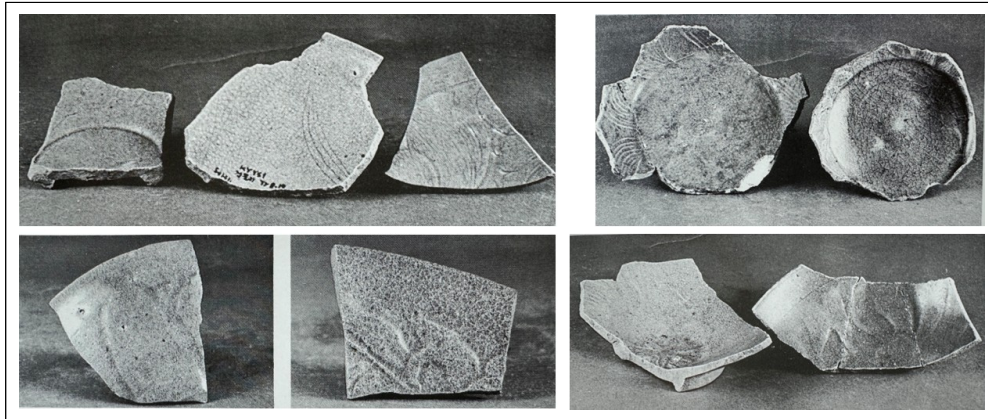
〈그림 4〉 강진용운리 완(도면)와 용인서리요지 수습 완(사진)



〈그림 5〉 용인 서리중덕요지 출토 철화자기(좌, 중) 매병편(우)

금번 재발굴 수습편 가운데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1차 발굴 당시 수집된 파편들 가운데는 기존의 백자들과 구분되는 환원소성의 청자편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전형적인 고려중

기 유형으로 빈도 높게 제작되었던 앵무문 및 연판문 이 시문된 음각문 청자들과 모란문이 발과 접시에 시문된 압출양각 청자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강진산과 비교하면 다소 태토가 거친 느낌이 있으나 기형과 세부 속성등에서는 강진품들과 일치한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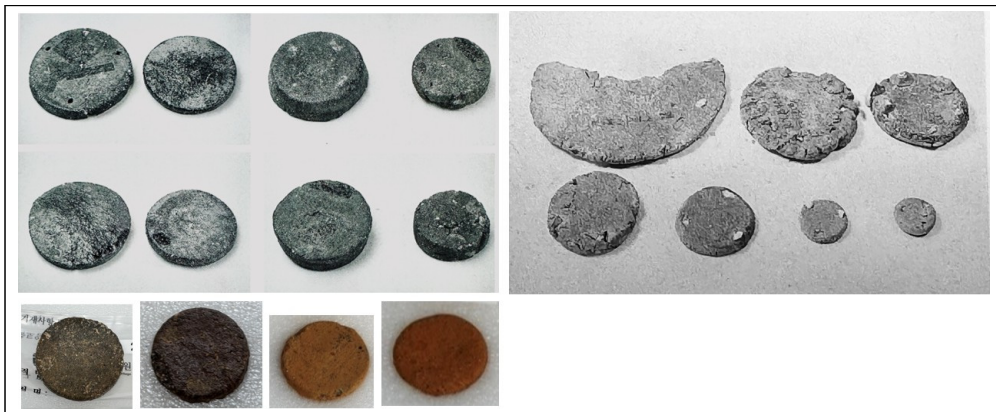
<그림 6> 용인 서리중덕요지 출토 음각문, 압출양각문 청자들

2. 규석받침용 도침의 사용

용인서리 중덕요지 Ⅲ기층 이후 요업재료와 기술, 생산품의 변화속에 질적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서리 중덕요지 출토품이 여타의 요장들에 비하면 비교적 다양하다는 점은 앞서 언급했다. 또 한가지 재고할 것 강진의 고급청자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규석받침용 도침이 용인서리 중덕요지에서 발굴된 점이다.<그림 7>

고려시기에 굽 접지면까지 유약을 입힌 후 접지면 안바닥에 규석을 받쳐 정갈하게 번조하는 기술은 강진과 부안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강진 용운리 10호 청자요지와 그 외 지역요장 청자를 중심으로 번조받침과 청자의 質의 상관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번조받침에 따라 가마에서 퇴적 층위상 선후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품질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번조방법도 차별화 된다. 시흥 방산동이나 용인 서리의 가마에서는 벽돌가마~진흙가마(下層)에서 백색내화토 받침을 받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강진 용운리 10호의 경우는 해무리굽 碗을 동반하는 층위와 해무리굽 완들이 사라지고 음각 문양들이 새겨지는 완, 발류가 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백색 내화토를 받쳐굽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중

국 월주요 등지에서 자기를 번조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고 중국기술의 국내 유입단계에서 전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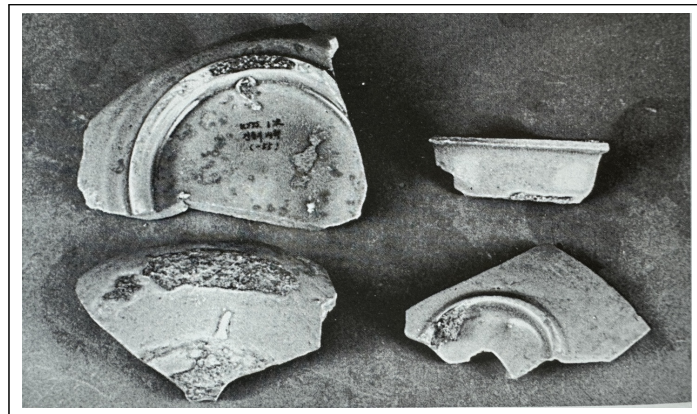


〈그림 7〉 규석받침용 도침 (좌)용인서리 중덕요지 출토 (우)강진 용운리 10호 출토

그 후 토축요의 상층부, 즉 용운리 10호 Ⅱ층에서는 모래빛을 받침이 사용되었다. 이후 강진이 아닌 지역의 조질청자나 지역생산품의 경우 고려 중기이후 광범하게 모래빛을 받침이 사용된다. 고려중기 강진에서 모래빛을 받침을 대어 굽는 경우, 특히 그 가운데 문양이 없을 경우에는 포개 굽는 비율이 높아 그릇 내면에 흔적이 남게 된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동일 퇴적에서는 고급 청자들을 번조하기 위한 원반형, 원주형, 치형(齒形) 등의 규석 받침용 도구들이 수습되었다. 규석받침을 사용하는 경우, 기물 위에 다른 것을 포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갠 번조를 하더라도 맨 위에 올려 굽는 것이 일반적이며 갑발을 사용하여 환원도 잘된 상태였다. 그리고 규석받침이 사용된 기물들의 경우는 동일 기종내에서도 굽깔음이나 문양의 유무, 장식세부 등에서 달랐다. 그 결과 청자들은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으니, 제작 당시부터 결과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작업과 번조에 구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용인서리 중덕 요지에서 발견되는 규석받침용 도침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서리에서 발견되는 도침들은 소량이지만 일부에 3~4곳에 구멍 내지 미세한 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강진의 고려중기 층위에서도 규석받침을 사용한 비율은 적은편이며 서리에서도 10점 이내이다. 한편 금번 재발굴품 자료들 가운데서는 찾지 못했으나 1차 발굴 보고서 가운데 규석받침을 받쳐 구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가 포함되어 주목된다. 소량이어서 발표자

는 주변 생활유적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으로 규석받침용 요도구가 출토되는 점과 실제 규석을 받쳐 구운 청자의 상태가 강진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발굴 과정의 추가 자료를 기대하며 용인서리 요업의 성격 변화에 대한 부분도 다시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림 8>



<그림 8> 규석받침으로 번조한 청자편, 용인서리 중덕요지 출토

대전 구완동이나, 음성 생리, 등과 같이 12세기 이후 강진유형의 청자들이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대부분 지역수요 등을 위한 배후 소비지가 인접한 경우였지만 규석받침류가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갑발의 활용 비율도 적었다. 그에 비하면 용인 서리요장의 사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강진유형과 같은 청자를 제작하는 요장으로 전환을 시도했던 것인지의 여부도 강진요업과의 관계 등과 함께 추후 더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참고문헌

- 星美術文化財團, 『龍仁西里 高麗白磁窯 : 發掘調查報告書 1』, 1987.
- 京機道博物館,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地』(2001).
- 海剛陶磁美術館, 『芳山大窯 : 始興市 芳山洞 初期青磁·白磁 窯址 發掘調查 報告書』, (2001)
- 湖巖美術館, 『龍仁西里 高麗白磁窯 : 發掘調查報告書 II』(2003).
- 용인시, 용인문화원, 여주대학.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도편분석보고서』(2004).
- 서경문화재연구원,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5차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24.5.
- 김재열, 「용인 초기 백자요지발굴조사보고」, 『韓國 靑磁 發生에 關한 諸問題』(1990).
- 김효진,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美術史學研究』282(2014).
- 李鍾玟, 「시흥 방산동 초기청자 요지 출토품을 통해 본 중부지역 전축요의 운영시기」, 『미술사학연구』 228·229(2001)
- 이희관, 「한국 초기청자에 있어서 해무리굽완 문제의 재검토_한국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술사학연구』237(2003).
- 李喜寬, 「韓國 初期靑瓷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지방사와 지방문화』14 (2011),
- 장남원, 「고려전기 해무리굽[옥벽저계] 碗의 지속현상에 대한 추론」, 『역사와 담론』 50, 호서사학회 (2008),.
- 장남원,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미술사학』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2009).
- 장남원, 「고려 전기 '순화(淳化)'명 청자 제기류의 현황과 의의」, 『美術史論壇』(2021),
- 전승창, 용인 서리요지 출토유물 검토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2001).
- 최 건, 「라말려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 『용인 서리 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2001).

토론

「용인서리요지 출토 유물로 본 도자사의 재검토」에 대한 토론

조은정 | 고려청자박물관

용인 서리 요지는 요장의 규모와 운영 시기, 생산품의 양식 변화 등 여러 방면에서 고려시대 자기 생산의 출발점이 어떠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입니다. 배천 원산리, 시흥 방산동 요지와 함께 우리나라 청자 발생 시기 규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근거 자료로서, 최근 실시된 발굴조사는 초기 청자 발생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논쟁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장남원 선생님은 고려 초기 도자사와 관련된 여러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고, 오늘 발표는 용인 서리 중덕 요지 출토품 중에서 강진 요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신 발표라고 생각하며,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의문점과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이나 보완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첫째, 용인 서리 요지 출토품을 분석한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와 상대 편년이 그동안 초기 청자 연구에서 요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해무리굽 > 중국식해무리굽 > 한국식해무리굽의 선후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대편년은 용인 서리 요지와 시흥 방산동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남서부 지역 토축요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진 칠량 삼흥리 요장의 경우, D지구 출토 해무리굽완은 옥벽저인 경우는 없고, 내저곡면이면서 굽은 선해무리굽이나 한국식해무리굽 형태인 반면, E지구는 내저곡면에 한국식 해무리굽완을 주로 생산하면서 발표에서 언급한 음각, 압출양각 기법의 문양과 규석 받침까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남 신덕

리 요장에서는 전형적인 중국식 옥벽저와 내저원각의 한국식해무리굽이 같은 가마에서 동시에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려 초기 요장에서 해무리굽원의 형식 변화가 뚜렷한 요지와 그렇지 않은 요지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제작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인 서리를 중심으로 전축요 계열의 요장과 남서부의 토축요 요장이 운영을 시작한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운영 시기는 비슷하나 지역적인 차이로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둘째, 중서부 지역 요장들 가운데 중국식 해무리굽원(옥벽저)이 확인되는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여주 중암리와 옥환저 해무리굽원이 주류를 이루는 배천 원산리, 양주 부곡리, 고양 원흥동 요지 등이 요업의 계통이나 기술 면에서 다른 환경에 놓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용인 서리 요지 출토 도편 분석 결과 I·II층과 III·IV층이 다르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 서리 요지도 중간에 요업 환경이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도편 분석이나 육안으로 구분되는 태토와 유약의 품질 차이 외에 다른 추가 설명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셋째는 앞의 질문들과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고려 11세기 후반 고창 용계리와 강진 대구면·칠량면 요지가 각각 전주목과 나주목에 계수관(界首官) 설치와 소(所) 운영을 통해 군현을 관할하려 했던 결과물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전주계수관 권역의 고창 용계리는 도성소(陶成所)이고, 나주계수관 권역의 강진 대구면·칠량면은 대구소(大口所)·칠량소(七良所)로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강진 칠량 삼흥리 E지구 출토품은 내저원각이 있는 한국식해무리굽원과 함께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음각앵무문·연판문, 압출양각모란문, 규석 받침 등 강진 유형의 특징이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 서리 요장이 강진 유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어느 시점에 인근의 서리 상반 요지와 함께 所체제 운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폐요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넷째, 용인 서리 요지 출토품을 보면 해무리굽이 완전히 사라진 단계의 완이나, 음각 기

법의 앵무문과 연판문, 압출양각 기법의 모란문, 규석 받침 등도 확인되어 강진 유형과 같은 청자 제작 요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인 서리 요장이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양주 부곡리, 고양 원흥동 등 다른 중서부 요장과 달리 요장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것인데요, 앞선 질문들을 총괄해서 용인 서리 요장 운영의 상한과 하한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다른 논문에서 중국 북방과 고려에서 중국식 해무리굽완이 역주행하는 시기를 10세기 후반으로 비정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 서리 퇴적 I 층부터 IV층까지의 편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려시대 용인 서리 요지 출토 길례용 제기의 조형적 특징과 성격

—중덕요지 4차 발굴출토품을 중심으로—

김효진 | 국립한글박물관

I 목차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왕실의 제례의식과 길례용 제기
- III.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 출토 보와 궤의 조형적 특징
- IV.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 출토 제기의 성격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 길례용 제기는 조선시대 제기와 달리 전세품이 극히 드물고 확인된 생산유적도 많지 않다. 1984년 용인 서리 중덕요지의 고고학적 발굴을 시작으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청자요지, 시흥 방산대요 청자요지, 여주 중앙리 고려백자요지, 용인 서리 상반고려백자요지 등 2005년까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¹⁾ 출토된 제기는 성종 2년(983)에 유입된 『삼례도(三禮圖)』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선 조사를 바탕으로 2006년 고려시대 길례용과 일반의례용 제기를 살펴본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북한의 발굴출토품에 대한 접근적 한계와 수량이 적고 완형이 드문 국내 자료로 인해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²⁾ 2010, 2014년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에서 출토된 제기를 바탕으로 제작기법과 특징, 제작시기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소

1) 三星美術文化財團·湖巖美術館,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I』; 湖巖美術館,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 II』;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2001, 『芳山大窯』; 김영진, 2003, 『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驪州郡·京畿道博物館, 2004,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용인문화원·용인시·경기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단, 2016, 『龍仁西里上盤高麗白磁窯址』.

2) 중덕요지와 방산동, 여주 중앙리 출토품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도자 제기에 관한 석사논문 연구가 있다; 張成旭, 2006, 「高麗時代 陶磁祭器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량의 완형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³⁾

고려시대 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에는 강진 청자요지에서 출토된 제기편을 중심으로 전시와 부분적인 연구가 있었으며,⁴⁾ 2021년 ‘淳化’명 청자연구⁵⁾, 2023년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도자제기를 소개한 전시와 함께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전세품과 출토 유적이 드문 제기는 새로운 자료의 역할이 중요한데, 강진 생산의 국가 제사용 제기편과 알려지지 않았던 박물관 소장품, 최근 이루어진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어 고려시대 제기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⁷⁾

본 발표는 고려 왕실의 제례의식과 이에 사용된 제기를 살펴본 뒤 고려시대 길례용 제기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제기도설과 실물의 조형적 특징을 비교하여 길례용 제기의 제작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보와 궤의 특징과 규격을 면밀히 살펴 용인 서리 중덕요지와 상반요지에서 제작된 길례용 제기의 특징과 성격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고려시대 길례용 제기의 제작과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고려 전기 도량형 연구에도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金孝眞, 2010, 「龍仁 西里 窯址 出土 高麗白磁 祭器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同者, 2014,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미술사학연구』 제282호, 한국미술사학회.
4) 고려청자박물관, 2016,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同者, 2019,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김효진, 2019, 「청자 황이」,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고려청자박물관; 박형순, 2019, 「청자 받침」,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고려청자박물관.
5) 오영인, 2021, 「고려 초 순화(淳化)명 청자에 대한 재조명-제작과 전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9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장남원, 2021, 「고려 전기 ‘순화(淳化)’명 청자 제기류의 현황과 의의」, 『美術史論壇』 제53호, 한국미술연구소.
6) 경기도자박물관, 2023, 『하늘과 땅을 잇는 도자기 新樣祭器』; 오영인, 2023, 「고려전기 예제의 정비와 자기 제기의 전개-태묘 의례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도자기 新樣祭器』, 경기도자박물관.
7)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21, 『강진 사당리 청자 요장-8호·23호·40호 발굴조사보고서』; 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25,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Ⅲ-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Ⅲ-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 고찰을 바탕으로 재분류된 명칭과 기종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물 명칭과 수량이 필자가 작성한 제기 고찰과 차이가 있다. 보와 궤의 수치 측정에 도움을 주신 서경문화유산연구원 임영호원장님, 오승열실장님, 허지은, 박혜란, 최홍준 연구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II. 고려시대 왕실의 제례의식과 길례용 제기

1. 고려시대 왕실의 제례의식과 제기

고려의 제례는 태조(太祖)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성종(成宗)대에 들어서 유교 제례를 적극 수용하여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원구와 문묘 등의 의례가 정비되었다.⁸⁾ 『고려사』 「예지」의 길례에 나타나 있는 국가제사는 대사·중사·소사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에 속하는 제사들은 제사의 준비 및 절차와 순서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⁹⁾ 제사에 사용된 제기는 특수한 형태의 기물과 일상기명에 가까운 형태로 나뉘며 특수한 형태의 제기는 소사의 대부사서인 제례를 제외한 길례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다.¹⁰⁾ 사용된 제기는 제사의 종류와 위계에 따라 진설이 달라지는데, 변·두의 수량이 대·중·소사 순서로 적어지며 사용되는 작의 형태와 재질도 달라진다. 또한 원구·사직·태묘의 협체제에서 태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태묘와 별묘에서는 계이와 조이, 가이와 황이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길례용 제기의 보(簠)와 궤(簋)에는 기장, 벼, 피와 같은 마른 곡물을, 대나무 소재의 변(簠)은 형염, 건어포, 떡, 마름, 개암과 같은 마른 제수를, 나무를 재질로 하는 두(豆)에는 각종 나물과 다양한 고기로 만들어진 젓은 제수를, 흙으로 제작된 등(甗)에는 국물을, 작은 상의 형태인 조(俎)에는 쟁반과 희생의 고기를 올린다. 작(爵)은 나무나 옥으로 제작되는데 술잔으로 이용되었으며, 준(尊)과 이(彝)에는 물과 술을, 퇴(罍)에는 술을 담아 올렸다.¹¹⁾

주현(州縣)의 문선왕묘 제사는 중사의 문선왕묘 제사와 달리 진설하는 제기의 수량과 종류가 소략해지며, 준의 명칭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¹²⁾

8) 김철웅, 2005, 「고려 전기 사전(祀典)의 형성 과정」, 『사학지』 제37호, 단국사학회, 278~279쪽.
 9) 소사에 분류되어 있는 잡사는 제사 의례 과정이 실려 있지 않고 연대 순서에 따라 거행 사실만이 실려 있어 자세한 의례 과정과 제기를 살피는 것에 한계가 있다. 김철웅, 2002,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제118호, 한국사연구회, 137쪽.
 10) 길례용 제기는 제기도설에 수록되어 있는 길례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를 말한다. 이하 본고에서 도설에 실려 있는 특수한 형태의 제기를 길례용 제기라고 표기하였다. 대부사서인 제례는 관리들이 지내는 사가의 제사로 길례용 제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11) 『高麗史』 卷61, 志 15, 禮 3, 太廟.
 12) 준소상에 올리는 계이·조이·황이·가이와 희준·상준·작준·호준, 그리고 퇴의 9종은 모두 술항아리로 각각에 담은 술과 물의 종류도 구별하였다. 봄과 여름 희준에는 예제와 명수, 상준에는 양제와 명수를 담았다. 구혜인, 2024, 「조선시대 종묘 오향대제용 제기의 상호관계와 성격」, 『한국학』 제47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04~111쪽.

2. 길례용 제기의 제작 현황

국내에서 고려시대 길례용 제기가 출토된 곳은 중서부지역과 남서부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현재까지 생산 유적에서 확인된 출토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고려시대 생산 유적의 길례용 제기 출토 현황

유적	종류	번	두	보	괘	착준	호준	상준	희준	뚜껑	황이
중서부	청자	배천원산리		●							
		시흥방산동		●	●	●					
		용인서리중덕Ⅱ층									●
		용인서리상반				●					
	백자	여주중앙리									●
		용인서리중덕Ⅲ층	●	●	●	●		●	●		●
		용인서리상반		●	●	●	●	●		●	●
		용인서리중덕 4차 발굴			●	●					●
		용인엔젤대중골프장부지			●						
	남서부	청자	강진 사당리23호			●			●	●	
강진 사당리24호											●
강진 사당리40-2호 폐기장Ⅲ층									●		●

남서부지역에서 길례용 제기가 생산된 곳은 강진 사당리 23호, 사당리 24호, 사당리 40호 요지가 있다. 강진 사당리 요지는 고려의 왕실용 청자가 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¹³⁾ 23호 요지의 운영 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 청자 상준 1점, 청자 보 2점과 청자 희준 1점이 확인되었다.¹⁴⁾ 보는 구연부와 저부편이 수습되었으며, 희준은 저부편으로 짧게 외반한 굽이 달려 있고, 잔존하는 동체부 상단에 발굽이 달린 동물의 다리가 흑백상감되어 있다. 상준은 동체편 일부가 출토되었으며 코끼리의 모습이 흑백상감 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진 사당리 40-2호 폐기장 Ⅲ

13)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전시 도록에서는 사당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현황에서 ‘가’구역을 23호 요지로 표기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따랐다. 고려청자박물관, 앞의 도록(2019), 26, 27쪽;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가’구역 청자편은 8, 23, 27, 40호 요지와 관련된 유물로 추정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2015,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14~28쪽.

14)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보고서(2015), 515쪽; 고려청자박물관, 앞의 보고서(2016), 158~160쪽; 조은정, 2018, 「강진지역 도자 연구」, 『고려청자의 頂點을 만나다』, 국립전주박물관, 21쪽.

층에서는 청자 황이편 2점과 청자 희준편 1점이 출토되었다.¹⁵⁾ 이러한 황이편과 희준편은 강진 사당리 지표조사 이후 강진 지역의 발굴조사를 통해 제기의 제작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¹⁶⁾

사당리 24호 요지에서 수습된 청자 황이편 역시 40호 요지에서 출토된 황이편과 유색, 시문기법, 시문형태가 유사하다.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녹유항아리>는 높이 37.8cm에 구경 23.8cm로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시대 제기 중 가장 크다. 궤에 해당하는 이 제기는 내방외원의 구연부에 기벽은 저부로 갈수록 사선으로 좁아드는 형태로, 밖으로 벌어진 높은 굽이 달려 있다. 전체적인 형태와 제작방식이 용인 서리 상반 및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궤와 유사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또 다른 소장품인 <청자사각항아리>는 높이 34.5cm에 구경 24cm로 외방내원의 구연부를 가진 보의 기종이다. 구연부는 가운데가 살짝 배부른 형태의 정사각형으로 기벽은 저부로 갈수록 사선으로 좁아들고 밖으로 벌어진 굽이 달려 있다. 유색, 구연부 형태, 뚜껑을 씌워 소성한 점 등이 중덕요지 1~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보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자희준>은 짧게 벌어진 구연부 아래로 견부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벌어졌다가 저부에서 좁아든다. 동체 하단부 측면을 들여 깎으며 거칠게 마무리 되었으며 평평한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소성하였다. 이 <청자희준>은 동체 전면에 4마리의 소가 흑백상감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백상감으로 전체 실루엣을 시문한 뒤 백상감선 안쪽을 따라 흑상감선으로 표현하였다. 해당 제기는 유색과 시문 기법, 표현 방식 등이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출토된 상준과 매우 유사하다.

4. 제기도설과 제기

고려는 『삼례도』 도입 이후 송을 통해 예서의 도입을 시도한 끝에 숙종 3년(1098) 『개보정례(開寶正禮)』를 확보하게 되었다.¹⁷⁾ 고려가 『개보통례』를 받아들일 무렵 송에서는 진

15)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2021), 238~247쪽.

16)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위의 보고서(2021), 241쪽.

17) 『개보정례』는 『開寶通禮』 다른 명칭이다. 김보광, 2019, 「고려전기 闕門의 역할과 국가의례상 의미」, 『동방학지』

상도(陳祥道, 1053~1093)가 『예서(禮書)』를 편찬하여 1086~1093년 조정에 바쳤다.¹⁸⁾ 고려에서 『예서』와 관련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숙종과 의종대를 거치면서 주기(酒器)가 『예서』의 기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¹⁹⁾ 강진 사당리 출토품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황이(黃彝)는 황금 눈을 장식한 술동이로, 가을과 겨울 제사에 율창주를 담은 용도로 사용된다. 사당리 40-2호 폐기장과 24호 요지에서 출토된 황이는 정면을 응시하는 눈동자, 긴 눈꼬리, 여러 줄의 가는 선으로 표현된 눈썹, 두툼한 아래 눈꺼풀의 형태가 『삼례도』보다는 『예서』의 도안과 유사하다.

희준은 소의 그림을 그려 넣은 제기로, 명수²⁰⁾와 예제를 담으며 상준과 같이 여름 제사에 사용된다.²¹⁾ 강진 사당리 요지에서 수습된 희준편에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소의 형태가 흑백상감 되어 있다. 23호 요지에서 수습된 편이 『삼례도』의 소와 같이 서 있는 모습인데 반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희준>은 『예서』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꼬리와 자세에서 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 <청자희준>은 4마리의 소가 시계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형태로 시문 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해당 제기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상준은 코끼리가 그려진 주기로 봄과 여름 제사에 명수와 양제를 담아 올린다. 『삼례도』 속 코끼리가 고개를 숙여 상아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 반면 『예서』와 23호 요지 출토 상준편에서는 코끼리가 고개를 들어 상아가 위쪽을 향하고 있다. 흑백상감의 시문 기법, 표현 방식, 문양 구성 등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희준>의 양식과 흡사하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앞서 살펴본 제기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확실하게 『예서』를 참고하여 제작한 제기를 확인할 수 있다. 14~15세기로 추정되는 <분청사기상감황목운문준형제기>는 전체 기형, 정면을 응시하는 아몬드 형태의 눈, 동체 전면을 채우고 있는 상승하는 운문의 형태가 『예서』의 퇴와 일치하고 있어 해당 도설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기는 유색, 장식 기법과 스타일, 문양 구성 등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

제189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53쪽.

18) 『直齋書錄解題』卷二, “太常博士長樂陳祥道用之撰 論辯詳博 間以繪畫 於唐代諸儒之論 近世聶崇義之圖 或正其失 或補其闕 元佑中表上之.”

19) 김우성, 2017, 「고려 전기의 예서 도입과 태묘 제례」, 『한국중세사연구』 제51권, 한국중세사학회, 325~332쪽.

20) 현주와 명수 모두 정화수를 말하는 것으로 명수는 달밤에 대함에서 얻은 물을 말하며 현주는 우물물을 가리킨다. 섭승의 저, 문정희·박윤미·방향숙·최진목 역주, 2023, 『삼례도집주』 권8~권14, 세창출판사, 568쪽.

21) 최순권, 2004, 「종묘제기고」, 『종묘대제문물』, 궁중유물전시관, 166쪽.

장의 <청자희준>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제기의 종류와 명칭, 제작 시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 출토 보와 궤의 조형적 특징

용인 서리 요지에서는 『삼례도』를 모본으로 제작한 제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이번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에서는 전체 42점 중 보 14점, 궤 22점, 궤 뚜껑편 1점, 보 뚜껑편 5점이 확인되었다. 42점 가운데에 32점이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중 26점이 완형에 가까운 형태로 출토되어 주목받고 있다.²²⁾

1. 집중노출지 출토 보와 궤의 조형적 특징

집중노출지에서 수습된 9점의 보와 17점의 궤를 형식 분류 한 결과 보는 기벽이 사선형이며 굽 깎음의 방식에 따라 5가지 식으로 나누어진다. 궤는 기벽이 사선형, 직립형 두 가지로 나뉘며, 굽은 평저, 안굽, 외반한 다리굽의 세 가지 식으로 분류된다.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보는 전체 높이 30.1~32.0cm의 범주에 있으며 코일링이나 물레로 기벽을 성형하였다. 형식 분류에 따라 높이, 깊이, 용적, 무게가 그룹화 된 것들끼리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궤는 코일링과 면접합, 물레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B1-b형식은 모두 면접합으로 제작되었다. 보와 달리 형식 별로 높이, 깊이, 용적, 무게가 그룹화되지 않으나, 형식에 따라 내벽이 둥글게 처리된 것에 한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았다. 보와 궤 모두 내부 구경의 크기, 내벽의 형태, 내저면의 높이를 통해 용적률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내벽이 수직에 가까운 것보다 곡면이거나 기벽이 얇은 경우 용적률이 컸다.

2. 집중노출지 출토 보와 궤의 길이와 용적

고려시대의 도량형은 고려 사회를 이해하는 사회 경제사 연구의 기초라는 점에서 매우 중

22) 이 중 궤 뚜껑 1점과 보 뚜껑 2점은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기물이나 서경문화유산연구원의 출토 유물 공개회를 통해 필자가 확인하여 본고에 수록하였다.

요하나 현재까지 고려시대 도량형이 전해지는 것은 없다.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보와 궤는 길이와 용적 측정이 가능하므로 『삼례도』에서 제시한 길이와 용적을 따르고 있는지, 어떠한 길이와 용적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²³⁾

척의 길이는 현존하는 건축물과 유물에 기록된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되고 있는데, 개성의 나성을 기준으로 추정한 21.3, 35.96cm, 현종 21년(1030) 완성된 일본 오사카 학만사에 소장된 종을 기준으로 30.66cm,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강릉 객사문 등 고려시대 현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사용된 30.936cm, 광종 13년(962)에 제작된 용두사 당간을 기준으로 한 31.5cm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²⁴⁾ 이러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삼례도』에서 제시한 보와 궤의 규격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표 2>²⁵⁾.

<표 2> 1척의 기준에 따른 『삼례도』에 제시된 규격 환산(cm)

높이: 1척		1척=21.3	1척=25	1척=31	1척=35.96
보의 구경 및 저경/ 궤의 저경	6촌(삼례도)	12.78	15.00	18.60	21.5
길이	7촌 2분(삼례도)	15.34	18.00	22.32	25.85
굽높이	2촌(삼례도)	4.26	5.00	6.20	7.18

출토된 보는 평균 높이 31.1cm이며, 궤의 평균 높이는 30.95와 34.5cm로 나뉜다. 출토된 보와 궤의 전체 높이, 구경, 굽높이, 저경을 앞서 제시한 기준과 비교·검토한 결과 1척을 31cm기준으로 삼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²⁶⁾ 다만 현재 출토된 보의 길이를 분석하였을 때, 31cm를 기준으로 실물의 규격을 역으로 환산하면 내부구경의 평균 길이는 5촌, 굽높이는 1촌 5분, 저경은 5촌 수치에 더 근접하며, 궤의 경우 평균 높이 34.5cm의 기물은 전체 높이가

23) 삼국시대 이후부터 고려에 걸쳐 길이는 분, 촌, 척, 장으로 십진법을 사용하였는데, 10분은 1촌이며, 10촌은 1척에 해당된다. 부피의 경우 작, 합, 승, 두, 석의 단계를 사용하였는데 10작은 1합, 10합은 1승, 10승은 1두, 15두는 1석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국가적인 양기의 체계는 1석이 곧 15두였으나 민간에서는 1석을 20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종봉, 2016, 『한국 도량형사』, 소명, 100, 127~129쪽.

24) 이종봉, 위의 책(2016), 93~126쪽.

25) 『삼례도』에서는 보의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구경을 제외한 나머지 규격이 궤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높이도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와 궤에서 확인되는 실제 측정 규격의 편차 범위가 1cm~3.7cm까지 확인되고 있어 30.6과 30.9, 31.5cm로 세분하여 비교하는 것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보·궤의 실제 높이 규격의 평균과 유사한 31cm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26) 집중노출지 출토 보 중에는 『삼례도』에서 제시한 규격의 높이, 굽높이, 길이에서 오차범위가 적은 기물이 확인된다. 흥미로운 것은 『삼례도』에서 제시한 구경의 길이는 내부 원형 구경의 지름(6촌)을 의미한 반면 실제 기물에서는 전체 구경의 크기가 6촌에 가깝다.

1척 1촌의 길이에 해당되어 실제 기물의 평균 길이가 『삼례도』에서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삼례도』에서는 굽의 높이도 명시하고 있는데 도설 속 도안에서도 굽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기물에서는 안굽과 평저가 다수 출토되어 굽의 높이 측정이 불가능하다. 즉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보와 궤는 1척을 약 31cm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삼례도』에서 제시한 규격을 따르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굽의 경우 형태와 규격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려시대 양기의 용적을 밝혀줄 구체적인 근거 자료 및 실물 역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승과 두의 용적을 기록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1승은 당대척 29.7cm를 기준으로 302ml, 1척 31cm를 기준으로 하여 343.19ml, 사뇌사 출토 <청동유두>를 기준으로 250ml 또는 500ml로 추정되고 있다.²⁷⁾ 이렇듯 다양한 1승을 기준으로 『삼례도』에서 표기한 보와 궤의 용적인 1두 2승을 환산하여 집중노출지 출토 보 8점과 비교해본 결과 용적은 두 구간으로 나뉜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기물인 것을 감안할 때, 각기 다른 양제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기보다 도설에서 제시한 용적을 기준에 맞추려 하였으나 그보다 작게 또는 크게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즉 1승을 약 340ml 기준으로 하여 1두~1두 4승까지의 양이 담기도록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물과 도설의 비교 결과 도설에서 제시한 길이와 용적, 형태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자기가 수축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와 궤에서 나타나는 일정 부분의 길이의 차이는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길이와 용적에서 구간별로 나뉘는 것으로 보아 제작 당시 수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자의 기술과 상황에 맞게 제작 방식과 형태에서 허용된 자율성의 범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7) 이종봉, 앞의 책(2016), 127~141쪽.

3. 중덕·상반요지와 조형적 특징 비교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보는 구연부가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나, 중덕요지 1~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보는 가장자리가 원형에 가깝게 배부른 형태로, 구연부에서 확인되는 차이가 크다. 반면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보와는 세장한 형태, 높은 굽 등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집중노출지의 보가 상반요지 출토 보에 비해 전체적으로 둔중한 느낌을 주며, 시유와 자화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유색은 어둡고 회록색에 가깝다. 또한 상반요지에서는 집중노출지 출토 보와 달리 안바닥을 얇게 깎거나 안굽 형태는 확인되지 않아 세부 제작 수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덕요지 1~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길레용 제기의 유색은 주로 연한 황백색과 연록색조를 띠는 반면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보와 궤는 회록색, 암록색조로 상대적으로 어둡고 두껍게 시유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와 크기, 유색 등을 통해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덕과 상반요지, 집중노출지에서 확인된 보와 궤 일부에서는 구연부 상면 가운데 또는 모서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구멍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부분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소성 시 기력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²⁸⁾ 그러나 보의 동체 모서리에 아주 얇게 누른 구멍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 시기나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⁹⁾

현재까지 상반요지와 중덕요지 1~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종다양한 기물들은 기종, 유색에서 공통점이 많고 세부 기형에서도 동일한 형태가 확인되었던 반면, 제기는 수량이 적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두 요지의 출토품 간에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아 특이 사례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교 분석을 통해 집중노출지 출토 제기는 형태적 유사성이나 영향 관계를 찾기 어려웠던 중덕요지와 상반요지 간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보는 상반요지의 출토품 중 높이 약 30cm의 제기와 공통점이 나타나므로 해당 제기가 제작되던 시기에 영향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상반요지와 중덕요지 둘 다 보의 뚜껑 모서리에서도 관통한 구멍이 확인되어 몸체와 뚜껑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삼성미술문화재단·호암미술관, 앞의 보고서(1987), 140쪽.

29) 구연부 상면에 뚫린 구멍은 터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얇게 뚫린 구멍의 경우 형식적인 행위만이 남은 경우이거나 목적과 상관없이 형태 모방에 의해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 출토 제기의 성격

『고려사』 「예지」에는 태모와 별모 제사에서뿐만 황이가 등장하고 있어 사당리에서 제작한 제기가 대사 제례에 사용하기 위한 왕실용 길례 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용인 서리 상반요지에서도 대사와 소사의 일부 제사에 진설되는 착준의 제작이 확인된다. 그러나 상반요지의 출토품은 중덕요지 폐기장 Ⅱ기층에서 생산된 백자에 비해 제작수법이나 태토와 유약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11세기경에 남서부의 강진 용운리를 중심으로 양질의 청자가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와 중사 제례를 위한 것이기 보다 주현의 문선왕묘 제사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 고읍성 유적이거나 화성 화산동 유적 일대에서 출토된 백자 보의 존재 또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시대 길례용 제기의 제작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I 단계는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배천 원산리와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중덕요지 폐기장 Ⅱ기층이 운영되던 시기로, 주로 청자를 생산하던 전축요에서 『삼례도』형 제기를 제작하였다. 편년자료와 출토유물의 층위 비교를 통해 10세기 말~11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다.

Ⅱ단계는 용인 서리 중덕요지 폐기장 Ⅲ기층, 용인 서리 상반요지와 여주 중암리 요지가 토축요로 전환하여 가마를 운영한 시기로, 주로 백자를 생산하던 전용가마에서 『삼례도』형 제기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중서부지역의 제기는 지방에서 지내는 국가의례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의 상대편년을 통해 11세기경부터 늦어도 12세기 초까지 가마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Ⅲ단계는 남서부지역 강진 사당리에서 『예서』형 길례용 주기를 제작한 시기이다. 제기를 생산한 가마들은 토축요로 운영되었으며 양질의 청자가 함께 제작되고 있었다. 대사의례를 위한 왕실용 제기를 제작하였으며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표면에 문양을 장식하고 있으며 13세기~14세기로 추정된다.

이 중 Ⅱ단계에 해당하는 용인 서리 중덕요지의 집중노출지에서 확인된 제기는 선행 조사된 중덕요지 제기의 출토 상황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집중노출지는 가마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지 근처의 매우 얇은 수혈로 내부에서 제기와 갑발, 할석이 함몰되어 노출되었다.

집중노출지는 공납 전 임시 보관 장소이거나 선별장소일 가능성, 출토 제기가 제작과 관

련한 표본 제작품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³⁰⁾ 그러나 출토품의 분석 과정에서 견본품으로 추측되는 단서를 몇 가지 확인하였다. 출토된 보와 궤에서 동체의 결손이나 소성 시 생긴 균열로 인해 제수를 담기 어려운 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곳에 모아둔 점, 다양한 용적과 길이의 기물이 확인되고 있는 점, 출토된 대다수의 제기와 전혀 다른 제작방식으로 제작된 궤가 출토된 점, 상반요지에서 도설을 참고하여 제작한 표본품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점³¹⁾ 등을 통해 해당 제기들이 제작을 위한 견본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모아둔 것은 이러한 기물이 일부 파손되었다 해도 형태, 제작방식, 길이 또는 용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인 서리 중덕요지와 상반요지에서 제작한 백자 제기는 배천 원산리 요지에서 제작한 ‘순화’명 태묘용 청자 제기와는 사용처, 제작자, 제작 기술, 자기의 종류와 질, 규격 등에서 모두 확연히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어 성격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³²⁾ 용인 서리 중덕과 상반요지에서 제작된 제기는 길례용 제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납의 방식을 통해 주현의 문묘 제사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용인 서리 4차 발굴조사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보와 궤를 중심으로 용인 서리 요지에서 제작된 길례용 제기의 조형적 특징과 성격에 관해 살펴보았다. 고려 전기에는 『삼례도』를 바탕으로 용인 서리 지역에서 지방소용의 길례용 제기를 제작하였으나 13세기 이

30) 서경문화유산연구원, 앞의 보고서(2025), 160, 161쪽; 이유진·노수만·박은선, 2022,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학술발굴조사」, 『중부고고학회 학술발표회』Vol.2022 2호, 중부고고학회, 60쪽.

31) 상반요지에서 출토된 착준은 『삼례도』속 그림과 형태는 동일하나 몸체의 원형 장식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원형의 구멍으로 뚫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기보다 도설을 참고하여 제작한 견본품으로 판단되나 제작 시 동체만 잔존하여 폐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용인 서리 일대의 요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체제 하에 운영되었거나(이종민), 운영주체가 지방 사회의 호족들로 공납의 명목으로 국가에 바쳤을 것(이희관), 용인 서리와 여주 중암리 일대에서 제작된 제기의 수급이 제기 도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졌을 것(오영인) 또는 왕실 및 중앙 관부와의 연관성 위에서 운영되었다고 보는 의견(장남원) 등이 있다. 오영인, 2023(앞의 논문), 86, 88쪽; 이종민, 2011, 「고려초 청자 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제58호, 호서사학회, 298, 299쪽; 이희관, 2011, 「한국 초기청자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사와 지방문화』제14권 2호, 역사문화학회, 38쪽; 장남원, 2021(앞의 논문), 27, 28쪽.

후 강진 사당리를 중심으로 『예서』를 참고하여 대사와 중사에 사용할 길레용 주기를 제작하였다.

용인 서리 중덕과 상반요지에서 제작된 제기는 도설에 수록된 형태, 길이 및 용적을 참고 하되 제작 환경과 조건, 제작자의 기술에 따라 일정부분 변용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보와 궤는 용인 서리 상반요지와 중덕요지 1~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제기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보와 궤는 공납용 제기 제작을 위한 견본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려시대 길레 제사들은 주로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파손되거나 낡은 제기는 매립의 방식으로 폐기되었기 때문에 소비지 출토품을 확인하기 어렵다. 생산지 출토품의 경우 2010년대까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어 고려시대 제기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시기적·지역적으로 치우친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그간 축적된 발굴 자료와 미처 알려지지 못한 박물관 소장품을 통해 고려시대 제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한편, 중덕요지 4차 발굴조사 출토 제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다수의 보와 궤를 통해 조형적 특징과 길이 및 용적을 파악하여 제기 연구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사회·경제사의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용인 서리 요지에서 출토된 길레용 제기는 실물자료와 도설을 비교하여 명칭과 용도·형태·규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된다면,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제기의 제작 상황이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중노출지 출토 제기의 폐기 원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길레용 제기의 제작지 및 제작시기 등과 같은 문제들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三禮圖』
『禮書』
『直齋書錄解題』

2. 논문 및 단행본

- 구혜인, 2024, 「조선시대 중묘 오향대제용 제기의 상호관계와 성격」, 『한국학』 제47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보광, 2019, 「고려전기 闕門의 역할과 국가의례상 의미」, 『동방학지』 제189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영진, 2003, 『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김우성, 2017, 「고려 전기의 예서 도입과 태묘 제례」, 『한국중세사연구』 제51권, 한국중세사학회.
- 김철웅, 2002,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제118호, 한국사연구회.
- _____, 2005, 「고려 전기 사전(祀典)의 형성 과정」, 『사학지』 제37호, 단국사학회.
- 金孝眞, 2010, 「龍仁 西里 窯址 出土 高麗白磁 祭器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4,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미술사학연구』 제282호,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2019, 「청자 황이」,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고려청자박물관.
- 박형순, 2019, 「청자 반침」,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고려청자박물관.
- 섭승의 지, 문정희·박윤미·방향숙·최진목 역주, 2023, 『삼례도집주』 권8~권14, 세창출판사.
- 오영인, 2021, 「고려 초 순화(淳化)명 청자에 대한 재조명-제작과 전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93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_____, 2023, 「고려전기 예제의 정비와 자기 제기의 전개-태묘 의례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도자기 新樣祭器』, 경기도도자박물관.
- 이종봉, 2016, 『한국 도량형사』, 소명.
- 이유진·노수민·박은선, 2022,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학술발굴조사」, 『중부고고학회 학술발표회』 Vol.2022 2호, 중부고고학회.
- 이종민, 2011, 「고려초 청자 생산 중심지의 이동과정 연구」, 『역사와 담론』 제58호, 호서사학회.
- 이희관, 2011, 「한국 초기청자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4권 2호, 역사문화학회.
- 장남원, 2021, 「고려 전기 ‘순화(淳化)’명 청자 제기류의 현황과 의의」, 『美術史論壇』 제53호, 한국미술연구소.
- 張成旭, 2006, 「高麗時代 陶磁祭器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2018, 「강진지역 도자 연구」, 『고려청자의 頂點을 만나다』, 국립전주박물관.
- 최순권, 2004, 「종묘제기고」, 『종묘대제문물』, 궁중유물전시관.

3. 도록

경기도자박물관, 2023, 『하늘과 땅을 잇는 도자기 新樣祭器』.

고려청자박물관, 2016,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_____, 2019, 『하늘의 조화를 빌리다』.

4.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 조사 보고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21, 『강진 사당리 청자 요장-8호·23호·40호 발굴조사보고서』.

三星美術文化財團·湖巖美術館,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I』.

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25,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Ⅲ-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4차 발굴조사』.

驪州郡京畿道博物館, 2004,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용인문화원·용인시·경기문화재연구원·경기문화재단, 2016, 『龍仁西里上盤高麗白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2001, 『芳山大窯』.

湖巖美術館,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 II』.

토론

「고려시대 용인 서리요지 출토 길례용 제기의 조형적 특징과 성격 -중덕요지 4차 발굴출토품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김태은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2022년 용인 서리 중덕요지 4차 발굴 조사에서 다수의 완형에 가까운 제기가 일괄 매립된 채로 확인되어,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출토 제기는 완형 또는 완형에 가까운 30여 점의 보·괘였으며, 제기가 집중적으로 수습된 유구(이하 ‘제기 집중노출지’)는 다수의 건물지가 분포한 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였고 특기할 만한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제기 유물 및 관련 기록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이번에 확인된 제기 및 집중노출지 유구, 그리고 이를 제작했던 중덕요지는 고려시대 의례와 제기 관련 연구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발표자는 과거 용인 서리 상반요지를 발굴 조사하고 출토 제기와 고려시대 의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고찰한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발표자는 먼저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의례 기록과 길례용 제기 자료를 분석 후 시기별 변화 양상과 그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집중노출지 출토 제기의 길이와 용적을 정밀 분석하고 『삼례도』에 제시된 제기 규격과의 비교를 통해 당시 사용된 도량형의 기준값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과 도출된 결과는 높은 설득력을 지니며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제기의 성격과 용처에 관한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덕요지 4차 발굴 조사와 이번 발표는 한동안 정체되었던 고려시대 제기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발표자의 분석과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며 집중노출지 출토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III장 3절에서 다룬 집중노출지 출토품과 상반요지 출토 제기와의 친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집중노출지 출토품은 중덕요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나, 중덕요지 1~3차 조사에서 출토된 제기보다는 상반요지 출토품과 태토, 품질, 조형 및 규격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유사성을 보인다. 다만, 발표자는 상반요지에서는 규격의 차이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한 다양한 형식의 제기가 출토되었으며, 이들 중 한 형식이 집중노출지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요지 출토 제기의 유형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 각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유형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규격을 달리하여 제작된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유형별로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집중노출지 출토품과 유사한 형식의 높이 30~32cm에 해당하는 제기가 상반요지에서 확인된 여러 유형 중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인지, 혹은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인지, 중덕요지 퇴적층 중에는 어느 층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집중노출지 출토 제기의 용처에 관한 질문이다. 발표자는 집중노출지 출토품 및 유사한 품질의 상반요지 출토 제기가 고려 초기 제작된 중덕요지 폐기장 II기층 제기보다 품질이 저하된 점, 동시기 강진에서 양질 청자가 생산된 점, 경기 일부 유적에서 백자 제기가 출토된 점을 근거로 주현 문선왕묘 제기로 추정하였다. 토론자도 발표자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통해 해당 제기가 왕실용 제기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첫째, 현재까지 11세기경 강진에서 제작된 『삼례도』형 제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용인 서리 출토 제기가 11세기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점과는 별개로, 고려 왕실에서 새로 반포한 도량형 기준에 따라 제기의 규격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강진과 부안에서 제작된 양질 청자는 왕실 외에도 해당 요지 인근의 국가 또는 지역 제사를 지냈던 월출산, 부안 죽막동, 용장성 등의 제사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용인 서리 생산품 또한 왕실 공납품이었을 지라도 더불어 지역 제사도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용인 서리에서 생산된 제기가 지역 제사에 사용되었더라도,

동시에 왕실에 공납되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결국, 용인 서리 제기의 용처 문제는 해당 요장의 운영 주체와 성격에 대한 해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집중노출지에서 출토된 제기의 성격과 폐기 원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현재까지 집중노출지는 공납 이전의 임시 보관 장소 또는 선별 장소였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며, 출토된 제기는 제작과 관련된 표본 제작품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다. 발표자는 출토품이 번조 실패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아졌다는 점, 규격과 제작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상반요지에서도 유사한 표본품이 출토된 사례 등을 근거로 견본품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집중노출지 출토품이 모종의 이유 혹은 실패품으로 소용이 없어서 일괄 매몰된 폐기품일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한다. 먼저,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집중노출지는 건물지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별도의 구조나 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구덩이로 판단된다. 만약 이곳이 견본품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건물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최소한의 보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과거 중덕요지 조사에서도 제기가 건물지의 매몰 유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전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상반요지 출토 착준이 표본품으로 해석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혹은 번조 실패로 인한 폐기품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다. 아울러, 발표자 또한 출토 제기가 폐기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견본품일 가능성을 보다 높게 추정한 것으로 이해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고자 한다.

2025


용인 서리 요장의
확장발굴을 통해 본
고려도사 연구사의 쟁점

인 쇄 2025년 6월 11일

발행일 2025년 6월 13일

인 쇄 세종문화사 (051-463-5898)

편 집

 韓國中世考古學會

(49503)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51-1 2층

051-262-0607

kmaas01@hanmail.net

www.kmaas.or.kr

